

제2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09년 1월 16일(금요일)

장소 :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902호 멀티미디어 세미나실

주제 : 국어 문법 연구

주최 : 한말연구학회

후원 : 중앙대학교

제1부	특강	사회: 허원옥(건국대)	
10:30 ~ 11:10	이주행 (중앙대)	사회언어학과 한국어교육	
제2부	일반발표	사회: 김용경(경동대)	
11:20 ~ 11:50	고석주 (연세대)	조사 '의'의 의미와 문법	김정호 (건국대)
10:50 ~ 12:20	백낙천 (배재대)	특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 태론적 해석	박동근 (건국대)
<점 심>			
제3부	일반 발표	사회: 이준희(경기대)	
1:30 ~ 2:00	정성미 (강원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선정에 관하여	양명희 (동덕여대)
2:00 ~ 2:30	김경주 (서울대)	신문 칼럼의 비판적 읽기 교육 방안 연구	김슬옹 (동국대)
2:30 ~ 3:00	김형정 (규슈대)	조사 '에'와 '에게'의 교체 양상 연구	한성일 (경원대)
제4부	일반 발표	박석준(배재대)	
3:10 ~ 3:40	최미현 (동의대)	동의보감 탕액편에 반영된 한자음 연구	박철주 (서강대)
3:40 ~ 4:10	최영미 (경동대)	정선 지역어의 성조소와 그 표기(2)	최중호 (동의대)
4:10 ~ 4:40	고경민 (건국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오류 분석	허재영 (단국대)
<폐 회>			

한 말 연 구 학 회

차례

• 연구 발표 요지

이주행 : 사회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	1
고석주 : 조사 ‘의’의 의미와 문법 -----	14
백낙천 : 특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	15
정성미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선정에 관하여 -----	23
김경주 : 신문 칼럼의 비판적 읽기 교육 방안 연구-----	34
김형정 : 조사 ‘에’와 ‘에게’의 교체 양상 연구 -----	35
최미현 : 동의보감 탕액편에 반영된 한자음 연구 -----	52
최영미 : 정선 지역어의 성조소와 그 표기(2) -----	63
고경민 :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오류 분석 -----	78

사회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이주행 (중앙대학교)

1. 사회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사회언어학이란 언어를 사회적 변인—사회 계층·세대·성·종교·인종·언어 상황 등—과 관련 지어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이것을 사회방언론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적 변인에 따라 동일한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다. 언어 구조와 사회 구조를 상호 연관시켜서 언어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순수언어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회언어학은 실용언어학의 일종이기도 하다.

변형생성문법론자들은 동질적인 언어 사회에서 이상적인 화자(ideal speaker)가 두뇌에 지니고 있는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중시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즉 언어 수행(言語遂行, linguistic performance)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 능력보다 언어 수행 혹은 의사소통 능력(意思疏通能力, communicative competence)을¹⁾ 중시한다.

사회언어학의 연구 목표는 언어와 사회의 공동 변이(co-variance)를 찾아 기술하고, 언어 수행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다. 대화 정황(speech event)에서 대화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언어가 다르게 실현되기 때문에 언어의 구사는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조부모·부모·형제·친구·상사·부하 등에게 각각 다르게 말한다. 다른 사람 특히 낯선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면 대화 패턴이 일반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각 언어는 많은 변이형(variety) 속에 존재하며, 어떤 의미에서 언어는 변이형의 총합임을 뜻한다(Wardhaugh, 1998 : 21). 변이형이란 이용 가능한 공식적 기술의 기법으로 분석되는 아주 동질적이며, 모든 형식적인 의사소통 맥락의 기능에 넓은 의미 영역으로 요소와 요소의 배열 또는 과정의 광범위한 목록을 가진 인간 발화 유형—음성, 단어, 문법적 특징 등—의 집합체를 뜻한다(Ferguson, 1971 : 30). 우리가 사회적 변이형의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지역방언론(regional dialectology)의 선행 연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언어의 사회적 변이형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 변이형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출신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배경, 나이, 성별, 인종, 직업, 집단 충실도(group loyalty) 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리적 기원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편견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언어학은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거시사회언어학(巨視社會言語學, macro-sociolinguistics)과 미시사회언어학(微視社會言語學, micro-sociolinguistics)으로 나뉜다. 거시사회언어학은 모든 언어학적인 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는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이것은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어떤 언어 정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나, 단일 언어 국가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사회계층별로 언어가 어

1) Hymes(1972 : 277)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제 말하여야 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여야 하는지는 아는 능력이라고 한다.

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고찰한다. 미시사회언어학은 언어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미시사회언어학에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행하여지는 때와 장소,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2. 사회 변인별 언어 특성

2.1 사회 계층과 언어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전체 구성원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집단 사이의 층위 구조를 뜻한다. 불평등은 소득, 직업, 학력,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력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에 기초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사회적 계층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조화되는 계급(class)의 형태를 보인다. 언어는 계급적 차이를 반영하고 이것을 강화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화자는 상위 혹은 하위 계급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사용상의 빈도(frequency)이다. 사회 계층의 개념은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언어 변이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서열화된 집단의 화자는 특정한 음운·어휘·문법 등을 구사함에 있어서 빈도의 차이를 보인다(강현석 외, 2002 : 190).

사회 계급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치·경제적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인데,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은 공동체와 관련되며 상호 작용을 하는 개인 차원의 사회적 조직이다. 계급의 구조는 ‘갈등, 분화, 불평등’인 반면에 연계망은 ‘합의’를 통해 결속된다(Lesley Milroy and James Milroy, 1992 : 2). 발음과 문법적인 형태에서 생기는 언어적 변이는 계급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언어적인 일치하는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촘촘한 사회적 연계망은 구성원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족 간의 유대, 일터 등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한 압력을 가한다(강현석 외, 2002 : 193). 촘촘한 연계망은 하류 사회 계급의 특성인데, 느슨한 연계망은 중류 계급의 특성이다. 느슨한 연계망의 특징은 지리적 이동 가능성이 높고, 친족 관계가 약하며, 교제 범위가 넓은 것이다. 촘촘한 연계망은 개인들 사이의 강한 유대와 공동체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전체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것이라고 하여도 독특한 언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집단 내에서 표준어를 전파시키려는 강력한 국가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낮은 일상어로 낙인찍힌 언어 형태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Lesley Milroy and James Milroy, 1992 : 6). 여기에서 지위가 낮은 일상어로 낙인찍힌 언어 형태는 비속어·비표준어·욕설 등을 뜻한다.

사회학자와 사회언어학자에 따라 사회 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사회 계층의 분류 준거로 Labov(1966)에서는 학력·직업·수입 등을, Warnner(1967)에서는 교육·거주지·수입·가족 배경 등을, Trudgill(1974)에서는 직업·학력·수입·주택의 양식·거주지·부친의 직업 등을 들고 있다. Shuy, Wolfram and Riley(1968)에서는 거주지·학력·직업 등을, 김영모(1982)에서는 재산·학력·직업·수입·가문·인격 등을 사회 계층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Wolfram & Fasold(1974 : 44)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측정보다 사회적 요인—교회 신도·여가 활동·지역 사회 조직—에 따른 것이 더욱 직접적으로 사회 계층에 연관된다고 한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므로 거주지·가족 배경·가문 등도 사회 계층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

한국의 사회 계층별 언어 실현 양상을 음운 · 어휘 · 문장 · 담화 등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운 : 사회 계층별 음운 변동 현상은 어두경음화현상(語頭硬音化現象), ‘ㄹ’음 첨가 현상, 연음법칙(連音法則)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현상, 움라우트 현상 등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어두경음화현상은 한국의 모든 사회 계층의 발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위 중류 계층(lower middle class)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비하여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오늘날 20대 이하의 젊은이와 어린이 가운데 상당수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한다. 언어 변화를 주도하는 하위 중류 계층과 20대 이하 세대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통해 볼 때 어두경음화현상은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날이 갈수록 보편화되어 갈 것이다. 어두경음화현상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소홀히 하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가 그만큼 삭막하기 때문이다.

‘ㄹ’음 첨가 현상도 한국의 사회 계층 중에서 하위 중류 계층에서 가장 많이 실현된다.

연음법칙에 어긋나게 가장 많이 발음하는 계층도 하위 중류 계층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한국어에서 7중성 법칙에 따라 발음하던 것이 오늘날 간이화 욕구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연음법칙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이가 골고루 분포하는 요인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 음운 규칙에 관한 교육을 실제 언어 생활과 관련지어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발음하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되도록 좀더 쉽게 발음하고자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 계층 중에서 움라우트 현상에 따라 발음하는 이가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위 하류 계층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움라우트 현상을 제외하고,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거나, ‘ㄹ’음을 어간에 첨가하여 발음하거나, 연음법칙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위 중류 계층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한국에서 한국어 음운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 계층은 하위 중류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음운 현상 중 피어슨의 검정 결과 어두경음화현상을 제외하고, ‘ㄹ’음 첨가 현상·연음법칙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현상 · 움라우트 현상 등이 한국 사회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2) 어휘 : 사회 계층별 어휘 사용 양상 고찰 대상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어휘, 비속어, 채움말 등에 국한하기로 한다.

하류 계층에서 상류 계층으로 갈수록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이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코드 전환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상류 계층과 중류 계층에 속하는 제보자의 출생지와 성장지가 서울과 경기도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표준어를 구사하는데, 출생지와 성장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비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이 표준어를 구사하여야 할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상당수가 초·중·고교에서 표준어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하고, 표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를 구사하여야 할 상황에서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 계층 중에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중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위 중류 계층**이다. 이러한 요인은 하위 중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실제보다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주길 바라는 욕구가 가장 강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Wardhaugh(1998 : 254)가 말한 바와 같이 자기들보다 더욱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로 말미암아 외래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 계층 중에서 중위 하류 계층과 하위 하류 계층은 외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상위 하류 계층에서 상류 계층으로 갈수록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이다. 기원 전 3세기경부터 19세기말까지 중국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젖어 중국어 어휘를 한국어에 섞어 사용한 것과 같이 8·15 광복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식자층은 영어를 한국어에 혼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Trudgill(1975 : 35)이 일찍이 최고의 사회 집단에서 시작하는 언어의 혁신(linguistic innovation)은 마침내 가장 낮은 사회 집단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한국어에 외국어 어휘를 섞어 말하는 것은 한국 언어 문화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끼리의 의사소통을 할 적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문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민족주의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에서는 한국인끼리 의사소통을 할 적에 외국어를 한국어에 섞어 쓰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한국의 공적인 상황에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적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위 하류 계층이다. 상류 계층에서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저속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가 많다. 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꾸밈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채움말²⁾을 사용하는 비율은 상류 계층에서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높은 편이다. 상류 계층과 상위 중류 계층에서는 ‘어, 저, 뭐’를, 중위 중류 계층에서는 ‘그, 어, 저, 뭐’를, 하위 중류 계층에서는 ‘그, 어, 저, 음, 인제, 그냥³⁾, 뭐’를, 상위 하류 계층에서는 ‘음, 어, 저, 좀/쫘, 저기, 막, 뭐’를, 중위 하류 계층에서는 ‘어, 저, 이제, 인제⁴⁾, 뭐’를, 하위 하류 계층에서는 ‘응, 음, 어, 저, 막, 글썸, 거시기, 뭐’ 등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사회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움말은 ‘어, 저, 뭐’ 등이다.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비표준어, 비속어, 채움말 등은 상류 계층에서 하위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외래어는 하위 중류 계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외국어는 상류 계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외래어를 하위 중류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동기 때문인데, 상류 계층에서 외국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위세적인 동기 때문이다.

2) 문효근(1983 : 11)에서는 ‘군소리’와 ‘군말’을 ‘머뭇거림플(hesitation form)’이라 하고, 이것들은 일상의 대화에서 남의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을 얼른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말하기에 난처한 입장에 있거나, 적절한 표현의 방법을 못 찾거나 그 밖에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기를 싫어하거나 하는 나머지, 머뭇거리면서 내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한편 문효근(1983 : 8)에서 군소리는 그 뿌리를 언어 기호에 두고 있지 않은 한갓 호흡 조절에 따르는 생리적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3) 주로 여자가 ‘그냥’을 채움말로 사용한다.

4) ‘인제’는 ‘인제’의 비표준어임.

체움말을 제외한 비표준어·외래어·외국어·비속어 등의 사용은 모두 p-값이 0.05 이하이므로 한국 사회 계층 간 유의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이것들은 사회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

3) 문장 : 한국의 사회 계층별 문장의 특성은 제보자가 구사하는 비문법적인 문장과 그가 발화하는 문장의 길이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보자들이 구사한 비문법적인 문장을 분석하여 보면, (ㄱ) 격조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ㄴ) 연결 어미를 잘못 사용하거나, (ㄷ)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⁵⁾.

상류 계층에서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비문법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비율이 높다.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장문(長文)으로 말하는데, 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단문(短文)으로 말한다.

4) 담화 : 담화상 특성은 제보자가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과 발화의 연속 규칙(sequencing rule)에 따라 말하는 실태를 살펴보는 데 국한하기로 한다.

관련성의 격률에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위 하류 계층이다. 또한 조사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도 하위 하류 계층이다. 이것은 상류 계층에서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대화의 원리를 모르고 대화를 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발화의 연속 규칙에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위 중류 계층이다. 언어 변화의 주도 계층이 하위 중류 계층이므로 앞으로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발화의 연속 규칙에 어긋나게 말할 현상이 농후해질 가능성이 높다.

2.2 성과 언어

남성과 여성의 언어는 상이한 것보다 유사하고 동일한 것이 많다. 남성어와 여성어가 다른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구별된 성 역할을 가르치고 강화시키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상이한 방식으로 각자 자신을 표현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상이한 발화 스타일이 문화적으로 각 성에 연관된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많은 경우에 정형화되어 버려 일정한 문화의 구성원들은 어떤 언어 행위가 전형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의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남성이 전형적인 남성 발화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성 역시 전형적인 여성 발화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차이 이외에도 의사소통 맥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화의 격식성/비격식성, 화자의 목적, 대화자 간의 관계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화자의 언어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연령, 사회 계층, 인종, 종교, 출생지 등과 같은 화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징들도 언어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여성이나 남성의 언어를 인지할 때 기저 문화의 모형과 사회적·정치적 함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 언어 차이를 논할 적에 과잉 일반화하여 진술하

5) 제보자들이 구사한 비문법적인 문장의 보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격조사를 잘못 사용한 것 :

① 원래 씨일이 일월달하구 사월달하구 칠월달하구 십이월달 이렇게 했어요.

② 나이가 먹어 가지구 쟁피해서 한 귀퉁이에서 내가 숨어서 있었어.

(2) 연결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것 : 사회 전체도 힘들지만 남편이 사업을 해서 우리도 힘들어요.

(3)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

소득들이 다 평균적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그 예전 같은 생활 수준 유지하기가 힘들죠.

지 않아야 한다.

여성의 음성은 대체로 높고 가늘고 얇은데, 남성의 음성은 낮고 두껍고 깊다. 일

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동적인 억양⁶⁾ 패턴을 보인다. 여성은 자신이 가진 음역 범위 내에서 더 동적인 높낮이(pitch)를 구사하고, 성량(volume)을 신속하게 바꾸고, 남성보다 더욱 빠르게 말한다. 평서문을 남성은 하강조로 발음하는데, 여성은 상승조로 발음한다. 이와 같이 여성이 평서문을 상승조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Robin Lakoff(1975 : 17)에서는 여성이 주저하고, 확신이 없으며, 주장하는 힘이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McConnell-Ginet(1983)과 Pamela Fishman(1983)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여성이 청자의 반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한국의 여성은 접속문과 평서문에서 주로 상승조를 구사한다.

(1) 아주 티프하네요↗.

(2) 어제 저는 충남 광천에 있는 오서산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산딸기를 따 왔어요↗.

여성은 남성보다 표준어를 더 선호한다. 남성은 타향의 방언보다 자신의 고향 방언이 더욱 듣기가 좋다고 하는데, 여성은 자신의 고향 방언보다 표준어가 더욱 듣기 좋다고 한다(민현식, 2003 : 153).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외국어를 한국어에 더 많이 섞어 쓴다.

비속어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수식어인 ‘많이많이, 너무너무, 정말정말’ 등과 같은 반복 부사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어머머, 아유, 세상에, 예그머니’ 등의 감탄사를 즐겨 쓴다. 이와 같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복 부사와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가 허락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일한 사회 구성원에게서 감정을 통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 때문에 감정의 풍부함을 표시하는 말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있잖아요’와 같은 대화 도입 어구(語句), ‘맞아요, 정말 그래요’ 등과 같은 맞장구 어구, ‘못살아, 몰라몰라, 미워미워’ 등의 과장 어구를 남성보다 더욱 자주 사용한다.

일찍이 Robins Lakoff(1975 : 16~17)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 의문문(tag questions)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단언적 주장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가 의문문은 확인적 부가 의문문(modal tag questions)과 정의적 부가 의문문(affective tag questions)으로 나뉜다. 확인적 부가 의문문은 다음의 예문 (3ㄱ)과 같이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진술에 대해서 청자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것은 화자의 지식을 보충하여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화자 지향적’인 것이라고 한다. 정의적 부가 의문문은 다음의 예문 (3ㄴ)과 같이 명령이나 비판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다음의 예문 (3ㄷ)과 같이 대화에 청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촉진적 기능을 한다.

(3) ㄱ. 날씨가 매우 쾌청하죠, 그렇지 않아요?

ㄴ. 책 좀 빌려 줘요, 네?

ㄷ. 그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6) 억양은 전체 발화에 놓이는 리듬, 성량(volume), 높낮이(pitch) 등이 조합되는 복합체이다. Sally McConnell-Giner(1983 : 76-77)에서는 동적인 억양 패턴은 감정과 자연적 충동을 나타내고, 정적인 억양 패턴은 감정을 통제하고 자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남성은 정보를 얻거나 확인하는 화자 지향적 목적을 위해 확인적 부가 의문문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성은 청자 지향적 목적을 위해 정의적 부가 의문을 주로 사용한다(Janet Holmes 1984 : 54).

남성은 청자 대우법의 격식체를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성은 비격식체를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4) 여성 : 어서 오세요.

남성 : 어서 오십시오.

담화에서 남성은 협조적 전략보다 경쟁적 전략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데, 여성은 경쟁적 전략보다 협조적 전략을 더욱 많이 사용한다⁷⁾. 그 이유는 대화를 할 적에 여성은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데, 남성은 지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말 방해와 말 중복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한다. 감정을 논의할 적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침묵을 더 지킨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힘을 유지하고 행사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담화를 할 적에 울타리 표현(hedge)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울타리 표현이란 화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직설적인 언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여성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은 우유부단하고 명시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5) ㄱ. 아마도 우리가 재결합하기 위해서 힘써 볼 수도 있을 거야.

ㄴ. 그 모임에 참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7) Tannen(1990)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남성어와 여성어의 특성

남성어	여성어
(1) 서열적 경쟁 관계를 추구함.	(1) 대등적 협력 관계를 추구함.
(2) 충고나 해결을 좋아한다.	(2) 이해나 동정 자체를 좋아한다.
(3) 공격적인 상황에서 말이 많은 편임.	(3) 공격적인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편임.
(4) 정보 수집과 전달에 힘쓴다.	(4) 정보를 알아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
(5) 정보가 많은 사람이나 유모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	(5) 정보가 많아도 남자와의 대화에서는 대화 주도가 어렵다.
(6) 상대 이야기에 호응이 적다.	(6) 상대의 이야기에 호응이 많다.
(7) 주제 전환이 빠르다.	(7) 주제 전환이 느리다.
(8) 제안할 때 명령조를 잘 쓴다.	(8) 제안할 때 권유조를 잘 쓴다.
(9) 말 자체를 중시한다.	(9) 말의 속뜻을 중시한다.

이상의 예문 (5ㄱ)과 (5ㄴ)은 화자가 자기가 한 진술에 확신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울타리 표현의 사용은 사회적인 통제를 반영한다. 여성은 타인을 공경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청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표현을 사용한다 (강현석 외, 2002 : 260). 잠정적인 스타일로 주장하여 남에게서 도전을 받게 될 적에 그 주장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울타리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의적 의미를 전달하는 표시의 기능도 한다(Holmes, 1984 :48)⁸⁾.

(6) 네 남편은 바람둥이야.

(7) 글썄, 내 생각엔 네 남편이, 음, 글썄 뭐랄까 좀 바람기가 있는 것 같아.

이상의 예문 (6)은 확신에 찬 단정적인 표현이지만, (7)은 화자 자신의 주장에 주저하는 표현을 많이 섞어서 단정적인 비판을 피함으로써 친구를 배려한 것이다.

성 차별 언어란 한 쪽 성에 대한 부당한 성 차별의 편견을 보이는 언어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말미암아 여성 차별 언어가 남성 차별 언어보다 많은 실정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8)과 같다.

(8) ㄱ. 여자는 밥하고 애나 봐.

ㄴ. 여자가 무슨 정치야?

ㄷ. 여자가 무슨 자가용 운전이야,

ㄹ. 다 큰 계집애가 밤늦게 돌아다녀.

ㅁ. 아침부터 여자가 큰소리 치면 집안 망해.

ㅂ. 여자가 똑똑하면 대가 세.

ㅅ.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ㅇ. 여자 팔자는 뒤통박 팔자

ㅈ. 암탉이 울면 재수 없어.

ㅊ.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 패야 한다.

오늘날 남녀평등 의식이 고취되면서 남성 차별 언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ㄱ. 남자가 빌빌거리.

ㄴ. 남자가 단 돈 천 원 가지고 되게 쩌쩌하게 구네.

ㄷ. 남자가 비겁하게 도망가니?

ㄹ. 처자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자야?

ㅁ. 남자가 화장도 하니?

8) 울타리 표현은 공손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문] 선생님께서는 저의 당돌한 말썬에 몹시 마음 상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저어했습니다.

남녀 차별 언어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교육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성 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것을 사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 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 차별 언어가 쓰인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언론 사에서는 성 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3 연령과 언어

연령 간에도 언어 차이가 있다. 30대 이하의 젊거나 어린 사람들 중에는 40대 이상의 사람들보다 단모음 /ㄱ/와 /ㄴ/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ㄱ/와 /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며, 음성모음화와 어두경음화에 따라 발음하며,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많다. 10대와 20대가 주로 유행어를 만들어 즐겨 사용한다. 유행어는 일종의 속어(slang)로 참신성이 있고 유대감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형식적 규칙을 배제하고 생명력이 짧은 말이다.

- (10) ㄱ. 얼짱, 몸짱, 몸짱, 살짱, 마음짱, 섹스짱, 테크닉짱, 얼짱, 줄라, 썰렁맨
 ㄴ. 맞습니다 맞고요.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예요.

60대 이상은 그 이하 세대보다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말하거나 글을 쓴다. 청소년들은 60대 이상이 일상어로 사용하는 ‘읍참마속(泣斬馬謖)⁹⁾, 목불인견(目不忍見¹⁰⁾, 무위도식(無爲徒食¹¹⁾, 사면초가(四面楚歌¹²⁾, 오매불망(寤寐不忘¹³⁾’ 등을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인구어 계통의 외래어, 혼종어(hybrid), 외국어 등을 한국어에 섞어 쓴다. 다음의 (11)에서 (11ㄱ)은 서구어 계통의 외래어이고, (11ㄴ)은 혼종어이며, (11ㄷ)은 외국어이다.

- (11) ㄱ. 라이벌(rival), 라인(line), 마인드(mind), 모티브(motive), 액션(action), 컨디션(condition), 컨셉트(concept), 패션(fashion), 프린트(print)
 ㄴ. 썰렁맨, 디스카운트하다, 스마트하다, 험습하다, 터프하다, 샤프하다, 심플하다
 ㄷ. yes, no, oh my god, wonderful, luxury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10대와 20대는 이른바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데, 인터넷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12) ㄱ. [준말] 샘(선생님), 설(서울), 스타(스스로 타락한 사람), 섬(시험), 알바(아르바이

9) ‘읍참마속’이란 중국 촉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街亭 싸움에서 패한 마속을, 울면서 참형에 처하였다는 고사에서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10) ‘目不忍見’은 너무 딱하고 가여워서 또는 너무 꼴불견이어서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11) ‘无为徒食’이란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함을 뜻하는 말임.

12) 四面楚歌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사방이 모두 적에게 둘러싸였거나 혼자 떨어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임.

13) 오매불망이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말임.

트), 중딩(중학생), 고딩(고등학생), 범생(모범생), 재사(재주 있는 사람), 짱(짜증), 공산당(공부 못해도 산다는 당돌한 애), 바보(바다의 보배), 안습(안이 습함), 짬있어(재미있어), 먼(무슨), 강(그냥), 넘(너무너무), 바여(빠요), 몬지(뭔지), 모해여(뭐해요)

ㄴ. [영어식 약자 표기] imo(in my opinion), ftf(face to face), a(answer), q(question) ; u(you), re-hi(다시 안녕), lol(laugh out loud(너무 웃기는군), oic(oh, I see)

ㄷ. [숫자 약자] 11(나란히 있고 싶어요), 20000(이만), 100(돌아와), 10288(열이 팔팔), 1004(천사), 045(빵 사 와)

ㄹ. [소리나는 대로 표기] 추카(축하), 알게씨(알겠어), 퍼니지(편이지), 글케(그렇게), 헨니(했니), 감사합다(감사합니다), 시러(싫어), 마니(많이)

ㅁ. [감정 표기] 하성(하서), 시픈땡(싫은데), 알찌(알았어), 슬포(슬퍼)

ㅂ. [감정 표기] : -)=기쁨, 행복함. :- (=슬픔. 0.0=무척 놀람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10대와 20대의 이른바 N세대가 사용하는 이상의 (12)를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르는 한국의 중년층·장년층·노년층 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20대와 30대 주부들 중에서 20% 이상이 자기의 남편을 ‘오빠’라고 호칭하거나 지칭한다. 심지어 남편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어도 ‘오빠’라고 부르는 주부가 있다. 40대 이상의 주부들 중에는 남편을 ‘아빠’나 ‘아저씨’라고 일컫는 이가 있다. 이와 같이 호칭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원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호칭어와 지칭어 교육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각종 인물이 호칭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의 영향을 받고, 기존의 도덕률을 배우는 통과예례를 거부하는 데 있다. 한국의 20대, 30대, 40대 중에는 자기의 아내를 ‘와이프’ 혹은 ‘아내’라고 일컫는 이가 많으며, 50대 이상은 ‘집사람’ 혹은 ‘안사람’이라는 호칭하는 이가 많다.

10대와 20대는 자신의 고향 방언을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와 40대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가급적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힘쓴다. 퇴직한 50대 이상은 10대와 20대와 같이 자신의 고향 방언을 공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한다.

대부분의 여성과 30대 이하의 남성들은 주로 청자대우법의 비격식체로 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40대 이상의 남성들 중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합체로 대화하는 이가 많다.

(13) ㄱ. 잡아→잡아요→잡으세요

ㄴ. 잡아라→잡아→잡게¹⁴⁾→잡으오¹⁵⁾→잡아요→잡으세요→잡으십시오

이상의 (13ㄱ)은 비격식체의 예이다. (13ㄱ)의 ‘잡아’는 낮춤을, ‘잡아요’와 ‘잡으세요’는 ‘높임’을 나타내는 화계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하세요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13ㄴ)은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합체의 보기로 든 것이다. (13ㄴ)에서 ‘잡아라, 잡게, 잡으오, 잡으십시오’는 격식체의 보기인데, ‘잡아’와 ‘잡아요’, ‘잡으세요’는 비격식체의 예이다. ‘잡으시게, 잡으게나, 잡으시게나’ 등도 ‘하계체’로 처리한다. 노인들 중에는 아랫사람

14) ‘잡게’는 ‘하계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계이다.

15) ‘잡으오’는 ‘하오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50대 이상의 일부 남성이 사용하는 화계이다.

이 자신에게 비격식체로 대우를 하면 불쾌하게 인식하는 이가 있다.

3. 한국어 교육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특질이기 때문에 언어는 사회 구조를 전수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은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국어를 교육하는 목표 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려면 한국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와 관련지어 한국어를 교육하여야 한다.

(14) ㄱ. 진지를 많이 잡주세요.

ㄴ. 밥을 많이 먹어.

이상의 (14ㄱ)과 (14ㄴ)은 모두 한국어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그런데 (14ㄱ)은 할아버지가 대학생인 손자에게 한 말이고, (14ㄴ)은 대학에 다니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한 말일 경우 한국인은 대부분 수용하지 못한다. (14ㄱ)의 청자인 손자는 할아버지가 치매(癡呆)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하거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14ㄴ)의 청자인 할아버지는 노발대발(怒發大發)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맞추어 말을 하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0여 년이 지나 동창회에서 만난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은 하류 계층의 동창생이 다음의 (15ㄱ)과 같이 말할 경우 높은 지위에 있는 상류 계층의 청자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15ㄴ)과 같이 말하면 상대가 당황해하거나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15ㄴ)과 같이 말하여야 상대방이 우정을 느끼고 반가워할 것이다.

(15) ㄱ. 야 찌빵, 네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ㄴ. 야 돌쇠, 너도 입마 변한 게 없어.

ㄷ. 여보게, 어른이 되어 가지구 그렇게 상스럽게 말해야 되겠어?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느 4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게 다음의 (16ㄱ)과 같이 말하면 동석한 제삼자들이 어색하게 인식할 것이지만 (16ㄴ)과 같이 말하면 자연스러운 말로 수용할 것이다. (16ㄱ)은 혼인한 20대와 30대 주부가 친밀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연애했 적에 사용하는 호칭어 '오빠'를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16) ㄱ. 오빠, 자기 많이 먹어.

ㄴ. 여보, 많이 드세요.

한국어 교사는 이상과 같은 한국사회언어학의 지식을 갖추고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도 한국의 사회언어학을 고려하여 편찬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 처할 적에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면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 예문은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예문을 가지고 대화 실습을 하기 전에 교사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제, 대화의 목적,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그런 다음에 학습자들이 배역을 바꾸어 가면서 실습을 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교실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 언어생활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참고문헌

- 강현석 외 6인 譯(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Bonvillain, N(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Prentice Hall.
- 노형남(2000).한국어 채팅 표현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 민현식(1997). 한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 민현식(2003). 성별 언어 특성과 성 차별 표현의 양상. 언어와 사회. 역락출판사.
-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1.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주행(1999/2000). 방송 화법. 역락출판사.
- 이주행(2000). 옥외 광고물에 쓰인 언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주행 외 5인(2002). 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출판사.
- 이주행 외 5인(2003). 언어와 사회. 역락출판사.
- 이주행 외 6인(2003). 교사 화법의 이론과 실제. 역락출판사.
- 이주행(2004), 방송 언어 문화에 대한 고찰,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 이주행 · 김상준(2004), 아름다운 한국어, 지구문화사.
- 이주행 외(2004), 화법 교육의 이해, 박이정.
- 이주행(2005), 한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 보고서.
- 이주행(2006), 한국어 문법, 월인출판사.
- 이주행 · 이석주(2007). 한국어학 개론(신정판). 보고서.
- 이주행(2007), 한국어 사회 방언과 지역 방언의 이해(개정판), 한국문화사.
- 이주행 외 역(2008),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수정판), 한국문화사. G.Burton & R. Dimpleby(1995), *Between Ourselves*.
- 이주행 · 이규항 · 김상준(2008). 표준 한국어 발음 사전(수정판). 지구문화사.
- 이진성(1999). 약자, 약어 및 통신어(chatting language)에 대한 고찰 : 신세대 언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2. 한국사회언어학회.
- Chamber, J. K. and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sold, R.(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Blackwell.

Spolsky, B.(1998).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Wardhaugh, R.(1998).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Blackwell.

William, G.(1992). *Sociolinguistics : A Sociological Critique*. Routledge.

조사 ‘의’의 의미와 문법

고석주 (연세대학교)

별 지 첨 부

특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백낙천 (배재대학교)

1. 머리말

국어의 접속어미 중에는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한 단일형 접속어미 ‘-어’, ‘-지’, ‘-고’ 등도 있으나 대부분의 접속어미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재구조화된 통합형 접속어미들이다. 통합형 접속어미에는 종결어미, 명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선어말어미, 조사, 의존명사, 보조동사 등이 구성요소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설명하면 개별 접속어미들의 특징이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백낙천(2003가)에서는 접속어미 목록 선정에서 기존의 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국어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있어 명시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국어 접속어미를 기본형과 이형태 문제, 동음어와 다의어 문제, 단일형과 통합형 문제를 목록 선정의 기준으로 하되, 국어가 마지막 구성요소가 핵인 언어라는 점에 주목하여 마지막 구성요소로 어미와 조사가 통합된 접속어미로 나누어 국어 접속어미의 전반을 다루었다. 그러나 재구조화되지 않은 통사론적 구성이나 어미구조체 등에 해당하는 몇 가지 접속어미는 논외로 하였다. 그런데 이 중 ‘-도록’, ‘-을수록’, ‘-으랴’ 등은 마지막 구성요소가 조사나 어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가 일차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속어미와 관련하여 서태룡(1998)은 접속어미의 목록을 마지막 구성요소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의존명사 및 기타 다른 구성요소’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항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은바’, ‘-은즉’, ‘-을망정’, ‘-을지언정’, ‘-되’, ‘-듯’, ‘-도록’, ‘-을수록’, ‘-으랴’, ‘-자’, ‘-자마자’를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은바’, ‘-은즉’, ‘-을망정’, ‘-을지언정’, ‘-되’, ‘-듯’은 의존명사 또는 명사적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을망정’, ‘-을지언정’의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는 15세기에 나타나는 ‘-을만당’, ‘-을선당’, ‘-을썸당’, ‘-을디언당’ 등과 함께 이들의 통시적 과정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와 ‘-자마자’도 접속어미의 일반적 논의의 수준에서는 형태론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백낙천(2003나)에서는 ‘-았자’까지를 포함하여 이들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 한편, ‘-도록’, ‘-을수록’, ‘-으랴’ 등은 마지막 구성요소가 조사나 어미, 의존명사가 아닌 ‘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함께 논의하여 이들의 형태론적 동질성과 차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도록’, ‘-을수록’, ‘-으랴’의 형태론적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형태론적 구성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서 첨사의²⁾ 존재에 관련하여 이기문(1998:175, 184)에서는 강세의 ‘ㄱ’, ‘ㅇ’, 반복

1) 후술하겠지만 ‘-랴’은 분포 양상을 고려할 때, ‘-랴’과 ‘-을랴’으로 각각 별개의 표제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둘을 총칭하여 편의상 ‘-랴’으로 표기한다.

2) 첨사라는 용어는 언어의 역사성을 고려한 용어로 흔히 후치사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치사는 인구의 전치사(preposition)에 대비되는 것으로 국어에서는 대체로 실사의 허사화라는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들이 이에

의 ‘ㄱ’을 언급하면서 ‘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격조사 ‘-로’, 부동사 어미 ‘-아’나 , -고’ 등에 자주 연결되었다고 하여 그 분포까지도 제시하였다.(죽곡 주그며 나곡 나(死死生生, <능언 4:30>, 일록 後에 <월석 2:13>, 어딘 버든 네록 서르 사괴노라 <두언 20:44>, 공부룰 호약 므스물 뼈 <몽산 4>) 물론 이기문(1998)에서는 본고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속어미와 관련하여 ‘-ㄷ록’, ‘-을수록’, ‘-락’에 대해서는 이들을 첨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본고는 ‘ㄱ’이 조사 ‘-로’에 결합할 수 있다는 분포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록’, ‘-을수록’, ‘-락’ 등은 형태론적 범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록’과 ‘-을수록’은 조사 ‘-로’가 재구조화된 접속어미이며, 이들은 ‘-락’과 함께 형태론적으로 마지막 구성요소로 첨사 ‘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도 공유한다. 특히, ‘-도록’과 ‘-을수록’은 형태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으로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도 최현배(1971)에서 ‘-도록’은 ‘미침꼴(도급형)’, ‘-을수록’은 더보탬꼴(익심형)으로 분류된 이후로 ‘-도록’과 ‘-을수록’을 각각 이상태(1988)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의미로 최재희(1991)에서는 결과와 비례로 김종록(1993)에서는 결과와 조건 등 서로 다른 의미 범주로 분류되었다. 오히려 《이조어 사전》에 ‘-도록’의 소급형인 ‘-ㄷ록’을 현대국어의 ‘-을수록’과 의미적으로 관련지어 풀이하고 있어 ‘-도록’과 ‘-을수록’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접속어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려한 리의도(1991)에서는 접속법의 하위 범주로 ‘비례법’을 설정하여 중세국어 ‘-디웃’, ‘-ㄷ록’, ‘-(으)르스록’, ‘-디록’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살펴면서 이 중 ‘-ㄷ록’과 ‘-(으)르스록’을 현대국어 ‘-도록’과 ‘-을수록’의 직접적 소급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석주연(2006)에서는 ‘-도록’이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을수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공유하면서 ‘-도록’ 자체의 기능 부담량이 커지고, 뿐만 아니라 ‘-을수록’의 사용 빈도가 커지면서 ‘-도록’의 의미 기능이 축소된 것임을 통시적 변화 양상을 통해 살피고 있다. 결국 석주연(2006)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현대국어에서 ‘-도록’과 ‘-을수록’이 별개의 접속어미임을 전제로 하되, 그러한 차이가 일어난 이유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겠으나 이들 구성요소의 기본의미에 근거한 논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이들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특징에 주목한다면 ‘-도록’과 ‘-을수록’의 관련성은 공유하고 있는 ‘-록’에 의한 것이고, 차이점은 ‘-록’에 선행하는 구성요소가 갖는 의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석적 입장에서 보자면, ‘-도록’은 ‘-도’와 ‘-록’이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접속어미로 간주할 수 있다. ‘-도록’이 동사 어간에만 결합한다는 통합상의 특징으로 볼 때, ‘-도’가 중세국어 의존명사 ‘ㄷ’에 소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국어에서 명사가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한다는 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이기문(1998:157)에서 동사 어간과 명사의 합성의 예로 ‘뺏돌’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한 예에만 그친다는 것은 여전히 국어에서 동사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동사 어간의 일부가 화석화된 가능성이 있으나 형태론적 구조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태룡(1997:683)에서는 ‘-도록’에 대한 구결로 ‘-ㄴㄷ로’(隱等以, ㄴ ㄷ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형사형어미에 후행하는 ‘ㄷ’를 명사적 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ㄴㄷ로’가 ‘그런 이유로’ 정도로 이해되는 한 ‘-도록’의 선대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15세기에 ‘-ㄴㄷ로’는 ‘이런ㄷ로’, ‘그런ㄷ로’ 등으로 나타날 뿐이다.³⁾ 그런데 ‘-도’의 존재에 비하면

속한다. 반면에 첨사는 1음소 내지는 1음절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후치사라는 용어 대신에 첨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3) 한편, 백낙천(2003가)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국어 접속어미에서 의존명사 ‘ㄷ’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테’, ‘-은

‘-룩’은 형태론적 구성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룩’은 부사격 조사 ‘-로’와 강세 첩사 ‘ㄱ’으로 분석되어 끝이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의미를 보여 주는데, 이는 최현배(1971)에서 ‘-도룩’을 ‘미침꼴(도급형)’으로 파악한 것에 대한 형태론적 근거가 된다.⁴⁾ 그리고 ‘-도룩’이 접속어미의 기능을 보이는 것은 부사격 조사 ‘-로’에 기인한다.

한편, ‘-을수록’은 ‘*-은수록’, ‘*-는수록’이 불가능하여 ‘-을’의 분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을수록’ 다음에 조사 ‘-에’가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록’을 명사적 요소로 본다면 ‘-을’은 구조적으로 관형사형어미일 가능성만 남는다. 특히, 의존명사 ‘스’가 관형사형어미 ‘-을’에만 통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수록’은 하나의 단위는 아닐 것이다. 서태룡(1987:227)에서는 형태론적 구조의 문제로 ‘수록’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가 서태룡(1997)에서 의존명사 ‘스’와 조사 ‘-로’와 ‘ㄱ’으로의 분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을수록’의 의미가 일정한 방향이나 목표에 점점 더해감을 나타내는 의미임을 감안하면 ‘-로’의 분석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사 ‘-로’는 수단, 도구, 지향, 이유나 원인 등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로’의 의미 기능을 통합하여 [+선택적]이라는 기본 의미를 부여한 논의도 있고(임흥빈, 1974), ‘수단’으로 보거나(이광호, 1985), 이동의 지향점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 논의도(정주리, 1999) 있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로’는 선행 명사구를 선택하고 서술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을수록’이 접속어미의 기능을 보이는 것은 조사 ‘-로’에 기인하므로 ‘수록’은 그 자체가 명사적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의존명사와 조사의 구성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락’은 ‘-도룩’, ‘-을수록’처럼 구성요소로 조사 ‘-로’가 통합된 접속어미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도룩’과 ‘-을수록’에서 확인되는 첩사 ‘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첩사 ‘ㄱ’의 존재와 관련해서 허웅(1975:607)에서는 ‘-락’이 ‘-라’로도 쓰였는데, ‘-락’은 ‘-라’보다 더 흔히 쓰였으며 강세형인 듯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서태룡(1998)에서는 ‘-락’에서 첩사 ‘ㄱ’의 분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입장에서 살핀 논의를 제외한다면 ‘-락’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용어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다만 몇몇의 논의에서 의미 기능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최현배(1937/1971)은 이음법의 하나인 ‘되풀이형(반복형)’으로, 허웅(1975)에서는 ‘전환법’으로, 권재일(1985)에서는 중첩 구성의 내포어미로 분류, 기술되었을 뿐이다. 김진수(1994)에서는 ‘-락’이 보여주는 의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지만 형태론적인 특징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⁵⁾ 오히려 ‘-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서태룡(1987)에서 동사구 구성의 통합형 접속어미를 다루는 논의에서 ‘-락’을 반복 구성 ‘말-’의 통합형에서 다른 활용어미와 비교, 설명하면서 이루어졌다.⁶⁾ 즉, 서태룡

들’ 등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통합되어 재구조화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때의 ‘-도’가 명사적 요소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힘들 듯하다.

4) 서태룡(1993:249)에서는 어미를 이루는 음소와 의미의 관계를 단일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 음소를 공유하는 어미들이 의미에서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면서 그 중 음소 /ㄱ/를 ‘끝이나 목표점’에 완전히 도달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5) 중세국어에서 ‘-락’은 단독으로도 쓰였는데, (가,나)에서처럼 ‘復’의 언해인 ‘쑈’, ‘도로’가 대립하는 어휘의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고, (다,라)에서처럼 중간에 게재하는 어휘 없이 대립한 어휘의 반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누비에 ㄱ숯 구루물 거더 가락 쑈 오락 흐느니 <남명 상:3>

(나)침소리를 드르락 쑈 굿느니 <두언 7:23>

(다)흐룻 丙에 八萬四千 디위를 주그락 살락 흐느니라 <월석 1:29>

(라)퍼락 쥐락 호몰 네 보느니 <능언 1:108>

6) 이들을 이른바 반복 구성 또는 중첩 구성의 어미라고 하는 이유는 동일한 어미가 {말-}을 사이에 두고 반복 내지는

(1987:213-216)에서는 반복 구성 {말-}의 통합형 중에도 통합 방식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며, 이것을 ‘안+선행 동사 어간’, 대립하는 어휘의 대체 가능성 여부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반복 구성	‘안+선행 동사 어간’의 대체 가능성	대립하는 어휘의 대체 가능성	통합 방식
오락 말락	*오락 안오락	오락가락	재구조화된 내포어미 재구조화된 복합어
가든 말든	가든 안가든	가든 말든	재구조화되지 않은 통사적 구성
가자말자	*가자 안가자	*가자 오자	재구조화된 통합형 접속어미

그런데 ‘-락’은 ‘하다’ 내포문의 반복 구성으로만 쓰일 뿐 접속어미로 쓰이지는 않지만 재구조화된 활용어미라는 점과, 특히 지금까지 형태에 근거한 의미론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락’은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내포어미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 복합어를 형성하는 부사화 접미사로(채 완, 1987:63) 보는 것이다. 내포어미의 ‘-락’은 선행 요소가 항상 동작 동사의 관형사형으로만 나타나며, 예정의 의미를 나타낸다.⁷⁾ 반면, 복합어 형성 접미사로 쓰이는 ‘-락’은 서로 대립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 어간을 연결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반복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재구조화된 내포어미 ‘-락’과 재구조화된 복합어 ‘-락’은 서로 다른 형태론적 구성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전자는 표제어가 ‘-을락’이고 후자는 ‘-락’이 표제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구조화된 내포어미 ‘-락’이 선행 요소가 항상 동작 동사의 관형사형으로만 나타난다는 기술은 ‘-을락’을 표제어로 삼는 한 동사의 어간에만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간주할 때 재구조화된 내포어미인 ‘-을락’의 예정의 의미가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3. 의미 분석

기존의 연구에서 ‘-도록’은 ‘-게’와 비교되어 논의되었는데, 윤평현(2005)에서는 ‘-도록’을 결과 관계 접속어미로 분류하면서 이의 의미 기능을 정도, 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외, 서정수(1988)에서는 ‘-도록’이 ‘하다’ 또는 ‘만들다’와 어울릴 때 사동의 의미를 지니며, 이럴 경우 ‘-게’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접속어미 ‘-도록’은 선행 요소인 동사 어간의 의미 속성에 상당 부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를 구성요소가 지니는 기본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접속어미 논의에서 ‘-도록’의 의미를 미침꼴(도급형)로 파악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것이며, 결과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후행절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선행 동사 어간을 부정하는 {말-}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다음이 있다.

하다가 말다가 하든지 마는지 하니 마니 하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하고 말고 하나 마나 할 듯 말 듯 하자 말자 할락 말락

7) 김진수(1994)에서 ‘-락’의 의미를 ‘못미침’이라고 한 바 있는데, ‘말-’이 갖는 부정의 의미에 집착한 의미 기술인 것 같다.

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선행절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행절 사건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도록’이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후행절이 선행절보다 앞선 사건임을 요구하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가. 철수는 윤주가 방학 숙제를 할 수 있{-었-, *-겠-, *-거-, *-느-, *-더-}도록 도와주었다.

나. 엄마는 아이가 방안에서 뛰어 다니도록{*{-었-, *-겠-, *-거-, *-느-, *-더-} 내버려두었다.

또한, ‘-도록’은 보조사의 결합에 있어 큰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행위의 미침을 갖는 보조사 ‘-까지’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은 ‘-도록’의 의미가 도달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2) 가. 제가 입학 시험에 합격하도록{-만, ?-도, ?-야, -은} 지도해 주십시오.

나. 윤주는 밤이 늦도록까지 공부를 하였다.

다. 철수는 날이 새도록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도록까지’의 예는 마치 중세국어에서 ‘-도록’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3가-다)는 각각 ‘죽도록까지’, ‘저물도록까지’, ‘맞도록까지’로 보아도 무방하다.⁸⁾ ‘-도록’에 ‘-까지’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도록’이 결과 또는 도급의 용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의미론적 근거를 준다.

(3) 가. 나랏 百姓들히 죽드로개 조차 들녀 供養하며 <석상 19:22>

나. 새도록 저므드로개 꺾비 業을 짓느니 <영가 상41>

다. 나는 비브르며 더우며 편안하야 그 헉 못도로개 시름이 업느니라 <경민 중12>

한편, 기존 연구에서 ‘-도록’을 ‘결과’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는데, 결과라는 것은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칫 인과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어미 ‘-으니까’, ‘-어서’와 의미 범주상의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으니까’, ‘-어서’는 선행절이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후행절이 필연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도록’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필연적인 인과성은 없고 선행절의 내용이 도달하고 후행절에 그에 대한 조건이 연결된다.

8) 좀 다른 경우지만, ‘-도록’이 접사 또는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언간 자료에 보이는 ‘그더도록’, ‘이더도록’과 ‘그토록’, ‘이토록’은 형태음운론적으로 매우 투명한 관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더도록’, ‘이더도록’이 언간에서만 확인된다는 자료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더토록’, ‘이더토록’이 문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토록’, ‘이토록’과 연관짓는 것은 적어도 ‘그더도록’과 ‘이더도록’이 ‘그러하도록’과 ‘이러하도록’의 축약형이라는 것이 형태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들 관계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더, 그더’ 내지는 ‘이리, 그리’에 ‘도록’이 직접 결합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사에 직접 결합한 ‘도록’이나 ‘이’, ‘그’에 결합하는 ‘도록’은 보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찰방이 그더도록 귀코 빈손 일가 <청주 4>

(나) 그더도록 묻 닛즈와 햅삽시다가 가오디 햅 좇 말습을 묻 듯좁고 <현풍 128>

(다) 제 즈시근 므습 직조햅곰 줌 귀훤 이리 잇관디 이더도록 토심되거뇨 <청주 66>

(라) 길히 하 머오매 이더도록 기별 묻 들즈와 민망호오니 <현풍 129>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 가. 철수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하도록 무척 서둘렀다.

나. 윤주는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였다.

다. 윤아는 영수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4가-다)에서 선행절은 후행절보다 후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결과의 의미를 갖지만 (5가-다)에서의 ‘-으니까’, ‘-어서’와 비교하면 결과에 대한 직접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가. 철수는 무척 서두르{~~-으니까~~, ~~-어서~~} 강의실에 일찍 도착하였다.

나. 윤주는 앞으로 조심하{~~-으니까~~, ~~-어서~~} 그런 실수가 없었다.

다. 윤아는 영수와 이야기를 나누{~~-으니까~~, ~~-어서~~} 밤이 됐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을수록’은 더보탬꼴, 강화, 비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을수록’은 선행절 내용의 증감이 조건이 되어 후행절에 그 내용이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호응할 수 있는 접속어미로는 ‘-으면’만이 가능하며, ‘-거든’, ‘-어야’와는 결합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을수록’에 이끝린 선행 동사의 의미 속성이 ‘-을’에 의해 예정, 가능한 상태로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속의 의미가 ‘-으면’에는 있지만 가상적 조건이나 필수적 조건의 ‘-거든’, ‘-어야’에는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6) 가. 국어학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욱 흥미가 난다.

나. 매는 먼저 맞으면 맞을수록 덜 아프다.

다. *바다는 겨울에 가거든 갈수록 더욱 좋다.

라. *공부를 잘 해야 할수록 칭찬을 듣는다.

‘-을수록’은 관형사형 어미 ‘-을’이 재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있어 제약이 있어 ‘-었-’과의 결합만이 가능할 뿐 ‘-겠-’, ‘-거-’, ‘-느-’, ‘-더-’와는 의미론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

(7) 가. 너를 사랑할수록 마음은 더욱 괴롭구나.

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을수록 시험 결과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

다. 윤주가 동생을 때리{*~~-겠~~, *~~-거-~~, *~~-느-~~, *~~-더-~~}을수록 동생은 더 크게 울었다.

‘-을수록’은 보조사의 결합에도 제약이 따른다.

(8) 가. 사람은 만날수록{*~~-만~~, *~~-도~~, *~~-야~~, *~~-은~~} 정이 들게 마련이다.

나. 밤이 깊을수록{*~~-만~~, *~~-도~~, *~~-야~~, *~~-은~~} 별은 더욱 반짝인다.

한편, 재구조화된 복합어의 표제어는 ‘-락’으로서 동작이나 상태가 반복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본고의 설명은 국어 사전의 기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에서는 ‘-락’과 ‘-올락’을 달리 표제어로 삼고 있는데, ‘-락’은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올락’에 대해서는 거의 할 듯한 모양을 나타내며 ‘-올락 말락’의 형식으로만 쓰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도 ‘-락’과 ‘-올락’에 대해 상이하게 기술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락’에서는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뒤치락’, ‘쥐락펴락’, ‘푸르락누르락’, ‘들락날락’ 등을 예로 제시하고, ‘-올락’에서는 ‘붙을락 말락’, ‘넘을락 말락’을 예로 제시하였다. 즉, ‘-락’은 서로 상반되는 어휘의 대립의 반복 구성이고, ‘-올락’은 ‘말다’ 구성을 이룬다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서태룡(1998)에서는 ‘-락’과 ‘-올락’을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의미를 앞 표현의 한계에 도달과 관련되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것은 결국 ‘-올락’의 의미 기능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올락’이 재구조화된 내포어미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9) 가. 하루종일 비가 올락 말락 한다.

나.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락 말락 한다.

(9가,나)에서 ‘-올락’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올’의 예정, 가능의 의미에 기인한다.

한편, (10가,나)에서 재구조화된 복합어인 ‘-락’은 대립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가 연속하면서 동작이나 상태가 반복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10) 가. 철수는 밤새 엎치락뒤치락(*뒤치락엎치락) 했다.

나. 영화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 했다.

다. 며칠 밤을 새웠더니 정신이 오락가락(*가락오락) 한다.

(10가-다)에서 ‘엎치락뒤치락’, ‘붉으락푸르락’, ‘오락가락’은 구성 방식에서는 복합동사의 통사론적 구성을 흡사하여 두 동사의 순서가 바뀌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상의 검증을 통해 볼 때, ‘-락’은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내포어미로서 선행 요소가 항상 동작 동사의 관형사형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표제어를 ‘-올락’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예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분석되는 ‘-올’의 의미에 기인한다. 다른 하나는 복합어에 쓰이는 ‘-락’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의 어간을 연결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반복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4. 맺음말

본고는 특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일련의 접속어미들에 대한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도록’, ‘-을수록’, ‘-락’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이들의 형태론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첨사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록’과 ‘-을수록’이 보여주는 의미

의 유사성을 구성요소의 의미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락’이 보여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재구조화된 내포어미 ‘-락’과 재구조화된 복합어 ‘-을락’의 존재를 밝혀 보았다. 그러나 이들 접속어미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검증 과정이 부족하였고 이들 접속어미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본고는 접속어미에 대한 논의가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 연구가 이루어질 때 보다 명시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남길(1978), Tolok Sentential Complements in Korean, 《한국언어학논문집》, Hornbeam Press.
- 김종록(1993), 《국어 접속문의 통시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수(1994), ‘-락-락’에 대하여(1), 《도수희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 리의도(1991),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백낙천(2003가), 《국어의 통합형 접속어미》, 도서출판 월인.
- 백낙천(2003나), ‘-자’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교육》 11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서정수(1988), 어미 ‘게’와 ‘도록’의 대비 연구, 《말》 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서태룡(1987),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태룡(1993), 국어 어미의 음소와 의미, 《진단학보》 76호, 진단학회.
- 서태룡(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석주연(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광호(1985), 격조사 {로}의 기능 통합을 위한 시론, 《선오당 김형기 선생 팔지 기념논총》.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상태(1988), 《국어 접속어미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흥빈(1974), {로}와 선택의 양태화, 《어학연구》 10-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정주리(1999), 조사의 의미기술을 위한 시론, 《국어의 격과 조사》, 도서출판 월인.
- 채 완(1987), 《국어 어순의 연구》, 국어학총서 10, 탑출판사.
- 최재희(1991), 《국어 접속문 구성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옹(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선정에 관하여

정성미 (강원대학교)

1. 서론

최근 10여년 사이에, 농촌 총각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총각들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였다. 이들 한국의 남자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여성 결혼이민자 혹은 결혼 이주민이라고 부른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문화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의사소통인데, 이 문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주로 유학 온 외국인을 위해 편찬한 교재이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학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는 여성 가족부에서 편찬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⁹⁾ 첫걸음, 중급이 유일하다. 특히 초급 교재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빨리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책이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어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은 그 교육 대상자, 그들이 놓여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한 어휘선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 어휘선정에 앞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에 반영된 어휘를 분석하여 이 교재의 어휘 선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분석한 어휘 자료와 기존 연구로 얻어진 교육용 어휘¹⁰⁾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 결혼이주민을 위한 초급 교육 단계의 어휘 선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한국어 교육용 어휘의 개념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전에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연관성이 있는 기초어휘와 기본어휘의 개

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가족부.

10) 기존 자료 중에서 국립국어원에서 2002년 조사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와 김광혜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중 1등급어와 비교하였다. 김광혜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1등급은 언중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어휘 의미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전문적인 의미 내용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학습 수준이나 지식 수준의 고저와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언중에게 공통적으로 습득된다.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나 전문적인 훈련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김종택(1992)은 기초어휘를 기본 어휘 중 한정된 집합이라고 하였고, 오히려 학습을 위해 선정된 어휘가 기초어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택(1992)의 기초어휘는 기본어휘와 비슷하나, 사용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어휘보다도 한정된 어휘로 일상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정된 어휘이다. 김광해(1993)의 기초어휘는 기본어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의 집합이다. 임지룡(1991:88-92)의 기초어휘는 언어생활에서 빈도수가 높고 분포가 넓으며 파생이나 합성 등 이차조어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의 필수어로 규정된다. 기초어휘는 기본어휘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 하였다.

김종택(1992), 김광해(1993)의 기초어휘의 공통점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라는 점과 기본어휘와 비교하여서 제한된 어휘집합이라는 것이다. 임지룡(1991)의 기초어휘는 기본어휘보다 제한적이면서도 체계적이다.

林四郎(1971)의 기초어휘는 의미의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반인공적인 어휘이고, 眞田信治(1977:129)에서는 기초어휘란 특정 언어 가운데 그 중추적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어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다. 김종학(1995:29)은 기초어휘의 개념은 통시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기초어휘 선정의 기준 시기를 15세기로 잡고, 고대 한국어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순수한 고유어이면서 구조면에서는 조어의 핵이 되는 단일어이며 의미면에서는 사회변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민족의 사고나 생활에 필수적 어휘소들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조현용의 기초어휘는 한 언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로 오랜 기간 동안에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인간 생활 속의 어휘이다.

林四郎(1971), 眞田信治(1977:129)¹¹⁾, 김종학(1995:29)의 기초어휘의 공통점은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휘라기보다는 한 언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이다.

김종학(1995)의 기초어휘는 언어연대학을 위한 어휘로, 단일어, 근간, 사회변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 민족의 사고나 생활에 필수적 어휘소를 일컫고, 林四郎(1971)의 기초어휘는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반인공적인 어휘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어휘 선정에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휘이므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필수적으로 익혀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5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 내려온 고유어와 단일어만으로, 논리적 분석에 의한 반인공적 어휘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어휘는 기초어휘와 대비해서 덜 한정적인 어휘로서의 기본어휘와 특정목적에 위한 어휘로서의 기본어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초어휘와 대비해서 임지룡(1991:88-92)의 기본어휘는 어휘 빈도수의 통계치에 따른 어휘이며, 기초어휘보다는 체계적이지 못한 어휘라고 하였다. 김종택(1992:126-127)의 기본어휘는 한 언어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어휘로, 기초어휘와 비슷하나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빈도수를 고려한 어휘이다. 임지룡(1991), 김종택(1992)의 기본어휘는 기초어휘와 대비해서 한정되지 않고 빈도수를 고려한 어휘이다.

기초어휘와 대비해서 특정 목적을 가진 어휘를 기본어휘라 하기도 한다. 林四郎(1971)의 기본어휘는 특정 목적을 위한 ○○ 기본어휘이고, 眞田信治(1977:129)의 기본어휘도 어떤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선정되며 공리성을 지닌 어휘이다¹²⁾.

11) 김종학(1995:25)에서 재인용.

12) 임지룡(1991:2)에서 재인용.

조현용의 기본어휘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사, 정리된 어휘 목록이고 특별히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본어휘를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라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선정된 어휘로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어휘를 가리킨다.

이충우(1997:87-88)의 기본어휘는 기초어휘와 대비된 개념도 아니고 특정목적을 가진 어휘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가운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어휘로 이 중에서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휘를 기본어휘라고 한다. 김종택(1992), 김광해(1993)의 기초어휘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어휘이면서 임지룡(1991), 김종택(1992)의 기본어휘와 마찬가지로 한정되지 않고 빈도수를 고려한 어휘이다. 이충우(1997:87-88)에서는 학습용 기본어휘로 특정목적의 기본어휘를 설정했지만 기본어휘보다 폭이 넓고 학습에 필요한 어휘로 외국인에게는 기본어휘의 대부분이 학습용 기본어휘가 된다고 하였다. 이충우의 기본어휘에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어휘를 포함한 어휘이다.

특수목적의 어휘로 교육용 어휘는 교육 또는 학습에 필요한 어휘로, 조현용은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를 설정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선정된 어휘로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어휘이다. 이충우의 교육용 어휘는 자국인을 위한 폭넓은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이 목표인 모어교육에 필요한 어휘이다.

조현용과 김광해(1995)에서는 학습에 의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어휘를 일차어휘라고 하였다.

조현용의 일차어휘와 김광해(1995:327)의 일차어휘는 교육 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다. 조현용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고 김광해(1995)의 일차어휘는 모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다. 일차어휘는 기초어휘, 기본어휘와 비교해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나 전문적인 훈련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어휘이다.

한국인의 경우는 태어나서 학습이 이루어지기까지 모국어를 습득하고 그 이후에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차어휘를 이차어휘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나,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에 와서 체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학습이 이루어지며, 자연적 습득과 학습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일차어휘부터 학습이 직, 간접적으로 전제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어휘를 한국어 교육용 1등급 어휘라고 하기로 한다. 한국어 교육용 1등급 어휘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습득 또는 학습해야 할 기본어휘이다.

2.2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에 나타난 어휘적 특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그 교육 대상자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 적합한 교재가 편찬되어야 하며, 어휘 선정에 있어서도 교육대상자들을 고려한 어휘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중급)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유일한 교재로 이 중 한국어교재(초급)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이므로 특별히 어휘문제에 신중해야 한다.

이 교재가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 다른 점은 기존의 한국어 교재가 주 대상자가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유학생인 고학력자이며,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주로 영어권, 일본, 중국 등인데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주 대상자는 여성이며, 결혼을 한 주부이며, 학력은 국적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존 한국어 교육 대상자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과 함께 살아갈 한국 사람들이며, 출신국가는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등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이러한 특수 상황의 교육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어휘 선정 기초 연구로 한국어교재(초급)의 어휘를 분석하여 그 교재에 나타난 어휘적 특성을 살펴보고 어휘선정 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의 구성은 대화, 새 단어, 문법,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에 일관성이 없으며,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그림과 함께 많이 제시한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대상 어휘는 새 단어에 제시된 단어와 주제 관련된 단어 그리고 대화, 문법, 읽기, 쓰기, 각각의 연습문제에서 완성된 문장을 구성한 단어들로 선정하였다. 어휘 분석은 아래의 어휘 분석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기준>

- 1) 형태소 분석보다는 어휘 단위로 분석하였다.
- 2) 체언은 조사와 분리하고,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분리한다. 단, 조사와 어미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3) 용언의 기본형에 ‘-다’를 첨가하였다.
- 4) 수관형사와 수사는 수사로 통일하였다.
- 5) 고유명사는 제외하였다.

2.2.1 어휘의 분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의 어휘수는 1012개(고유명사 제외)이고, 연어휘수는 7630개(고유명사, 수사 포함)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 1012개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품사별, 어종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1>의 품사별 분포에서는 명사가 가장 많았고, 동사, 형용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종별 분포에서는 한자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어, 영어외래어, 혼종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사별 분포에서는 명사만 한자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에는 고유어가 많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자어의 수를 고려하면 한자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필요함을 보여 준다¹³⁾.

13) 한자문화권인 나라의 사람인 경우는 초급서부터 한자를 제시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자문화권이 아닌 경우는 오히려 학습의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표1 품사별, 어종별 분포>

	고유어	한자어	영어	기타외래	혼종어	합계
명사	234	364	56	7	54	715
대명사	11					11
수사	24	14				38
동사	92	19	3		1	115
형용사	82	11				93
관형사	9	1				10
부사	21	3				24
감탄사	6					6
합계	479	412	59	7	55	1012

<표2>의 조어 유형별에서는 품사 전체로 보았을 때, ‘단일어>합성어>파생어>복합어’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명사에서는 ‘합성어>단일어>파생어>복합어’ 순으로 합성어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한국어 교육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합성어나 파생어의 근간이 되는 단일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어휘 교육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2 품사별, 조어별 분포>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	합계
명사	253	405	29	28	715
대명사	11				11
수사	38				38
동사	72	38	4	1	115
형용사	66	25	2		93
관형사	10				10
부사	23	1			24
감탄사	6				6
합계	479	469	35	29	1012

명사는 어종별, 조어별 분포에 있어서 다른 품사와는 다른 특징을 드러냈다. 어종별에 있어서 다른 품사와 달리 한자어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어별 분포에 있어서도 다른 품사와 달리 합성어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품사별 분포에 있어서 어휘량을 고려할 때 명사가 많은 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지만, 식생활 문화어를 보았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음식의 종류를 나열하고, 음식을 만드는 동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2.2.2 교육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의 품사별 어휘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명사 고빈도어에는 총칭 사물명사인 ‘것(거)’, 단위 명사인 ‘시, 살, 분, 원, 주’ 등, 의식주 관련 어휘 ‘밥, 집, 옷’, 사람 관련

쉬여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자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어휘 ‘남편, 아이, 친구, 어머니’, 장소 관련 어휘에 ‘집, 시장, 학교’ 등이 있다.

조성문(1997)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세대 서울대 한국어 교재의 명사 빈도수와 비교하여 보았다. ‘시(時), 거, 씨, 수’ 등은 두 교재에서도 모두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사람 관련 어휘가 주로 가족, 친구인데, 연세대 교재, 서울대 교재는 ‘선생님, 친구, 학생, 아주머니, 아저씨, 아가씨’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장소 관련 어휘가 ‘집, 시장, 학교’인데 연세대, 서울대 교재에서는 ‘도서관, 집’, 서울대 교재에서는 ‘책방’이다.

어휘의 빈도수를 통해서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상황을 인간관계,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가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표3 명사 빈도>

결혼이민 어휘	빈도수	빈도순	연세대	서울대
시	58	1	씨	씨
거(것)	57	2	바람	오늘
살(나이)	45	3	집	시
씨	38	4	사람	친구
수	31	5	오늘	들
남편	30	6	주인	어제
분	28	7	친구	저녁
사람	25	8	선생	거
얼마	25	8	들	선생님
밥	23	10	번	아가씨
분	21	11	학생	주말
아이	20	12	도서관	책
집	20	12	버스	날씨
시장	18	14	시	사람
친구	18	14	내일	아주머니
원	17	16	아이	가족
번	16	17	어머니	값
안녕	16	17	학교	내일
옷	16	17	그림	수
학교	16	17	꽃	식당
오늘	15	21	날씨	영화
한국어	14	22	맛	책방
날	13	23	배	학교
색	13	23	선생님	감기
어머님	13	23	수	개
주	13	23	아주머니	겨울
책	13	23	영화	구경
오후	12	28	일	냉장고
가방	11	29	책	도서관
역	11	29	가족	모두
음식	11	29	강	방
다음	10	32	거	버스
버스	10	32	겨울	사과
영화	10	32	곳	시계
일(날)	10	32	나무	아저씨
전화	10	32	냉면	아침

동사에 있어서는 세 교재의 1, 2위 고빈도 동사는 ‘가다’, ‘하다’ 순이다. 세 교재에 다 나오는 고빈도 동사는 ‘가다, 하다, 먹다, 보다, 사다, 주다, 오다, 계시다, 걸리다’이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에만 나오는 고빈도 동사는 ‘듣다, 마시다, 쓰다, 입다, 만나다, 만들다, 기다리다, 일어나다’이다. 연세대, 서울대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부하다’, ‘가르치다’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에는 20위순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4 동사 빈도>

결혼이민자	빈도	빈도순	연세대	서울대
가(다)	122	1	가다	가다
하(다)	114	2	하다	하다
먹(다)	87	3	오다	오다
보(다)	75	4	보다	주다
사(다)	29	5	주다	보다
주(다)	29	5	사다	사다
듣(다)	22	7	들어가다	타다
마시(다)	22	7	나오다	먹다
쓰(다)	22	7	공부하다	좋아하다
입(다)	20	10	타다	계시다
만나(다)	18	11	걸다	다니다
오(다)	18	11	구경하다	바꾸다
타(다)	18	11	먹다	읽다
좋아하(다)	14	14	앉다	내리다
만들(다)	13	15	올라가다	드리다
계시(다)	12	16	가르치다	떠나다
기다리(다)	12	16	걸다	걸다
읽(다)	11	18	걸리다	걸리다
걸리(다)	10	19	계시다	공부하다
일어나다	10	19	나가다	내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교재의 고빈도어를 비교하여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절충

조성문(1997)에서는 한국어 초급 교재의 기초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 7종의 어휘를 비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휘들을 추출하고 난 후, 적어도 3개의 교재에 출현된 어휘들과 기존 어휘연구의 어휘 자료와 다시 공통적으로 추출된 어휘를 기초어휘로 제시하였다. 방대한 양의 어휘들을 정리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초어휘를 제시한 점은 의의가 있지만 기초어휘가 수가 지나치게 적은 점은 문제점이라고 여겨지며,¹⁴⁾ 이는 빈도수만을 기준으로 한 점과 어휘자료의 타당도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 어휘와 기존의 어휘 자료 중에서 빈도수를 고려한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성과 주관성을 절충한 어휘자료와 비교하기로 한다.

14) 명사의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어휘 자료로 ‘개 첫/거 꽃 나무 날 년(年) 다음 동안 뒤 들 때 마리 명 밖 밥 번 사람 산 선생님 손 시 시간 아버지 앞 어머니 오늘 일 지금 집 책 학교(31개)’를 제시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2002)¹⁵⁾ 어휘 자료는 빈도순을 고려한 객관적 어휘자료이고 그 중에서 어휘 2000개(빈도순 1-2000위)와 김광해(2003)¹⁶⁾의 모국어 화자를 위한 국어교육용 등급어휘 중 일등급 어휘 1845개¹⁷⁾와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 총 어휘 자료 1012개 어휘와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먼저 세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휘 자료는 (1)과 같다.

(1) 가깝다 가다 가르치다 가방 가볍다 가슴 가을 가정 가족 가지다 강하다 갖다 같다 개(個) 거(것) 거기 건강 걸다 걸리다 걸어가다 검다 것 겨울 결혼 결혼식 경기 경찰 경찰서 계란찜 계시다 고등학교 고맙다 고모 고향 곳 공(球) 공부하다 과일 과학...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행동 행복 행복하다 허리 형 화장실 회사 후 희다 흰색(398개)

여성 결혼이주인 교재에만 나타난 어휘 자료는 (2)와 같다.

(2) 가스레인지 가정통신문 간식 갈비 갈비탕 갈색 갈아타다 갈치 강강수월래 개교

개최하다 거실 건넌방 검은색 경동시장 경북궁 경비(돈) 고등어 고무장갑 고추장 고춧가루 과일가게 광화문 교복 교육부 국그릇 국자 군만두 군청 귀걸이 굴 그네뛰기 근 급식 기념일 기차표 기침 기타(등등) 김치찌개 깨 깨소금...한약재 핸드폰 햄버거 햇살 행주 허리띠 현관 현금 호선 화장대 화전 환갑 회 후추 휴대폰 휴업 흐리다(383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일러두기에는 본문의 내용을 철저히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심 즉 살림을 꾸러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만 나타난 어휘를 의미별로 분류하면 음식관련 어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갈비 갈비탕 갈치 고등어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찌개 깨 깨소금 닭갈비 닭고기 된장 된장국 돈까스 딸기 떡국 떡볶이 녹차 멸치볶음 비빔밥 미역국 굴 바나나 북어국 군만두 샌드위치 사이다 삼겹살 삼계탕 나물 된장찌개 부침개 생선가게 생선구이 생선조림 순대 순두부찌개 식용유 식초 당근 설령탕 소주 어묵 국 청국장찌개 식혜양념 양파 후추 햄버거 오곡밥 오이 통닭 튀김 탕수육 회 피자 치킨 자장면 육개장 콩나물 콩나물국 짬뽕 찌개 한국요리 참기름 전(煎)

음식의 종류가 대부분인데 그것에 비해서 음식과 관련된 요리 관련동사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혼을 한 여성 이민자인 점을 고려해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음식관련 어휘를 많이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제 부엌에서 사용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동사는 나타나지 않은 점은 어휘 선정에 있어서 너무 단순한 선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음식의 종류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선정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정된 어휘는 (4)와 같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구, 의류, 가사일, 여성용품 등의 여성 관련어 등의 어휘들이다.

(4) 국그릇 국자 고무장갑 도마 도시락 냄비 밸브 가스레인지 밥그릇.../ 옷 러닝셔츠 넥타이 목걸이 목도

15) 국립국어연구원(2002) 현대국어 사용 빈도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16)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박이정.

17) 김광해(2003:34-36)에서는 어휘를 선정할 때 빈도수와 중요도를 고려했다. 중요도는 기존어휘자료에 나타난 분포와 자료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는 피봇방식을 의미한다. 단순히 분포만을 고려한 방식과 피봇 방식으로 처리된 결과 중에서 피봇 방식이 더 타당성이 높다는 증거는 어휘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피봇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가 한결 동질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했다.

리 귀걸이 브래지어 블라우스 반바지 반지 벨트 봄옷 스타킹 샌들.../ 다립질하다 뜨개질 손세탁 손세탁하
(다) 밥하다 쇼핑하다/ 날씬하다 린스 드라이하다 생리대 샤워 샴푸 미용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일러두기에서 ‘가정 내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모
델로 한’ 교재여서 이주 여성이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살림만 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세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주관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어휘 선정에 할 때 주제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상적인 아닌 현실
적인 어휘 선정에 위해서는 인터뷰나 직접탐방과 같은 형태의 조사를 통한 구어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세 자료를 비교해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에만 나타나는 어휘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
면 문화 관련어, 친척 지칭어가 많다는 것이다.

(5) 강강수월래 그네뛰기 달맞이 남대문 널뛰기 돌잔치 대보름 명절 부럼 성묘 송편 붓 수정과 경동시장
경복궁 민속촌.../ 시누이 시댁 시동생 시매부 시아버지 동서 시아주버니 시어머니 시청 시할머니 시할아버
지 도련님...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초급 수준에서부
터 너무 세분화된 문화어 제시를 문화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세분화된 문화어는 중, 고급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와 그를 반영
한 어휘 선정도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와 김광해(2003)의 어휘 자료가 공통어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
한 한국어교재와 국립국어연구원(2002)의 어휘 자료와 공통어휘보다 많다.

(6)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 김광해(2003)

가위 간장 감기 감사하다 감자 갑자기 건너다 계란 고구마 고추 고프다 공원 공중전화 공책 공항 과자
교실 구두 국 국어 그네 그늘 그런데 그림다 그저께 극장 금요일 기차 김 김밥 김치 끼다 냉면 냉장고 노
란색 노랑다 느리다 단풍 덩다 돼지 두부 똥똥하다 라면 마흔.... 주전자 지우개 짜다 차(마실) 차갑다 차다
(냉) 차다(시계) 친 청바지 청소 청소하다 주다 추석 축하하다 치마 칠 칫솔 카메라 칼 썰레 콩 토요일 통
파 파란색 파랑다 표 풀 필통 한국 한국말 한국어 한복 호박 화요일 휴지 흐르다(184개)

(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 국립국어연구원(2002)

가득 각종 개월 게임 관리 교육 교통 국제 다녀오다 다리 단체 대(의) 드라마 맞다 면(面) 무용 밑
박물관 밖 백화점 부부 상품 예산 예정 자녀 제사 중학교 지원 진행 차리다 참석하다 참여 투자 펼치다
프로그램 피부 형님 회의(38개)

결과적으로 (6)(7)의 어휘 자료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의 어휘자료는 객관적
인 빈도수를 고려한 어휘자료보다 절충적인 방법으로 어휘를 선별한 김광해(2003)의 어휘자료와 더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의 전체 어휘 수 1012개 중 582개로 약 58%가 공
통어휘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단독 어휘는 383개로 약 38%이고, 이 38%에는 음식관련어
와 문화 관련어, 여성 관련어 등의 어휘들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 국립국어연구원
(2002)의 공통어휘는 38개로 약 4%이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인 빈도수만을 고려해서 어휘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3. 결론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있어서 품사별, 어종별, 조어별 유형 분포는 품사에 있어서는 명사가 가장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종별에 있어서는 고유어>한자어>영어>혼종어>기타 외래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어별 유형에서는 단일어>합성어>파생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사의 경우는 어종별, 조어별 유형 분포가 전체 분포와 다르게 나타났다. 어종별 분포에서는 한자어>고유어의 순이 바뀌었으며, 조어별 유형에서는 합성어>단일어의 순이 바뀌었다. 품사별 분포에 있어서 어휘량을 고려할 때 명사가 많은 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품사의 분포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고빈도어를 비교해 보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교육 대상자인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너무 여성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부분도 있었다. 살림을 꾸러가기 위한 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살림 중에서도 지나치게 음식관련 어휘나 부엌 도구들에 해당하는 어휘로 편중되어 있거나, 음식관련 어휘라 하더라도 음식의 종류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성, 주부인 교육 대상자를 고려할 때, 피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어휘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나 직접탐방과 같은 형태의 조사를 통한 구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는 의미별로 볼 때, 음식관련어, 친척어, 문화관련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만 세밀하게 강조된 부분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문화어에 있어서도 등급이 필요하다. 초급 수준에서부터 너무 세분화된 문화어 제시는 문화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세분화된 문화어는 중, 고급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와 그를 반영한 어휘 선정이 필요하다.

어휘 자료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의 어휘자료는 객관적인 빈도수를 고려한 어휘자료보다 절충적인 방법으로 어휘를 선별한 김광해(2003)의 어휘 자료와 더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빈도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만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 곽지영외 9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_____ (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어휘. 박이정.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 왕한석(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의 제약상.
- 이충우(1997). 어휘 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교육 Vol.-No.95.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vol.23 No.1.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vol.23 No.1.
- 임철성((2002). 초급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4.
- 조성문(1997). 한국어 초급 교재의 기초 어휘 선정에 관하여. 한양어문 15집.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한송화(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말 vol.28.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말. vol.28.
- 林四郎(1971). 語彙調査と基本語彙. 秀英出版社.
- 眞田信治(1977). 基本語彙 · 基礎語彙 岩波講座日本語9 語彙と意味, 岩波書店.

신문 칼럼의 비판적 읽기 교육 방안 연구

김경주 (서울대학교)

별 지 첨 부

조사 ‘에’와 ‘에게’의 교체 양상 연구

김형정 (규슈대학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말뭉치 기반의 실증적 기술 방법론에 의거하여 선행 명사의 속성에 따른 조사 ‘에게’와 ‘에’의 결합 양상 및 교체 환경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연구에서 ‘에게’와 ‘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처소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처격 (locative)’의 ‘유정-무정’ 대응쌍으로 다루어져 왔다. 즉, 선행 명사 ‘NP’가 [+유정]의 자질을 띠게 될 때에는 조사 ‘에게’를 취하며, [-유정]의 자질을 띠는 경우에는 ‘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에게’와 ‘에’를 상보적인 분포(‘유정-무정’)를 가지는 동일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보는 견해 또한 많았다. ‘에게’에서 ‘에’와 다른 어떤 의미나 기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¹⁾

그러나, ‘에게’와 ‘에’가 이처럼 ‘유정-무정’이라는 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이형태’인가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아래의 (1)과 같이 동일한 선행 명사에 ‘에’와 ‘에게’ 모두 결합 가능한 것, 무정 명사인 데도 ‘에게’를 취할 수 있는 것, 유정 명사임에도 ‘에’와의 결합만 가능한 것 등 이 두 조사가 상보적 이형태라는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들이 나타나고 있다.

- (1) a. 한국이 {일본에게/일본에} 새로운 외교 정책을 제시했다.
- b. {모기에게/모기에} 물린 상처이다.
- c. ..나는 {젊은이에/*젊은이에게} 못지않게 인생과 학문을 배우려는 정열에 불타고 있었다.
- d. {대통령에게/*대통령에}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였다.
- e. {*대통령에게/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a)는 무정 명사인 ‘일본’에 조사 ‘에게’가 결합된 것으로, 국가명인 ‘일본’은 같은 조건에서 ‘에’와 ‘에게’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1b)의 동물 명사인 ‘모기’ 또한 ‘에’와 ‘에게’ 모두와 결합 가능하다. 한편, (1c)의 ‘젊은이’는 유정 명사이지만, ‘못지않다’라는 술어와의 결합 관계에서 ‘NP에’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1)(d-e)의 ‘대통령’은 술어에 따라서 결합 양상이 다르다. ‘건의하다’를 술어로 가질 때는 특정 개별 인물 명사로서 사용되어 조사 ‘에게’를 취하지만, ‘선출하다’와 함께 쓰여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에’와 결합한다.

이처럼 ‘에게’와 ‘에’는 불완전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음운이나 형태적 조건이 아닌 ‘무정-유정’이라는 의미적 조건에 따른 상보적 분포 관계를 설정한 것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무정이나 유정이나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이분되는 범주가 아닌 것이다.

1) 다수의 연구들이 ‘에게’와 ‘에’를 이형태로 보고 있는 반면, 유현경(2003:156-161)에서는 조사 ‘에게’와 ‘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조사 ‘에게’와 조사 ‘에’를 별개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

또한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 명사에 ‘에게’가 결합되는지 ‘에’가 결합되는지 하는 문제는 ‘유정-무정’이라는 명사의 속성뿐만 아니라 술어의 속성이나 술어와 논항의 결합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적 특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에게’와 결합하는 유정 명사에는 어떠한 부류가 있는지, 무정 명사를 선행 명사로 가지는 ‘에게’ 논항과 유정 명사를 선행 명사로 가지는 ‘에’ 논항은 각각 어떤 유형이 있으며 결합 관계에서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에게’ 논항의 용법

3절 이후의 선행 명사 분석의 기초적 전제로서 여기에서는 김형정(2008a,b)에서 소개한 ‘에게’ 논항의 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김형정(2008a,b)에서는 실제 용례를 대상으로 ‘에게’ 논항²⁾이 나타나는 구문들로는 어떠한 부류가 있는지 각 구문들에서 ‘에게’ 논항은 어떠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지 살펴본 바 있다.

‘에게’ 논항이 이루는 구문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것은 ‘주다’를 대표로 하는 수여동사 구문(혹은 여격 구문), 여격 주어 구문, 피동 구문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구문에서 ‘에게’ 논항이 나타난다.³⁾

- (2) 나는 그에게 꽃을 주었다.
- (3) 여사무원이 영애에게 말했다.
- (4) a. 나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내 처지가 불안했던 거야.
b.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 (5) 제3의 물결은 ..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6) 장작불 옆에서 어린애에게 젓을 먹고 앉았던 영돌 어머니도 웃으며 떠든다.
- (7) a. 그때, 넌 뒤로 물러서다가 옆아이에게 떠밀려 물에 빠졌지?
b. 다른 사람에게 속기 쉽다.
- (8) a. 늙은 어머니에게는 한 마리의 나귀가 있었다.
b. 아니야, 더 이상 나에게 음악은 존재하지 않아.
- (9) a. 그 무렵에 토마스가 내게 왔다.
b. 미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 백대령과 함께 클럽문을 나서던 김씨에게 접근했다.

2) 이 글에서 사용된 ‘논항’이라는 개념은 한 문장의 술어의 의미 구조가 완성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손이나 다른 도구로 붙들던가 죽이다’(「연세 한국어사전」 뜻풀이 참조)라는 의미의 ‘잡다’라는 동사는 ‘A가(「영희가/고양이가/새가…」) B를(「모기를/파리를/물고기를…」) C로(「손으로/발로/채로…」) 잡다’라는 의미 구조를 가지며, 그 행위를 하는 주체, 행위를 받는 대상, 행위의 수단(혹은 방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한다. 김형정(2006:100) 참조..

3) ‘에게’ 논항의 용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연구·교육용 현대국어 균형말뭉치’이며, 이 중 문어 말뭉치 약 900만 어절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sampling)의 방식을 적용하여 90만 어절의 연구용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연구용 말뭉치에서 추출된 ‘NP에게’ 용례는 모두 3,063개였다. 이 중 문법 형태(‘-어 주다’, ‘-게 하다’, ‘-어 지다’ 등)에 의해 요구되는 ‘에게’ 논항, 명사 술어의 논항으로 나타나는 ‘에게’ 논항을 제외한 2,658개의 용례를 바탕으로 그 유형(type)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686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빈도 2이상의 용언 282개를 대상으로 ‘에게’ 논항의 구문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김형정(2008a,b) 참조.

(10) 영희에게는 청바지도 잘 어울렸다.

(11) 내용을 다루지 않는 논리학이 우리에게 낯설었다.

(2)는 이른바 수여 동사 구문으로서 ‘그 애에게’는 ‘주다’라는 전달 행위 동사의 상대로서 나타나 있다. (3)의 ‘영애에게’는 의사소통상에서의 발화 내용을 전하는 ‘말하다’ 라는 동사의 발화 상대가 된다. (4)의 ‘남편에게’와 ‘아버지에게’는 각각 주체의 심리적 혹은 동작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존하다’와 ‘대들다’를 술어로 하는 문장에서 그 태도가 표현되는 객체적 상대로서 해석된다. (5)의 ‘~인간에게’는 술어부인 ‘영향을 미치다’의 작용을 받는 상대가 되고 있다. (6)의 ‘어린애에게’는 사동사 ‘떡이다’의 행위를 입는 상대가 된다. (7)의 ‘옆 아이에게’와 ‘~사람에게’는 각각 피동 접사에 의해 형성된 피동사 ‘떠밀리다’와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속다’의 행위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숨은 주체로서 해석된다. (8)에서의 ‘~어머니에게’와 ‘나에게’는 소유 혹은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존재하다’를 술어로 가지는 문장에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추상적 공간이나 소유주를 나타낸다. (9)의 ‘내게’와 ‘~ 김씨에게’는 이동 혹은 접근의 의미를 가지는 ‘오다’, ‘접근하다’의 도달점으로서 해석된다. (10)의 ‘영희에게’는 ‘어울리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 대상이 되고 있다. (11)의 ‘우리에게’는 심리적 지각을 나타내는 형용사 ‘낯설다’의 지각 주체가 ‘NP에게’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에게’ 논항은 각 문장에서 ‘어떠한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객체적 상대, 행위나 작용을 일으키는 숨은 주체,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고정된 공간, 주체가 지향하는 도달점, 판단 행위의 기준 대상, 심리·지각 작용의 주·객체’라는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진다. 또한 ‘에게’ 논항과 결합하는 술어를 중심으로 본다면, ‘수여 술어 구문, 전언 술어 구문, 사동 술어 구문, 피동 술어 구문, 존재·소유 술어 구문, 생성 술어 구문, 이동 술어 구문, 판단 술어 구문, 심리 술어 구문’ 등 다양한 구문에서 ‘에게’ 논항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에게’와 결합하는 선행 명사 분석

이 글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연세대학교 서상규 교수가 구성한 “새연세말뭉치1”(현대 한국어 문어 균형 말뭉치, 약 100만 어절)이다. 용례 추출 및 검색 도구로는 미국 브링햄영 대학의 장석배 교수가 개발한 Yconc2를 이용하였다.

3절에서는 “새연세말뭉치1”에서 추출한 3,751개의 ‘NP에게’ 용례를 대상으로 조사 ‘에게’에 결합된 선행 명사의 특성을 분석한다. 전체 용례 중 [+유정]의 속성을 가지는 선행 명사와 결합한 예가 3,676개, [-유정]의 속성을 지닌 선행명사와 결합한 용례가 75개로 나타났다. 아래에 각각의 결합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1 [+유정]의 속성을 가지는 선행 명사와 결합한 경우

(1)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개별 인물 명사

우선, 아래의 (12)와 같이 개별적인 인물 명사에 조사 ‘에게’가 결합된 유형이 있다. 이것은 ‘에

계'를 취하는 선행 명사 중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 (12) a. 난 네가 난희에게억울하게당하고서도오히려친구들에게소외당하고있다는걸알아.
b. 기획예산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보고한다.
c. 그리고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오빠에게계속해서말을건넸다.
d. 찾아온 용건을 묻는 나에게그녀는여러통의두툼한편지를내밀었다.⁴⁾

(12a)는 '난희'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며, (12b)는 '이름+직함'으로 개별 인물을 지칭한 경우이다. (12c)는 화자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통해 하나의 개별 인물을 나타낸 경우이고, (12d)는 대명사 '나'로서 한 명의 개인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게'에 결합된 선행 명사 중 {[+인간][+개인]}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난희, 김상진, 이현태씨, 이상건웅, 이해찬의원, 박세용피고인, 김대중 대통령, 하시모토 총리, 알렉산더 후보, 느부갓네살 왕, 문 부장, 배조교, 아내, 엄마, 누님, 오빠, 담당의사, 짝꿍..' '나(내), 너(네), 당신, 그, 그녀, 그분, 자기..' ⁵⁾등이 있다.

- (13) a. 조국은 남자에게나를도서출판청석골의이사라고우렁차게소개했다. / a'. 생동감 있고, 남자에게예속되지않는독립적인인물들이죠.
b. 그래서 그흰수염의노인에게말했지. / b'. 노인에게있어서 '성공적인 노후', '행복한노인'의 이미지는 많은 효성스런 자식과 손 자녀에 둘러 싸여 장수하는 것이었으니..
c. 그 사람에게 텔레비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일 거다. / c'. 그런데 사람에 의하여이룩된 문화는 사람에게다시영향을끼친다.
d. 사람들은 내가 .. 손님에게발각되어경찰서로잡혀갔었다는걸다알고있었다. / d'. 여기서의 친절이란 손님에게부담을주지말아야함을의미한다 .

위의 (13)에 나타난 '남자, 노인, 사람, 손님'의 경우는 (13)(a-d)에서는 (12)의 예들과 같이 한 명의 특정 개인으로서 해석된다. 그러나 (13)(a'-d')는 개별 인물이라기보다는 '남자 일반, 노인 일반' 등 그 부류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다.⁶⁾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명사로써는 '경찰, 고객, 공무원, 교사, 기자, 예술가, 정치가, 근로자, 독자, 소비자, 시청자, 실무자, 수입업자, 여행자, 책임자, 투자자, 피의자, 보행인, 보증인, 일반인, 현대인, 타인, 외국인, 외계인, 학생, 졸업생, 사람, 인간, 남자, 남성, 여자, 여성, 청년, 청소년, 아동, 어린이, 후손, 후진..' 등이 있다.⁷⁾ 이러한 유형의 명사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는 수식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13b)의 '그 흰 수염의 노인에게'와 (13c)의 '그 사람에게'의 '그 흰 수염의'와 '그'는 각각 '노인'과 '사람'을 수식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부류라는 의미가 아닌 특정한 개인을 지시하도록 한다.

4)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분량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요소 이외의 부가적인 요소를 '..' 기호를 써서 소략하여 표기한다.

5) 유형이나 예를 제시할 때의 띄어쓰기는 철자법 규범과는 관계없이 용례에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

6) 특정한 개인이 아니므로 {[+인간][-개인]}의 의미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부류의 대표로서 사용된 것이 집 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라는 점에서 아래의 집단 명사와 구별된다.

7) (12c)의 '오빠'도 '오빠는 여동생의 남자친구 문제에는 민감한 법이다'와 같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빠라는 존재는 그렇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용례에서 그러한 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일반 명사로 분류해 둔다.

(2)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집단 명사

다음으로는 ‘둘 이상의 개인이 모여 이룬 무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단 명사가 있다. 여기에 속한 명사들은 [+인간][-개인][+무리]의 속성을 가지며, 아래의 (14)가 그에 해당된다.

- (14) a. 대중은 마스크에 책임을 돌리고, 마스크는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b. 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죽고살기식의 각박한 인정을 남겼다.
c. 전직 테니스 강사인 바비(손 팬)는 노름빚을 갚지 못해 갱단에 게 손가락 두 개를 잘렸다.
d. 최민호(..)가 한국남자팀에게 세계 유도선수권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e. .. 그는 X세대들에게 유행의 유형을 보여준 화려한 헤어스타일에 미드필드까지 쫓아다니는 요란한 플레이로 인기를 모았다.
f. 그는 그러나 그램 부부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14a)의 ‘대중’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킨다. (14b)의 ‘민족’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언어,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정의할 수 있다. (14c)는 ‘갱이 모여서 이룬 무리’이다 (14)(d-e) 또한 어떤 특정 집단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14)(a-c)와 같다. (14f)의 ‘그램 부부’는 아내와 남편을 아울러 지칭하는 ‘부부’라는 명사의 의미 특성상 그 자체로 복수가 되는 형태이다. 이를 집단 명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집단 명사의 정의 및 속성에 부합하므로 이 글에서는 집단 명사로 분류하기로 한다. ‘부부, 부자, 모자’ 등이 이에 해당되는 예이다. 이밖에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집단 명사로는 ‘대중, 군중, 공중, 민중, 청중, 민주 세력, 반대 세력, 집권 세력, 가족, 민족, 이민족, 쿠르드족, 백성, 국민, 주민(남한), 시민(민주), 인민, 인류, 황인종, 일반, 선수단, 갱단, X 세대, 신세대, ~ 세대(다음, 자라나는), 남자팀, 실무팀, 우승팀, 조사단, 전국민, 전인구, 전학생, 붉은악마, 그램 부부, 그램 부부, 김씨 부자..’ 등이 있다.

(3)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복수형

다음으로는 복수형이 있다. ‘가수들, 동네사람들, 고객들, 친구들’과 같이 유정 명사에 복수 형태를 만드는 접미사 ‘들’이 붙은 것이다.

- (15) a. 우리는 침묵을 강요하는 선배들에게 묻는다.
b. 양상무와 동주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c. 우리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 콜과 가까웠던 저명인사 2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니 기민당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15a)는 개별 인물 명사에 복수 접미사 ‘들’이 결합된 것이며, (15)(b-c)의 ‘그들, 우리’는 복수 대

명사이다. (15d)는 개별 인물 명사가 수량을 나타내는 ‘20여명’과 함께 쓰여 복수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는 ‘간부들, 게릴라들, 관광객들, 귀빈들, 남들, 네티즌들, 당원들, 동생들, 사원들, 여학생들, 자기들, 제자들, 초보자들, 팬들, 회원들, 그들, 이들, 우리, 모두, 서로, 자원 여성 16명, 저명인사 20여명, 3김씨 ..’ 등이 있다.

(4)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유정 명사

조사 ‘에게’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유정 명사 중 [+인간]이 아닌 예들이 있다. 아래의 (16)의 예가 그것이다.

- (16) a. 곰이 개에게물었습니다.
 b. 그러나 사냥꾼이 없으면 사냥개는 호랑이에게금방잡아먹힌다.
 c. 정원에 가득한 나무와풀들에게물을뿌리는것이아버지가하는일의전부였다.
 d. 바다로부터 나온 초록 비늘의 괴물에게사랑하는여인을빼앗긴과고과고라는젊은이가

(16)(a-b)의 ‘개, 호랑이’는 동물 명사이다. 특히 (16a)의 경우는 ‘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16c)는 식물 명사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용례에 나타난 ‘동-식물’ 명사로는 ‘개, 개미, 개미들, 고양이, 곰, 닭, 도마뱀, 돼지, 말, 말벌, 뱀, 벌떼, 비둘기들, 삼살개, 새, 소, 송충이, 수사자, 암말들, 암사자, 양들, 여우, 짐승, 펭귄, 하마, 호랑이, 나무, 땅콩들, 은행나무, 풀들..’ 등이 있었다. (16d)의 ‘괴물’은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서 ‘괴물, 악마, 신령, 도깨비, 귀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유정]의 속성을 가지는 선행 명사와 결합한 경우

조사 ‘에게’에 결합된 선행 명사 중 유정 명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우선 아래의 (17)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 (17) a. 흰색은 와이셔츠에게거부당함으로써와이셔츠의색깔이된다.
 b. 그래도 의기양양한 머리는 꼬리에게늘이렇게으스맨답니다.
 c. 칠성당을 짓고 북두칠성에게제사를지내는풍습이생겨났다고한다
 d. 반장, 계단을 흘끔거리며 201호에게계속눈치준다.
 e. .. 책, 그림, 오디오 혹은 와인 등 식물을 제외한 모든물품들에게직사광선은 좋지않기때문이다.

(17)(a-b)는 옷의 한 종류인 ‘와이셔츠’와 동물의 몸의 일부분인 ‘꼬리’를 싫다는 감정을 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남에게 으스델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서 의인화에 해당한다. (17c)의 ‘북두칠성’은 밤하늘에 뜬 별 그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북두칠성을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신격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서 ‘하늘에게 기도했다’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하늘’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의 하늘이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는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17d)는 아파트의 호수로 그 호수에 사는 사람을 빗대어 가리킨 예이다. (17)(c-d)의 ‘복두칠성, 201호’는 모두 무정 명사이지만 그 속뜻에는 [+유정]의 속성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17e)에서 무정 명사 ‘모든 물품들’이 ‘에게’와 결합되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좋다’라는 술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책에게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와인에게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 등 다른 무정 명사와는 결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 등 ‘무정-집단 명사’가 ‘에게’와 함께 사용된 예들이 있다. (18)의 ‘기업에게, 아시리아에게’가 그에 해당되는 것이다.

- (18) a. ..1987년에 제정된 말콤 볼드리지상(..)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질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게수여되는권위있는상이다.
 b. 그후 이스라엘왕국은 아시리아에게정복되고, ..

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무정-집단명사’로는 ‘FBI, IRA, WHO, 자민당, 시민단체..’ 등의 기구나 조직, ‘LG, 삼성생명, 소니, 에인절스, 전남, 한국은행..’ 등 스포츠 팀, ‘아시리아, 일본, 조선, 북한, 신바빌로니아, 강대국들..’ 등의 국가 조직, ‘기업, 벤처기업, 기업들, 북한 기업들, 업체, 제약회사들, 중국의류업체들’ 등 기업이나 업체, ‘미군, 왜군, 일군, 일본군, 터키군, 군대들..’⁸⁾ 등의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명사들을 들 수 있다. 무정 명사이지만 모두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집단 명사라는 점에서 3.1절의 유정 집단 명사의 연속선상에 놓이는 종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유형의 경우는 (19-20)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에게’를 ‘에’로 교체하는 것이 대체로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서의 ‘NP에게’는 2절의 ‘에게’ 논항의 용법에서 제시한 항목 중 술어 용언과의 결합 관계에서 볼 때 ‘어떠한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객체적 상대’ 혹은 ‘어떤 행위나 작용을 일으키는 숨은 행위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9) a. 주인공 안젤라(샌드라 불러)가 .. 중요한 파일들을 FBI에게(FBI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그 문제의 장면이다.
 b. 그로부터 22년 뒤인 1876년 일본은 같은 방법으로 조선에게(/조선에) 개항을 강요한다 .
 c.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 그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을 송두리채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주변국가들에게(/주변 국가들에) 과중한 명예를 씌었던 것 같지요?
- (20) a. 이후 로렌스는 터키군에게(/터키군에) 잡혀 치욕적인 고문을 당한 후..
 b. ..부어맨은 .. 94년 IRA에게(/IRA에게) 암살당한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도둑 마틴 카힐의 전 기영화로 방향을 돌렸다.
 c. 미군에게(/미군에) 체포돼 구금 중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8) 여기에서 미군이나 왜군 등 특정 나라의 군대를 가리키는 명사는 군대라는 조직을 의미하는 집단 명사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뜻의 개별 인물 명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난삼아 들여다본 물레방앗간에는 단짝 창회의 어머니가 미군에게 몸을 팔고 있었고..’가 그 예이다. 이때에는 ‘미군에게’를 ‘미군에’로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 d. ..유대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게(/신바빌로니아에)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50년을 종살이하게 되죠.

(19a)의 ‘FBI에게’는 주인공 안젤라가 전송하는 이메일을 받는 전달 행위의 상대가 된다. (19b)의 ‘조선에게’는 주어인 일본으로부터 개항하기를 요구 받는 상대인데, ‘강요하다’라는 강압적 자세를 나타내는 태도 동사를 술어로 가진다. (19c)의 ‘주변 국가들에게’는 ‘씩우다’라는 사동 동사를 술어로 하여 어떤 구속이나 억압적 행위를 당하는 상대가 되고 있다.

한편, (20a)의 ‘터키군에게’는 주어인 ‘로렌스’를 잡는 행위를 하는 숨은 행위주이며, 표면상 주어로 나타난 ‘로렌스’는 터키군에게 잡히는 피동주가 된다. (20)(b-d)의 ‘IRA에게, 미군에게, 신바빌로니아에게’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두 ‘암살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망하게 하는’ 행위나 작용을 일으키는 숨은 주체로서 해석된다.

- (21) a. 휴식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체력이 소모된 LG에게(/??LG에) 더욱 꿀맛 같다.

(21)의 ‘LG에게’는 휴식이 꿀맛과 같다고 느끼는 주체로서 2절에서 제시한 ‘에게’ 논항의 용법 중 ‘심리·지각 작용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19-20)의 예와 비교할 때 조사 ‘에게’를 ‘에’로 교체한 문장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위의 현상과 관련하여 ‘무정-집단’ 명사가 조사 ‘에’와 결합한 예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술어와의 관계에서 ‘객체적 상대’ 혹은 ‘행위주’로서 분석되는 예들에서는 조사 ‘에’를 ‘에게’로 바꾸어도 대체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성립한다. 아래의 (22)가 그것이다.

- (22) a. 암팩스(Ampex)는 VCR기술을 일본기업에(/일본기업에게) 팔았다.
 b. 그동안 서유럽은 한목소리로 미국에(/미국에게) "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없었다.
 c. 결국 로마에(/로마에게)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죠.
 d. .. 미국은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리비아에(/리비아에게) 폭격을 가했지만..
 e. 한국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 중소기업업체에(/중소기업업체에게) 생산을 맡기로 했다.
 f. .. 중국 상해에서 북한외교관 2명이 아편밀매 혐의로 중국공안당국에(/중국 공안당국에게) 검거된 것이 좋은 예이다.
 g. ..언론은 .. 북한이나 공산국가에(/공산국가에게) 불리한 내용은 과장하고 유리한 내용은 축소한다.

(22a)의 ‘일본기업에’는 판매 행위를 통해 암팩스로부터 일본기업에게 전달되는 VCR기술을 전수 받는 객체적 대상이 된다. (22b)는 전언 술어인 ‘말하다’가 술어가 된 문장으로 여기에서의 ‘미국에’는 ‘아니오(No)’라는 발화 내용을 전달 받는 의사 소통 행위의 상대가 되고 있다. (22c)의 ‘로마에’는 힘이나 억압에 굽히지 않고 그에 맞서서 저항한다는 동작적 태도가 표명되는 대상이다. (22d)의 ‘리비아에’는 폭격을 가하는 동작적 작용에서 폭격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22e)의 ‘중소기업업체에’는 사동 동사 ‘맡기다’와의 결합 관계에서 맡도록 시킴을 당하는 상대로서 해석된

다. (22f)의 ‘중국 공안당국에’는 북한외교관을 검거하는 숨은 행위주이다. 한편 (22g)의 ‘공산국가에’는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가려서 정하는 판단 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대상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필요하다..’ 등을 술어로 하는 판단 술어 구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 ‘에’와 ‘에게’의 교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NP에’가 ‘주체가 지향하는 도달점’이나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고정된 공간’인 경우에는 ‘에’하고의 결합만이 가능하며, 조사 ‘에게’로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23) (a-b)가 그에 해당하는 예이다. (22)의 예들에 나타난 ‘NP에’에는 쌍방향적 행위나 작용에 바탕한 ‘상대’ 혹은 ‘행위주’라는 의미가 강한 데 비해, (23) (a-b)의 ‘NP에’는 ‘장소’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 (23) a. 군대에(/*군대에게) 있을 때 면허증 땀어요 .
 b. 배낭을 메고 인도에(/*인도에게) 갔을 때였다.
 c. 그러나 신생 동티모르에는(/동티모르에게는) 이러한 장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d. 다시 한번 가산전자에(/가산전자에게) 기회가 왔다.

(23)(a-b)는 각각 ‘가다, 오다, 찾아오다, 들어오다..’ 등의 이동 동사와 ‘있다, 없다, 많다..’ 등의 존재·소유 동사를 문장의 술어로 가지는 유형이다. 그렇지만 같은 ‘가다’와 ‘있다’를 술어로 가지는 문장인 (23)(c-d)에서는 조사 ‘에’를 조사 ‘에게’와 바꾸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23a)의 ‘군대에 있다’는 ‘군대에 머무른다’는 소재나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23c)의 ‘동티모르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동티모르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다’는 소유 혹은 내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b)와 (23d)의 ‘가다’도 그 의미가 다르다. (23b)의 ‘인도에 가다’는 ‘인도라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비행기나 도보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옮겨 가다’라는 이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23d)의 ‘가산전자에 기회가 오다’는 ‘가산전자에 기회가 생기거나 나타나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동의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산전자에’를 ‘가산전자에게’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2-23)의 예들에 나타난 술어는 모두 기본적으로 ‘에게’ 논항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이다. 그러나 술어 자체로는 ‘에게’ 논항을 취할 수 있지만, ‘에게’를 ‘에’로 바꾸어 쓸 수 없는 예들이 있다.

- (24) a. 비틀스라는 슈퍼스타를 미국에(/*미국에게) 소개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b. 1950년대 중반, 일본에(/*일본에게) 미국식 슈퍼마켓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c. 4. 3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하여봅시다.
 d. <왕립우주군>은 일본에서조차 뒤늦게 인기를 모았고, 한국관광객에게는십년이지난지금선보이게됐다.

(24)(a-b)의 ‘소개하다’와 ‘선보이다’는 각각 (24)(c-d)에서와 같이 ‘에게’ 논항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동사이며, 이때의 ‘친구들에게’와 ‘한국 관광객에게’는 책이나 <왕립우주군>이라는 만화영화를 소개 받는 상대가 된다. 그러나, (24a)의 ‘미국에’는 비틀스를 소개 받는 상대가 아니다. 미국이 소

개를 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비틀스를 소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곳에 소개를 한다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24b)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선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장소에 나타나거나 생긴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무정-집단’명사+에>의 경우, 수여 동사, 전언 동사, 태도 동사, 사동 동사, 피동 동사, 판단 동사 등을 술어로 하여 ‘상대’나 ‘행위주’ 혹은 ‘기준점이 대는 대상’의 의미로서 해석될 때에는 대체로 ‘에’를 ‘에게’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이동 동사, 존재 동사를 술어로 하여 ‘목표점’ 혹은 ‘소재처’와 같은 ‘장소’의 의미를 가질 때는 ‘에게’와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4. ‘에’와 결합하는 선행 명사 분석

4절에서는 ‘에’ 논항에서 선행 명사와 조사 ‘에’의 결합 관계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 ‘NP에’ 용례는 전체 39,549개가 검색되었으며, 이 중 시간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 등을 제외한 29,400여 개의 예문을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NP에게’와의 비교를 위하여 ‘유정 명사+에’의 결합을 중심으로 그 유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해당 결합 관계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정 명사에 조사 ‘에’가 결합된 용례는 1,025개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유정]의 속성을 가진 명사가 조사 ‘에’와 함께 나타나는 예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 ‘에’를 ‘에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4.1 [+유정]의 속성을 가지는 선행 명사와 결합한 경우①-‘에게’와 대체 가능

우선 아래의 (25)와 같이 승패와 관련된 사태를 서술하는 문장에서는 유정 명사 뒤에도 조사 ‘에’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25) a. 종합 순위에서도 미국의 램스암스트롱(..)에(/램스 암스트롱에게) 6분35초 뒤진 6위로 뛰어 올랐다.
 b. TV시사평론가 뷰캐넌(57)은 비록 돌후보에(/돌후보에게) 3% 차이로 졌지만 ..
 c. 현대 전준호가 한국시리즈 톱타자 대결에서 LG 유지현에(/유지현에게) 크게 앞서고 있다.
 d. 62년 리처드 닉슨을 꺾고 연임했으나 로널드레이건에(/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해 67년 물러났다.

(25)(a-d)의 ‘램스 암스트롱, 돌후보, 유지현, 로널드 레이건’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유정 명사이지만 모두 조사 ‘에’를 취하고 있다. 해당 문장의 술어로는 ‘지다, 패하다, 패배하다, 완패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신승하다, 역전승하다, 역전승을 거두다, 앞서다, 뒤지다..’ 등이 나타났다. 3.2절에서 살펴본 ‘무정-집단’명사의 경우에도 승패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조사 ‘에’를 ‘에게’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26)의 ‘빙그레’와 ‘터키’는 각각 스포츠 팀과 국가명으로서 [-유정]

의 집단 명사인데, ‘빙그레에게’, ‘터키에게’와 같이 ‘에게’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 (26) a. 당시 롯데는 가장 어려운 해태를 눌러 한국 시리즈서 빙그레(현 한화)에(/빙그레에게) 낙승했다.
b. 그러나 정작 일본이 터키에(/터키에게) 0-1로 패하자 기분은 미묘했다.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나 사설·칼럼 등의 제목에서는 유정 명사 뒤에도 조사 ‘에’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27) a. 대법, 강기훈씨에(/강기훈 씨에게) 3년형... 재야 향의 시위
b. 교원들에(/교원들에게) '못매'맞은 교육정책
c. 새 일본 총리에(/새 일본 총리에게) 당부한다

(27)의 ‘강기훈 씨, 교원들, 새 일본 총리’는 모두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유정 명사이지만 ‘에게’가 아닌 ‘에’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조사 ‘에게’ 대신에 ‘에’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짧고 압축적인 메시지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헤드라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장치가 신문 제목의 문체로서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유사한 존재인 ‘유정-유사’ 혹은 ‘유정-동식물’ 명사의 경우가 있다.

- (28) a. ..도깨비에(/도깨비에게) 홀린 감도 들어 머쓱해지면서 마누라에게 미안한 감이 들었다.
b.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뱀에게) 물려 죽자, 아내를 잊지 못하고 하프를 연주하며 명계로 내려간다.
c. 온도가 생물에(/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28a)의 ‘도깨비’는 ‘유정-유사’, (28)(b-c)의 ‘뱀, 생물’은 ‘유정-동식물’ 명사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경우에도 모두 조사 ‘에’를 ‘에게’로 교체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러나, ‘에게’와 결합된 ‘유정-유사’ 혹은 ‘유정-동식물’의 경우는 ‘에’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아래의 (29)를 보면 이 중 (29c)의 문장만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며 나머지는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29a)는 동물인 개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에’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9) a. 곰이 개에게(/*개에) 물었습니다.
b. 그러나 사냥꾼이 없으면 사냥개는 호랑이에게(/??호랑이에) 금방 잡아먹힌다.
c. 정원에 가득한 나무와 풀들에게(/나무와 풀들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d. 바다로부터 나온 초록 비늘의 괴물에게(/??괴물에)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파고파고라는 젊은이가..

4.2 [+유정]의 속성을 가지는 선행 명사와 결합한 경우②-‘에게’와 대체 불가능

다음으로 [+유정]의 속성을 가지는 선행 명사에 결합한 ‘에’를 ‘에게’로 대체할 수 없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들은 ‘에’에 결합된 명사의 속성이 [+유정]이나 [-유정]이나에 관계없이 ‘에’를 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아래의 (30)이 그에 해당된다.

- (30) a. 나는 아직 그분에(/*그분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b. 아무리 .. 권세와 재산이 있고 팔방미인이라도 술 마시는 사람은 미련한자에(/*미련한 자에게) 속한다.
 c. .. 어스킨 보울스가 97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에(/*비서실장에게) 임명됐다.
 d. 삼촌에 (/*삼촌에게) 숙모에(/*숙모에게) 사촌까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e. 큰덕 머슴에,(/*머슴에게) 고행이 껍 멀다는, 이대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f. 그 아비에(/*그 아비에게) 그 아들이다.

(30a)는 일종의 굳어진 결합으로서 ‘NP에 대해서’와 같이 언제나 조사 ‘에’를 취하여 나타난다. (30b)의 ‘미련한 자에’는 술어 ‘속하다’와의 관계에서 주어인 ‘권세와 재산이 있고 ~ 술 마시는 사람’이 속하게 되는 어떠한 부류를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술어의 경우에는 유정 명사에도 조사 ‘에’가 결합한다. (30c)의 ‘비서실장에’는 ‘임명되다’라는 술어와 함께 쓰여 비서실장이라는 직위가 맡겨진다는 의미가 된다. ‘비서실장’ 자체는 [+유정]의 자질을 가지지만 이처럼 술어와 논항의 결합 관계에서 개별 인물 명사가 아니라 맡게 되는 직위 자체를 의미할 때는 ‘NP에 VP’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30d)는 어떠한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경우인데, 유정 명사 뒤에도 조사 ‘에’를 써야 한다. (30e)는 ‘큰덕 머슴 중에 이대룡이라는 사람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예이다. (30f)는 속담의 예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아래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굳어진 결합

첫 번째 유형은 아래의 ‘NP에 관한’, ‘NP에 따르면’, ‘NP에 비해’, ‘NP에 의해서’ 와 같이 ‘대하다, 관하다, 따르다, 비하다, 의하다’가 몇몇 제한된 활용형으로만 쓰이면서 ‘에’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에서는 이를 문법화 과정에 있는 동사들이라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어휘적 언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법적 언어로 정의되기도 한다.

- (31) a. 이 글은 화가장옥진에관한기록이다.
 b. 김슨박사에 따르면 김군도 .. 수술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
 c. 난 친구들에비해비교적일찍결혼했다.

c. 라디오·TV·신문·잡지는 모두 광고주廣告主인스폰서에의해서유지되고있지않은가.

이 글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NP에 {관해서/관해/관하여/관한}, NP에 {대해서/대해/대하여/대한}, NP에 {따라서/따라/따르면/따른다면}, NP에 {비해서/비해/비하여/비하면/비한다면}, NP에 {의해서/의해/의하여/의하면}’ 등의 결합 형태가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래의 (32)에 나타난 형태들 또한 굳어진 결합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들이다.

- (32) a. 유모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한 어린 아기로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60대의할머니에이르기까지남녀노소모두가모여만든무대였다.
b. .. 황주량 등이 중심이 되어 태조로부터 목종에이르는 7대 실록을 완성하였다.
c. 정명원, 김홍집에이어위재영이등판했다.
d. 박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 이씨에앞서증인신문에나선이부영김영수씨를상대로최대한시간을 벌기위해지연전술을쓰기도.
e. 영춘에는 온달에얽힌땅이름이많고애기가많다.

(32) (a-b)는 동사 ‘이르다’가 ‘NP1(로)부터 NP2에 이르기까지’ ‘NP에 이르는’의 형태로 사용되어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32c)는 ‘잇다’가 ‘NP에 {이어/이어서/이은}’의 형태로 나타나 순서상 NP의 뒤에 잇따라 나타난다는 의미가 된다. (32d)의 ‘이씨에 앞서’는 순서상 이씨보다 먼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2e)의 ‘온달에 얽힌’은 ‘무엇인가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NP와 관련된’이라는 의미로서, 이처럼 관련된다는 의미일 때는 ‘NP에 얽힌’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2) 술어의 속성에 따른 것

두 번째로는 술어의 의미 속성에 따른 것으로서 특정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몇몇 용언은 선행 명사가 유정이건 무정이건 언제나 ‘에’ 논항만을 취한다. 우선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속하다’ 류의 용언이 있다.

- (33) a. 그러나 화가는 ..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기인에든다.
b. .. "이 경우 정몽구 회장은 정전회장의특수관계인에포함되지않는다"고 말했다.
c. 그러므로 사오정 시리즈의 의미를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날아라 슈퍼보드>를 즐겨 보던 세대에속한다고할수있다.

(33)의 ‘기인에, ~ 특수관계인에, ~ 세대에’는 ‘들다, 포함되다, 속하다’라는 술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가 속하게 되는 어떤 부류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결합 유형으로는 ‘NP에 속하다, NP에 들다, NP에 포함되다, NP에 포함시키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수준이나 정도가 어떤 선을 넘지 못하고 미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불과하다’ 류의 용언이 있다. (34)의 ‘NP에 불과하다, NP에 지나지 않다, NP에 그치다’가 그 예이다.

- (34) a. 하녀에 불과했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그후로도 오래(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다.
b. 남이 보면 나 역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나이였다 .
c. 하지만 그가 주변의 칭찬에 머물렀다면 단지 '일류기술자'에 그쳤을 것이다.

‘건주어 보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동등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버금가다’ 또한 유정 명사인 경우에도 조사 ‘에’와 함께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NP에 못지 않다’라는 동사구 형태도 있다.

- (35) a. 60년대 안토니오니에 버금가는 연출력 ★★★★★..
b. 내 어머니의 근면도 아버님에 못지 않으셨다 .

한편 ‘NP에 해당되다, NP에 해당하다’ 또한 ‘에’ 논항만을 취한다. 아래의 (36)이 그 예이다.

- (36) a. 그런데 현실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70%정도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b. 국무회의석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해당하는 장관이기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 직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

세 번째로 직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가 ‘임명하다, 오르다..’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직위를 맡게 되다’나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다’는 의미로 해석될 때는 직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언제나 조사 ‘에’가 결합된다.

- (37) a. 이에 오토 황제는 .. 황제 측근인 레오 8세(963 ~ 965)를 교황에 임명하였다,
b. 이날 선거에서는 .. 이교수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의장에 당선됐다.
c. 혜초 스님은 오는 7일 .. 성북동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 17대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d. 서울 남침이 2002~2003 KAT시스템배 한국바둑최강전 통합 챔피언에 올랐다.
e. 게다가 하이라이트인 디스코왕에 도전하는 부분이 후반에 급하게 다뤄져..

위의 (37)(a-e)에 나타난 ‘교황, 의장, 챔피언’ 등은 {교황에게 성배를 건넸다. / 의장에게 건의한다. / 챔피언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다}와 같이 ‘에게’ 논항과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의 ‘교황, 의장, 챔피언’은 모두 한 명의 특정한 개인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37)의 ‘교황에 임명하다, 의장에 당선되다, 챔피언에 오르다’에서의 ‘교황, 의장, 챔피언’은 특정한 개별 인물이 아니라 맡게 되거나 가지게 되는 직위나 자격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37e)의 ‘디스코왕에 도전하다’는 ‘디스코왕에게 도전하다’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디스코왕에게 도전하다’는 현재

디스코왕의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의미이며, ‘디스코왕에 도전하다’는 디스코왕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된다. 직위를 나타내는 선행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술어로는 ‘임명하다, 임명되다, 취임하다, 당선되다, 선출되다, 내정되다, 지명되다, 발탁되다, 선발되다, 선임하다, 선임되다, 오르다, 지명되다, 추대하다..’가 있으며, 자격을 나타내는 선행 명사와 결합하는 술어로는 ‘오르다, 등극하다, 뽑히다, 선정되다, 등극하다..’가 있다.

(4) 열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네 번째로 조사 ‘에’는 아래의 (38)과 같이 어떤 대상을 나열하는 ‘열거’의 용법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부정 명사뿐만 아니라 긍정 명사의 뒤에서도 조사 ‘에’가 쓰인다. 아래의 ‘낚시꾼에, 등산객에’가 그에 해당하는 예이다.

- (38) a. 부우연 입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짹짹 자반 갈치 토막에, 골콤한 새우젓에.....
 b. 충주댐이 완성된 뒤로 낚시꾼에, 등산객에, 온천객들이 몰려들어 복재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다.

(5) ‘NP에 속한 여럿 가운데’의 의미

다섯 번째로 ‘선행 명사 ‘NP’에 속한 여럿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NP에’의 예가 있다. (39a)에서의 ‘큰택 머슴에’가 그것이다. 용례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의 유형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39)(b-c)도 모두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 (39) a. 큰택 머슴에, 고행이 꺾 멀다는, 이대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b. 백가 성 가진 사람에 장기 잘 두는 이가 있소. / 그게 누구란 말요, 하 많은 사람에 알 수 있소.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재인용)
 c. 키 큰 사람에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 / 요즈음 사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이익섭 · 임홍빈(1983:152) 재인용)⁹⁾

(6) 속담

속담 중 긍정 명사 뒤에 ‘에’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 아비에 그 아들이다’의 예가 있다. 이는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 이익섭 · 임홍빈(1983:152)에 제시되었던 것인데 이 글에

9) (39b)의 예는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에서 ‘그 행동이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기준 범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 예이다. (39c)는 이익섭 · 임홍빈(1983:152)에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와 함께 속담과 같은 특수 표현에 쓰인 것이라고 한 예이다. 사람을 개체보다는 한 부류로서 다룰 때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39a)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 명사와도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용법을 속담과 같은 특수 표현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에서 ‘에’ 논항과 결합되어 나타난 속담으로는 ‘옥에 티’,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등이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말뭉치의 용례를 바탕으로 선행 명사의 속성에 따른 조사 ‘에게’와 ‘에’의 결합 양상 및 두 조사가 교체가 되는 조건들을 실증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에게’에 결합된 유정 명사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무정 명사를 선행 명사로 가지는 ‘에게’ 논항과 유정 명사를 선행 명사로 가지는 ‘에’ 논항은 각각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거기에서의 결합 관계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 ‘에’와 ‘에게’가 교체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떤 구문에 나타난 ‘NP에/NP에게’가 조사 ‘에게’만을 허용하는가, ‘에’와 ‘에게’를 모두 허용하는가, ‘에’만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선행 명사의 ‘유정-무정’ 대립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명사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유형화가 요구되며, 선행 명사의 속성뿐만 아니라 술어의 의미 특성이나 술어와 ‘에게/에’ 논항의 결합 관계까지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용례 분석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세밀하게 그 유형을 분류하고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조사 ‘에’에 유정 명사가 결합된 예 중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이 꽤 있었다. 선행 명사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술어와의 결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으며, 비문으로 생각되는 예들도 일부 나타났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선행 명사와 조사 ‘에게’와 ‘에’의 결합 양상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 『조선어문법1(어음론, 형태론)』, 평양: 미상.(1961.3. 동경학우서방번인. 1990.2. 서울 탐출판사 재영인).
- 김영희(2004), “논항의 판별 기준”, 한글 266, 서울: 한글학회.
- 김원경(1997), “‘에게’와 격”,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김응모 편저(일암 김응모 선생 화갑 기념 논총), 서울: 박이정.
- 김진호(2003), “‘NP-에게’ 구문의 통사적 특징”, 『국어학의 새로운 조명』 이광정 편, 서울: 역락.
- 김형정(2006), “‘와’보충어의 분포 및 특성”, 『한글』 제 274호 99-128쪽, 서울: 한글학회.
- 김형정(2008a), “객체적 상대로서의 ‘에게’ 논항”, 제2회 한국어학회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
- 김형정(2008b), “행위주로서의 ‘에게’ 논항에 대하여”, 제59회 조서학회 발표 자료.
- 박형익(1989), “동사 ‘주다’의 세 가지 용법”, 『한글』 203, 서울: 한글학회.
- 박형익(1991), “여격 동사”,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엮음, 서울: 한국문화사.
- 배희임(1988) 『국어피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송복승(1994), “국어의 ‘-에게’ 구성에 대하여”, 『서강어문』 10, 서울: 서강어문학회.
- 안명철(1982), “치격 ‘에’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유현경(2003), “‘주다’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 『한국어학』 20, 서울: 한국어학회.
- 이기동(1976), “한국어 피동형 분석의 검토”, 『인문과학논총』 9, 서울: 인문과학연구소(건국대)
- 이기동(1979), “‘주다’의 문법”, 『한글』 166호, 서울: 한글학회.
-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174호, 서울: 한글학회.
- 임홍빈(1978), “국어 피동화의 의미”, 『진단학보』 45, 서울: 진단학회.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3』 재수록)
- 임홍빈(1980), “{을/를} 조사의 통사와 의미”, 『한국학논총』 2, 국민대.
- 정희정(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 『국어학』 4, 서울: 국어학회.
- 최현배(1937;1961세번째고친판),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허웅(1995;2000고친판),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고친판>』, 서울: 샘문화사.
- 홍운표(1978), “방향성 표시와 격”, 『국어학』 6, 서울: 국어학회.
- 홍재성(1983), “이동동사와 행로의 보어”, 『말』 8, 연세대 한국어학당.
-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第I巻 東京: くろしお出版.
- 奥田靖雄(1983) 「に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281-323頁 言語学研究会 編 東京: むき書房.
- 松本泰丈(2006) 「に格の名詞と形容詞とのくみあわせ」 『連語論と統語論』 16-136頁 東京: 至文堂.
- Chafe, W.L.(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동의보감』 탕액편에 반영된 한자음 연구

최미현 (동의대학교)

1. 머리말

조선 시대의 언해서(諺解書)에 반영된 한자음들을 살펴보면 현대의 한자음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조선조 한자음이 현대로 내려오면서 한자음의 변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데, 이렇게 한자음의 변화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국어 음운 현상이 한자음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음의 일반적인 변화가 아닌 특이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약재명 ‘白礬’은 『구급간지방』이나 『동의보감(탕액편)』에 ‘빅번’으로 언해되어 있지만,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백반’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자음의 차이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약재명 ‘玄胡索’은 『언해태산집요』에 ‘현호삭’으로 언해되어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현호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索’의 음이 ‘삭’과 ‘색’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언해서들을 중심으로 현대 한자음과 비교 검토를 하다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한자음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남광우(1973), 문선규(1994), 권인한(1997), 정경일(2006), 김무림(2006)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데, 대부분 국어 음운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한자음 변화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이충구(2004:93~118)에서는 일자이음(一字異音)의 한자음이 一音으로 통합된 경향을 살펴서 한자음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¹⁾, 일자이음(一字異音)으로 형성된 한자음에만 국한하여 논의하였지만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한자음의 변화 문제를 새로이 접근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자음의 변화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국어 음운 현상이 한자음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지만,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변화의 용례도 존재하므로 그 변화의 원인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세밀히 고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대상 자료로 언해 의서(醫書)들을 정하였다. 언해 의서에는 당시의 전문적인 한의학 용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현대 한의학 용어와의 비교 검토가 쉽고, 이를 통하여 한자음의 변화 양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탕액편)』(1613)에 나타나는 한자음들을 대상으로 현대 한자음과 비교 분석하여 특이한 한자음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을 찾고,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은 모두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 침구편(鍼灸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탕액편’은 약재의 향약명(鄉藥名)이 기록되어 있어서 국어사적인 가치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한의학 용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의보감』 탕액편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록된 약재명들은 대부분 고유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자음으로 언해된 용례는 방대한 양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다.

1) 한자음의 통합을 방점탈락(傍點脫落)에 의한 통합과 이음간섭(異音干涉)에 의한 통합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방점탈락에 의한 통합은 동자(同字) 내의 한글 표기가 같고 성조만 다른 이음이 성조 표기가 소멸되면서 동음(同音)이 된 경우이고, 이음간섭에 의한 통합은 동자(同字) 내의 이음에 간섭받아 오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음(異音)으로 통합된 경우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탕액편 권1·2에 수록된 약재명 중에서 한자음으로 언해된 예들을 뽑아 특이한 한자음의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한자음의 용례

『동의보감』 탕액편은 많은 향약명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고유어 표기가 대부분이어서 한자음 표기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 중 탕액편 권1·2에 나타나는 한자음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장(醬), 유즈(柚子), 감즈(柑子), 비즈(榲子), 오미즈(五味子), 싱강(生薑), 대츄(大棗), 보도(葡萄), 석뉴(石榴), 님금(林檎), 독순(竹筍)
- (ㄴ) 원두[豌豆], 모과(木瓜), 명자(檳榔), 동화[白冬瓜], 가지[茄子], 근대[着蓬], 심[人參]

위의 예들에서 (1)은 국어 음운 현상에 의하여 자음이나 모음의 변화를 거쳐 현대의 한자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예이다. (2)는 현대의 한자음과 비교를 했을 때 한자음의 차이를 보이는 예들로 특이한 변화의 과정을 거친 예로 추정된다. 본고는 (2)의 한자음들을 중심으로 현대 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자음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원두[豌豆]<동의보감탕액편 권1:26b>

- 원두: 圓 ‘완두’의 옛말. 圓 온피며 술위에 실여 원두 바터 갖다가 아니 여러 들 스시에 가지로니<<칠대 13>>/豌豆 원두<<동의 1:26>>.
- 원두: 圓 『식물』 콩과의 두해살이 덩굴풀. 높이는 2미터 정도이며, 잎은 겹잎이고 잎 끝이 덩굴손이 되어 지주를 감고 올라가면서 자란다. 5월에 나비 모양의 흰색 또는 자색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두 개씩 피고 열매는 협과(莢果)로 식용한다. 잎과 줄기는 가축의 사료로 쓰고 지중해 연안 지역이 원산지로 전 세계에 분포한다. (Pisum sativum) <표준국어대사전>

약재명 ‘豌豆’는 『동의보감(탕액편)』에 ‘원두’로 언해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완두’로 기록되어 있어서 ‘豌’의 음이 ‘원’과 ‘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豌’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 豌: ①<광> 一丸切(?uan__豆也)
- ②<집> 烏丸切
-
- ③<훈> [완] 흘콩 一云 강남콩
-
- ④<전> [완] 西胡豆名(寒) 𧄸同
-
- ⑤<신> [완] 동부/광정이

2) 출전의 약호(略號)는 다음과 같다. 『광운』(1008):<광>, 『집운』(1039):<집>, 『훈몽자회』(1527):<훈>, 『천자문(석봉/광주)』(1575/1583):<천(석/광)>, 『신증유합』(1576):<유>, 『전운옥편』(1796?):<전>, 『신자전』(1915):<신>, 『한한대사전』(단국대학교):<한>

위의 자료를 보면 『훈몽자회』를 비롯한 조선조 한자음에서 ‘豌’은 한결같이 ‘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한자음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의보감』에 반영된 ‘豌豆’의 ‘원’음이 더 특이하게 여겨지는데, 문헌상에 ‘豌豆’의 예가 많지 않아 ‘원’음에 대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언해태산집요』에 나타나는 처방명 ‘紫苑茸湯’은 ‘자완용탕’으로 언해되어 있지만, ‘苑’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에는 ‘원’으로 나타난다³⁾. 이렇게 ‘원, 완’음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鴛, 阮, 蜿’ 등의 ‘원, 완’을 이중음으로 가지는 한자들에 이끌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만 가능할 뿐 정확하지 않으므로 ‘豌豆’가 『동의보감(탕액편)』에서 ‘원두’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쉽게 찾기가 어렵다.

(2) 모과(木瓜)<동의보감탕액편 권2:20b>

- 목과(木瓜): ㉠ 『한』 ‘모과’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맛은 시고 성질이 따뜻하며 각기, 갈증, 광란, 부종 따위에 쓰인다.
- 모과(木瓜): ㉡ 『식』 모과나무의 열매. 모양은 길둥글고 큰 배와 비슷하나 거죽이 좀 울퉁불퉁하다. 처음에는 푸르스름하다가 익으면서 누렇게 되며 맛은 몹시 시고 향기가 있다. 말린 것은 한방에서 ‘목과(木果)’라 하여 약재로 쓴다. ㉢명사10·명자04 [2] ·명차03. <표준국어대사전>

약재명 ‘木瓜’는 『동의보감(탕액편)』에 ‘모과’로 언해되어 있는데,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목과’와 ‘모과’ 두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木’의 개별 한자음은 ‘목’임에도 불구하고 언해 의서를 비롯한 조선 시대 문헌에는 ‘木瓜’가 대부분 ‘모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목단(牧丹)>모란, 삭약[芍藥]>사약, 목욕(沐浴)>모욕’ 등과 같이 ‘목과>모과’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⁴⁾. 그러나 언해 의서에 나타나는 ‘모과’가 다시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목과’로 수록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요컨대, 약재명 ‘木瓜’가 언해 의서에 ‘모과’로 나타나다가 현대의 한의학 용어에서 다시 ‘목과’로 나타나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국어 내부적인 음운 변화에 의하여 ‘木瓜’를 ‘모과’로 언해하여 사용하다가 현대에 와서는 원래의 한자음에 충실하게 재독음(再讀音)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명자(檳榔)<동의보감탕액편 권2:20b>

- 명사(檳榔): ㉠ 『식』 「1」=명자나무 [1] . 「2」=모과02(木瓜).
- 명자[檳榔]: ㉡ 『식』 풀명자. <표준국어대사전>

3) ㉠苑: ①<전> [원] 囹也禁-/大風-風(阮)

②<신> [원] 나라동산/왜풍

③<한> [원] ㉠於阮切: 무늬, 또는 문채(文彩)가 있는 곳/말라 시들다/손해를 보다/풀 이름, 苑과 통용, ㉡於袁切 (집운): 성(姓), [울]於勿切(字彙): 나무가 무성한 모양, 苑과 통용

4) ‘목과(木瓜)>모과’의 음운 변화에 초점을 두면 한자음의 일반적인 변화의 용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약재명 ‘槿櫨’는 『동의보감(탕액편)』에 ‘명자’로 언해되어 나타나는데,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사’와 ‘명자’ 두 형태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현대의 한자음이 ‘명자’와 ‘명사’로 나타나는 까닭은, 우선 단모음화에 기인한 ‘명자>명사’의 변화 과정을 통해 쉽게 ‘명자’의 예는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명사’의 예는 그 변화의 원인을 쉽게 찾기 어려운데, ‘櫨’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를 보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 櫨: ①<광> 側加切(tsa__似梨而酸或作粗)
- ②<집> 莊加切(說文果似梨而酢或作菴通作粗)
-
- ③<훈> [자] 명갓
-
- ④<전> [차正사] 果名又桴也鶻名--(麻) 查槎通
-
- ⑤<신> [차正사] 아가배/아가위
- ⑥<한> [사(차)]側加切: 풀명자나무/산사(山査)나무/뒤에 櫨로 썼다.

약재명 ‘槿櫨’의 한자음이 ‘명자’로 나타나는 것은 『훈몽자회』에 기록된 ‘櫨’의 한자음 ‘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대 한자음에서 ‘명사’로 나타나는 것은 『전운옥편』의 정음(正音) ‘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櫨’의 한자음은 『전운옥편』에 ‘차正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한자음에서는 ‘정음(正音) 사’가 정착되어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약재명 ‘槿櫨’가 현대 한자음에서 ‘명사’로 나타나는 것은 『전운옥편』의 ‘차正사’에서 정음(正音) ‘사’가 현대 한자음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한자음의 변화라면 ‘櫨’의 한자음은 ‘자>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櫨’의 한자음이 ‘사’로 나타나는 것은 『전운옥편』에 기록된 ‘查槎通’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4) 동화[白冬瓜]<동의보감탕액편 권2:29a>

- 동과(冬瓜): ㉠ 『식』 =동아01.
- 동아01: ㉠ 『식』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줄기는 굵고 단면이 사각(四角)이며 갈색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5~7개로 얇게 갈라지며 심장 모양이다. 여름에 노란 종 모양의 꽃이 피고, 열매는 호박 비슷한 긴 타원형이고 익으면 흰 가루가 앉는다. 과육, 종자는 약용한다. ≍동과01(冬瓜). (Benincasa hispida) [<동하<동화<구간>] <표준국어대사전>

약재명 ‘冬瓜’는 『동의보감(탕액편)』에 ‘동화’로 언해되어 나타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과, 동아’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자음의 차이를 보여준다. ‘瓜’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査[사] 察也水中浮木(麻) 槎同<전> / ▪槎[차正사] 桴也邪斫(麻) 查同<전>

▪ 瓜: ①<광> 古華切

②<집> 姑華切

③<유> [과] 외

④<전> [과] 蔓生蓴辰日種(麻)

⑤<신> [과] 외/참외/모과

⑥<한> [과]古華切: 박과 식물의 총칭/외 모양으로 된 장식물이나 의장·무기 따위의 기물/참외가 익다/
긱어내다/달팽이,蝸와 통용/땅 이름에 쓰인 글자

‘瓜’의 반절자는 ‘古華切’로 그 성모가 見/k-/모이므로 그 음이 ‘과’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위의 자료에서도 모두 ‘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탕액편)』의 약재명 ‘冬瓜’가 ‘동화’로 언해된 까닭은 무엇인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중고음에서 見모는 ‘ㄱ’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간혹 ‘ㅎ’으로 반영되는 예가 존재한다(이운동 1997:26). ‘冬瓜’도 그 경우에 속하는 예가 되겠지만 왜 ‘ㅎ’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瓜’ 또한 ‘𪛗’의 경우처럼 이중음을 가진 비슷한 예가 존재하므로⁶⁾ ‘冬瓜’의 경우도 ‘과, 화’를 이중음으로 가지는 비슷한 한자음의 유형에 이끌린 용례로 추정하고자 한다.

(5) 가지[茄子]<동의보감탕액편 권2:33a>

▪ 가자(茄子): ㉮ 「1」 『식』 =가지03. 「2」 궁중에서, 가지 모양의 노리개를 이르던 말.

▪ 가지(茄子): ㉮ 「1」 『식』 가짓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60~100cm이며, 온몸에 털이 나 있고, 잎은 어긋난다. 줄기와 잎은 검은 자주색이고 6~9월에 흰색이나 옅은 자주색 따위의 통꽃이 핀다. 열매는 식용한다. 인도가 원산지로서 세계 각지에 150여 종이 분포한다. ㄴ가자05(茄子)[1]. 「2」 「1」의 열매. 흔히 검은 자줏빛으로 긴 원통 모양이며, 익혀서 반찬으로 쓴다.

약재명 ‘茄子’는 『동의보감(탕액편)』에 ‘가지’로 언해되어 나타나지만,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자’가 ‘지’로 반영된 예는 ‘가지[茄子]<구급방언해 상:8a>,<역어유해 하:11a>’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⁷⁾, 이는 현대에까지 ‘가지’의 음이 전승되고 있다.

한국 한자음 ‘자’는 대부분 ‘즈’로 언해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지[茄子]’에서 ‘지’음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주목된다. 먼저 ‘자’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𪛗: 화(駕), 과(馬) / 𪛗: 𪛗(蟹), 화(俗과(駕))

7) ▪ 가지[茄子]<역어유해 하:11a> / ▪ 가짓불휘, 가짓줄기[茄子莖]<구급방언해 상:8a>

▪ 子: ①<광> 牀史切(止)

②<집> 祖似切 / 將吏切

③<훈> [즈] 아들 |<천(석·광)> [즈] 아들/아드 |<유> [즈] 아들

④<전> [즈] 息也嗣也男稱爵名支名困敦夜半(紙) 慈通

⑤<신> [자·즈] 아들/자식/당신/어르신네/부인호칭(임자)/사람/첫째
디지/자시/자벼슬/칠/기를/열음/열매/알/慈通

⑥<한> [자]①卽里切: 아들과 딸, 자식/…… /남자에 대한 미칭/여자에 대한 칭호/스승에 대한 존칭/대제2인칭을 나타낸다/…… /동물의 새끼/동물의 알/식물의 과실이나 씨/번식하다/열매를 맺다/작고 단단한 덩어리나 알갱이 형태의 물건/…… /첫번째 지지/오행에서 수(水)에 속하며, 십이지의 띠에서는 쥐에 속한다/…… /성(姓), ㉠zi: 접미사/㉡시제나 동태(動態)를 나타낸다. 어기조사

‘子’의 ‘지’음은 중국의 운서 『집운(集韻)』의 반절자 ‘將吏切’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국 한자음에서는 한결 같이 ‘즈’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지섭(止攝)의 치음자(齒音字)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한국 한자음의 특이한 반영 양상인데, 치두음(齒頭音)과 치상음(齒上音) 아래에서 止섭의 3등운은 ‘이’가 아닌 ‘오’로 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한국 한자음에서 지섭(止攝)의 치음자(齒音字)들이 ‘오’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근대 한어음의 영향으로 ‘ㅣ>·’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의가 있으므로⁸⁾, ‘지’를 근대 한어음 이전에 반영된 한자음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개별 한자음으로서의 ‘子’는 한국 한자음에서 예외없이 ‘즈’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약재명 ‘지지[梔子]’와 ‘가지[茄子]’ 정도의 극소수의 어휘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 한자음으로서의 ‘子’는 ‘즈’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어휘에서 ‘子’가 ‘지’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중국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개별 한자음으로서 ‘子’의 특이한 문제라기보다는 ‘梔子’나 ‘茄子’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당시의 중국음이 그대로 차용된 어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별 한자음으로서의 ‘子’는 한국 한자음에서 항상 ‘즈’로 언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음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약재명 ‘茄子’가 『동의보감(탕액편)』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약재명을 차용할 당시 중국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용례이기 때문이며, ‘가지[茄子]’가 조선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음이 ‘가지’로만 언해되고 ‘가즈’ 정도로 다시 독음된 적이 없는데, 이는 ‘茄子’의 차용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아주 보편화되어 이미 고유어처럼 실생활에서 자리매김을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언해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둑알의 흰 것과 검은 것을 가리키는 ‘白子, 黑子’를 <표준국어대사

8) 止섭의 치음자들에서 ‘오’로 반영되는 것은 여러 논의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수당 절운음보다 더 고층인 상고음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박병채 1971, 최남희 1996·2005), 다른 하나는 근대 한어음의 영향으로 ‘ㅣ>·’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이돈주 1990, 권인한 1997, 김무림 2005).

전>에는 ‘백지, 흑지’로 옮겨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⁹⁾, 이 역시 개별 한자음으로서의 ‘子’보다는 차용어휘로서의 특수한 한자음 양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근대[菘蓴]<동의보감탕액편 권2:35a>, <역어유해 하:11b>

- 근달: 𦉑 『식』 =근대01.
- 근대: 𦉑 『식』 명아쫂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1~1.5미터이며, 잎은 두껍고 연하다. 초여름에 누런빛을 띤 녹색 잔꽃이 이삭 모양으로 많이 핀다. 줄기와 잎은 식용한다. 유럽 남부가 원산지라 밭에서 재배한다. ㄴ근달02(菘蓴)·부단초(不斷草)·비트03·참채03(菘菜). (Beta vulgaris var. cicla) <표준국어대사전>

약재명 ‘菘蓴’은 『동의보감(탕액편)』에 ‘근대’로 언해되어 나타나지만,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근달, 근대’로 기록되어 있다. ‘菘蓴’의 현대 한자음은 ‘근달’이므로 ‘근대’와는 한자음의 차이를 드러낸다. ‘菘蓴’은 『동의보감(탕액편)』 외에 『역어유해』에서도 ‘근대’로 나타나는데 ‘근달’과 ‘근대’의 표음적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먼저 ‘菘蓴’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菘: ①<광> 居筠切(kjuen), 舉云切(kjuən__牛藻菜也), 渠殞切(gjuen__牛藻也)
- ②<집> 俱倫切(艸名爾雅菘牛藻藻葉大), 於云切·拘云切(艸名牛藻也), 苦碩切(艸名說文菘牛藻也似藻葉大)

③<훈> [군] 근대

④<신> [군] 말마름

⑤<한> [군] 舉云切(文)·渠隕切(軫): 마름의 일종/맷히다, 엉기다, 窘과 통용, 藎과도 통용된다고 한다/경외하다, 威와 통용

- 蓴: ①<광> 唐割切(dat__馬烏草名)
- ②<집> 陔葛切(艸名馬烏也)

③<훈> [달] 근댓

④<전> [달] 草名馬烏菜名蓴-(曷)

⑤<신> [달] 길경이

⑥<한> [달] 唐割切: 길경이

9) ▪백지[白子]: 𦉑 바둑돌의 흰 알. ㄴ백02(白) 「2」.<표준국어대사전>

▪흑지[黑子]: 𦉑 바둑돌의 검은 알. ㄴ흑02(黑) 「2」·흑석(黑石) 「2」.<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자료에 따르면 ‘菴蓬’의 한자음은 ‘군달’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언해 의서에는 ‘근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훈몽자회』에서는 ‘菴蓬’을 ‘근대 군, 근뎃 달’로 기록하고 있어서 ‘菴蓬’은 오래 전부터 ‘근대’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菴蓬’이 왜 언해서에서 ‘근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菴蓬’과 ‘근대’의 대응 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菴’과 ‘근’의 대응은 한자음의 유사성으로 그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菴’의 개별 한자음은 한결같이 ‘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과는 차이가 있지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유사음자에 의한 이표기들의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蓬’과 ‘대’의 대응 관계는 고대 지명 표기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 지명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大丘縣 本達句火縣 景德王改稱 今因之<삼국사기 권34, 지리1>

위의 신라 지명 표기는 ‘達句火=大丘’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대구’ 지명의 이표기이다.

권인한(2002:29~30)에서는 ‘達句火’에서 ‘大丘’로의 변화는 ‘달>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8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達→大’의 교체는 중고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達’이 ‘대’음과 대응 관계를 보이는 것은 중고음의 영향에 의하여 ‘r>j’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이중 한자음의 용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r>j’로 변화된 한자음이 본래의 음과 함께 공존함으로써 이중음이 된 예들이 보인다¹⁰⁾.

‘蓬’은 ‘達’과 같은 반절자를 가지는 한자이므로, ‘蓬’ 또한 ‘대’음과의 대응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7) 심[人參]<동의보감탕액편 권2:37b>

- 심: 罽 『옛』 ‘인삼02(人蔘)’의 옛말.
- 인삼(人蔘): 罽 『식』 두릅나뭇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60cm 정도이며, 잎은 줄기 끝에 서너 개씩 돌려나고 손 모양 겹잎이다. 봄에 녹황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붉게 익는다. 뿌리는 희고 비대한 다육질인데 강장제로 귀중히 여겨진다. 깊은 산에 야생하거나 밭에서 기르는데 한국의 강원·경기·평남·평북·함남,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능삼09(蔘)[2] <표준국어대사전>

약재명 ‘人參’은 『동의보감(탕액편)』에 ‘심’으로 언해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인삼’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심’과 ‘삼’의 한자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¹¹⁾.

얼핏 보기엔 ‘人參’과 ‘심’의 한자음 비교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 다른 언해 의서들에는 ‘인삼’의 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동의보감(탕액편)』·『구급간이방』에는 ‘심’의 표기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止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深섭의 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參’에 대한 운서나 옥편류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 介(개, 갈), 稽(기, 갈), 靄餽(애, 알), 稅脫(태, 탈), 害(해, 할), 煞繳(쇄, 살) 등(최미현, 2006ㄴ)

11) ‘參’의 표기는 현대의 ‘蔘’ 표기와 차이가 나지만 옛 문헌에는 ‘人參’으로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參: ①<광> 所今切(參星亦姓世本云祝融之後又蒼舍切) / 楚簪切 / 倉舍切 / 蘇甘切
- ②<집> 倉刀切 / 躡簪切 / 初簪切 / 倉舍切 / 蘇甘切 / 桑感切/七感切/七紺切

③<유> [참] 참예

④<전> [삼] 數也同三, [참] 謀度間廁干與相諷-錯-乘人名曾-(覃) 鼓曲(勸) 摻同, [습] 宿名藥名姓也叢立--同蓼, [흠] 不齊-差(侵)

⑤<신> [삼] 셋/석, [참] 참여할/썰/아블/더블/보일/복장단, [삼-습] 썩들어설/삼:人參, [참] -差不齊: 충날 /가지런하지안이할/길고저를

‘參’의 ‘심’음은 『광운』의 반절자는 ‘所今切’에서 찾을 수 있다. ‘參’은 深섭의 侵운 3등 개구 B류에 속하는데, 그 반영 양상은 止섭의 경우처럼 치두음(齒頭音)과 치상음(齒上音) 아래에서 ‘으’가 반영된 ‘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 한자음의 특징이며, ‘參’은 ‘습’으로 반영되게 된다. 그러나 약재명 ‘參’이 ‘습’이 아닌 ‘심’으로 언해되어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지[茄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용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약재명 ‘人參’을 차용할 때 深섭의 중국음을 그대로 차용하였기 때문에 ‘인습’이 아닌 ‘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나중에 한국 한자음으로 다시 독음되어 ‘인습’의 표기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인습>인삼’의 변화를 거쳐 현대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두찬(2003:49)에서는 ‘蓼(습)’은 ‘심팠다, 심마니’ 등과 관계가 있다면 이 글자가 고음(古音)으로 ‘심’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3. 마무리

조선 시대의 언해서(諺解書)에 반영된 한자음들을 살펴보면 현대의 한자음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동의보감(탕액편)』에 수록된 한자음과 현대 한자음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한자음의 변화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한자음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국어 음운 현상이 한자음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지만, 본고에서는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한자음의 변화 용례를 찾고 그 원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의 대상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전반적인 한자음의 변화 양상 및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많이 느끼므로 꾸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문헌 자료에 남아 있는 한자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현대 한자음과 꾸준히 비교 검토하여 한자음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 한자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논저]

- 권용경(2001), 救急簡易方諺解,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語學篇 解說』, 서울대학교 규장각.
- 권인한(1997),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研究』, 태학사, pp.283~344.
- 권인한(2002), 俗地名과 국어음운사의 한 과제, 『국어학』 40, pp.21~41.
- 권인한(2005),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김무림(2006), 현대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pp.177~214.
- 김중권(1995),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연구』 11집, 서지학회, pp.207~243.
- 남광우(1973/1984), 『朝鮮(李朝)漢字音研究』, 일조각.
- 남광우(1995), 『古今漢韓字典』, 인하대학교 출판부.
- 문선규(1969/1994), 이조초 이래의 한자 음운 변화에 대한 일고찰, 『문교부학술보고서』 17. 『한어음운논집』(문선규·1994·신아사) 재록.
- 박영섭(2006), 『태산집요연해 한자 대역어 연구』, 박이정.
- 박영섭(2006), 『두창경험방·납약증치방연해 한자 대역어 연구』, 박이정.
- 윤장규(2004), 『鄕藥採取月令』 향명의 몇 해독, 『한국어의 역사』, 보고서, pp.185~210.
- 李基文(1963), 『國語表記法の 歷史的研究』(韓國研究叢書 18), 韓國研究院.
- 李崇寧(1971), 17世紀國語의 音韻史的 考察, 『東洋學』 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pp.49~85. 『李崇寧國語學選集(3)』(1988·민음사)에 재록. pp.249~296.
- 이윤동(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 형설출판사.
- 이충구(2004), 漢字音 統合 考, 『한국어의 역사』, 보고서, pp.93~118.
- 정경일(2006), 근대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pp.95~176.
- 정두찬(2003), <ㄹ, 으>에 대하여, 『韓國語研究』1, 한국어연구회, 태학사, pp.27~55.
- 조면휘·박현국(1995), 古代 婦産科의 醫史學的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9.
- 최미현(2006ㄱ), 한국 한자음의 이중음 연구 -『全韻玉篇』의 복수 한자음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미현(2006ㄴ), 이중 한자음에 나타나는 입성운미/-t/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pp.249~265.
- 최미현(2007), 「언해태산집요」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9, 새얼어문학회, pp.127-145.
- 최미현(2008), 「구급간이방」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 『우리말연구』 22, 우리말학회, pp.83-108.

[자료]

- 『救急簡易方諺解』(1982, 단국대학교 출판부)
- 『救急簡易方 三·六』(1997, 홍문각)
- 『救急簡易方 七』(디지털한글박물관)
- 『동의보감』 탕액편 1~3(디지털한글박물관)
- 許浚(2001), 『東醫寶鑑』, 남산당.
- 강신항 편(1993/2000), 『규장전운·전운옥편』, 박이정.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3), 『전운옥편』, 동화인쇄공사.
- 동양학연구소 편(1971/1995), 『훈몽자회』, 단국대학교 출판부.

동양학연구소 편(1972/2002), 『신증유합』, 단국대학교 출판부.

동양학연구소 편(1973/1984), 『천자문』, 단국대학교 출판부.

동양학연구소 편(1999~), 『漢韓大辭典』1-12, 단국대학교 출판부.

민중서림 편집국 편(1966/1998),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정선지역어의 성조소와 그 표기

최영미 (건국대학교)

1. 머리말

이 연구는 정선지역어 높낮이의 음향음성학적 특성과 청취음성학적 특징을 살펴, 성조소를 결정하고, 성조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지역은 지리적으로 영서지역에 속하지만, 언어적으로 영동지역과 닮아 평창, 영월 등과 함께 서남영동방언권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익섭, 1981). 특히, 운소체계는 성조에 의한 대립을 보여주는 지역과 음장에 의한 대립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양분되어 기술되고 있는데, 정선지역은 강릉, 삼척, 영월 등과 같이 성조의 대립을 보여주는 지역에 속한다.

성조 연구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쟁점 중의 하나가 해당 방언의 성조소가 몇 개인가?이다. 이 문제는 현대 음운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조에 대해 연구한 고노(1945, 1951)과 허웅(1954, 1955)에서부터 대립되어 온 문제이다. 또한 성조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어의 성조소 목록을 확인하고 그 체계를 밝히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조연구에 있어서 성조소의 기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선행 연구

성조소는 음의 높이(pitch)가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성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최소대립어를 제시하여 연구대상어의 성조소를 인정한다. 또한 성조소의 표기는 성조론자가 해당 방언의 음향적인 실질에 대한 인식 층위의 표상을 바탕으로 성조 기호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강원도 성조 방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성조소와 그 표기가 연구자들마다 다른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소	성조소 개수	연구자(대상언어)	최 소 대 립 어		
			馬	斗	言
1. 일원론	I. 3성조	문효근(강릉, 옥계, 삼척, 호산)	H(3)	L(1)	MM(2+)
	II. 3성조	김차균(강릉)	H	M	R
		김차균(삼척)	H	M	H
		김봉국(삼척, 정선)	H	L	R
		최영미(삼척)	H	L	R
	III. 3성조	김주원(강릉, 삼척, 동해)	0형	1형	2형
	IV. 2성조	최명옥(영월)	HL	LH	L+H
최명옥(삼척, 명주)		HL	HH	L+H	
2. 이원론	V. 4개	이익섭(강릉, 삼척)	저단 : 손(手), 코, 질(道) 저장 : 밤(栗), 기(蟹), 개(犬) 고단 : 개(鬘의), 기(旗), 가왜(剪) 고장 : 밤:에, 보:, 잔:다, 조(紙)		
	윤종남(강릉)				
	이상녀(삼척)				

(1)을 보면, 운소로써 성조만 인정하는 일원론이 4가지 유형이 있고, 운소로써 성조와 음장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론이 1가지가 있다. 이원론에 의한 운소의 기술은 이익섭(1972, 1981)에 처음 제시되고, 윤종남(1987), 이상녀(1991)에서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음장과 성조를 모두 고려하여 운소를 기술할 때, /저단 : 저장 : 고단 : 고장/의 4항 대립을 보여주는 최소대립어를 제시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운소를 기술하는 것이 두 가지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간결성, 합리성, 일관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원론적 방법으로 정선지역어의 운소를 기술하는 것은 이 논문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

일원론으로 운소를 기술한 방법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기술상의 차이는 성조의 음성적 실질이 달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연구자마다 음성적 실질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표시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말(馬)의 성조를 높은 소리(H)로 기술하는 점은 일치할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이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말(斗)의 성조를 M(L)로 보느냐 아니면 H로 보느냐이다.

둘째, 말(言)의 성조를 복합성조로 보느냐 아니면 단일 성조로 보느냐이다. 만일 단일성조로 본다면, 수평조와 상승조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이다.

첫째 문제에서 말(斗)의 성조를 M 또는 L로 보는 견해는 문효근(1974), 김차균(2006), 김봉국(1998, 2002), 최영미(2001, 2003) 등인데, 경남방언의 성조체계(고(馬), 중(斗), 저(言))를 고려하여 /M/으로 표기한 것과 강원방언의 성조체계를 고려하여 /L/로 표시한 것은 다르지 않다. 반면에 말(斗)의 성조를 H로 파악하는 견해는 최명옥(1998)과 김주원(2003)인데, 최명옥(1998)은 말(斗)이 조사와 결합할 때, 항상 [H]로 소리난다는 점과 중세국어에서 말(斗)이 거성인 점을 들어 말(斗)의 성조를 /H/로 파악하였다. 즉, 말(斗)이 주격조사와 통합될 때, 말(馬)보다 낮게 들리는 경향이 있으나 말(斗)의 성조를 /M/ 또는 /L/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또한, 김주원(2003)도 말(斗)의 성조를 첫 두 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는 어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¹⁾

둘째 문제에서 말(言)의 성조를 복합성조로 파악하는 최명옥(1998)은 저조(L)와 고조(H)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문효근(1974), 김차균(2006), 김봉국(1998, 2002), 김주원(2003), 최영미(2001, 2003) 등은 말(言)의 성조를 하나의 단일 성조소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에 문효근(1974)와 김차균(2006:삼척방언)에서는 말(言)의 성조를 수평조로 파악했다. 문효근(1974)은 가운데 토남(반복수평조, MM, 2+)으로 보았고, 김차균(2006)은 삼척방언에서 고조의 음역에서 길게 실현되고 끝이 약간 상승하는 성조인 /H/로 보았다. 김봉국(1998, 2002), 김주원(2003), 최영미(2001, 2003) 등은 말(言)의 성조를 저조의 음역에서 고조의 음역까지 상승하는 /R/로 보았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한 단어가 조사 혹은 어미와 결합하여 한 어절을 이룰 때, 각 음절의 높낮이의 음성학적 특성과 음운론적 대립관계를 파악하여 성조소를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선지역어의 성조소를 결정하고, 성조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최소대립어 말(馬) : 말(斗) : 말(言)의 높낮이 실현

1) 김주원(1991)과 김주원(2000)은 액센트분석법에서 음조형을 예측하기 위한 핵 액센트와 김영만(1974, 1986, 1994 등)의 초분절이론에서 어절의 각 음절에 나타나는 성조관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표기법을 개발하여 경상도 성조형을 0형, 1형, 2형으로 분류했다. 0형은 한 어절 내의 어느 한 음절에 고조액센트가 있는 유형이고, 1형은 첫 두 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는 어형이고, 2형은 첫음절이 상승조로 실현되는 어형이다. 김주원(2003)은 이 성조형에 따라 동해안방언(강릉, 양양, 동해, 삼척 등)의 성조를 기술하고 있다.

을 음성학적으로 비교하고, 음운론적 대립관계를 파악하겠다.

3. 정선지역어 높낮이의 음성학적 실현

3.1. 음향음성학적 높낮이의 특징

정선지역어 높낮이의 음성적 실현을 보다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음성분석을 실시한다. 이 실험의 목적은 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F0값이 차이가 있는가?

둘째, {말(斗)+이}에서 각 음절의 높낮이가 LH인가 아니면 HH인가?

음향신호 분석에 필요한 실험 정보는 (2)와 같다.

(2)

가. 제보자 : 유춘옥, 여, 78, 국졸, 농업, 정선군 동면 석곡1리(출생지: 남면 광덕리).

나. 시 료 : {말(馬) : 말(斗) : 말(言)} +{이, 도, 부터}

다. 녹음기 : Sony PRO-II DAT(표본추출률 44.1k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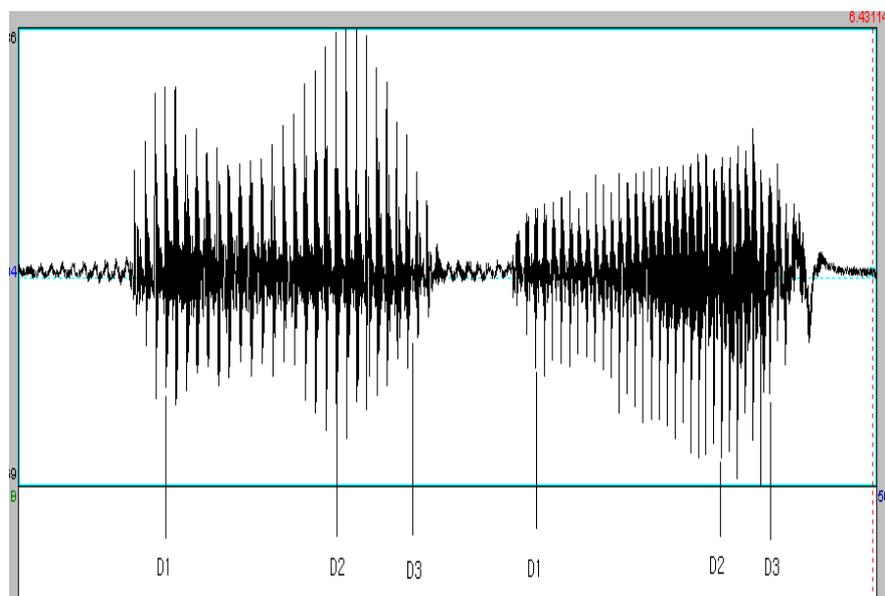
라. 마이크 : GLORIA GSe-800BG

마. 양자화 : CSL 4300B를 사용함. (표본추출률은 22050Hz이며, 16비트로 했다)

사. 분석기 : Praat 4.1

아. 검출지점 : 각 음절마다 3지점을 아래와 같이 기본주파수(F0)를 잰다.

<그림1> 기본주파수 검출 지점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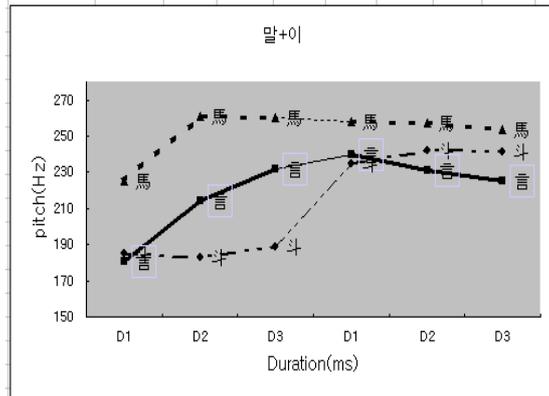
3.1.1. {말+이}의 분석 결과.

단어 {말}이 토씨 {-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각 음절의 pitch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표 1> {말+이}의 기본주파수(Hz)

단어 \ 높낮이	말			이		
	D1	D2	D3	D1	D2	D3
馬	225	261	260	258	257	254
斗	185	183	189	235	242	241
言	181	214	232	240	231	225

<그림 2> {말+이}의 높낮이 실현



<표 1>과 <그림 1>에서 {말+이}의 높낮이의 실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말(馬) : 말(斗) : 말(言)의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다. 1음절 {말}의 F0값은 말(馬)이 모든 검출 지점에서 높고, 말(斗)는 모든 검출지점에서 낮으며, 말(言)은 D1에서는 말(斗)보다 낮은 F0값을 가지나 D2, D3 지점에서는 말(斗)보다는 F0값이 높지만 말(馬)보다는 F0값이 현저히 낮다.

또한, 1음절 {말}과 2음절 {이}의 F0값을 비교해 보면, {말(馬)+이}는 D1 지점을 제외하면, 1음절의 각 검출지점의 F0값이 2음절의 각 검출지점의 F0값보다 높으나, {말(斗)+이}는 1음절의 각 검출지점의 F0값이 2음절의 각 검출지점의 F0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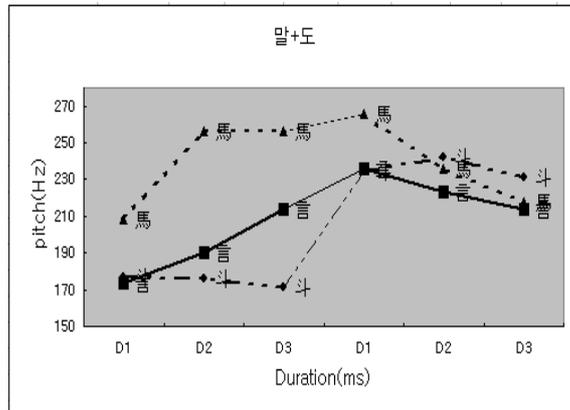
3.1.2. {말+-두}의 분석 결과.

단어 {말}이 토씨 {-두}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각 음절의 pitch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표 2> {말+두}의 기본주파수(Hz)

단어 \ 높낮이	말			두		
	D1	D2	D3	D1	D2	D3
馬	208	256	256	266	236	218
斗	177	176	171	234	242	231
言	174	190	214	236	223	214

<그림 3> {말+두}의 높낮이 실현



<표 2>과 <그림 3>에서 {말+두}의 높낮이의 실현을 알 수 있다. 말(馬) : 말(斗) : 말(言)의 높낮이를 비교하면, {말+이}와 같은 음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1음절 {말}과 2음절{두}의 F0값을 비교해 보아도, {말+이}와 같은 음성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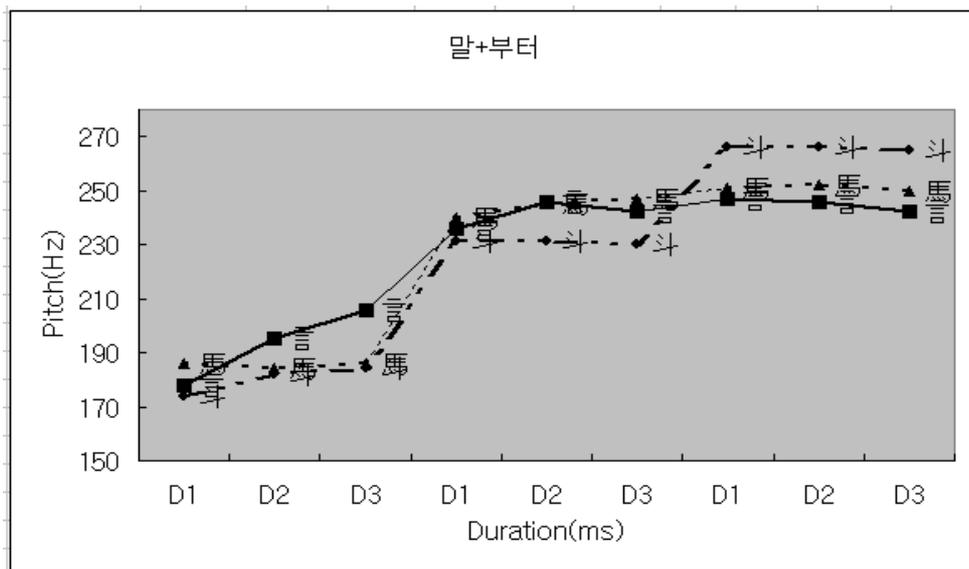
3.1.3. {말+-버텀}의 분석 결과.

단어 {말}이 토씨 {-버텀}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각 음절의 pitch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표 3> {말+버텀}의 기본주파수(Hz)

단어 \ 높낮이	말			버			텀		
	D1	D2	D3	D1	D2	D3	D1	D2	D3
馬	186	184	186	240	245	247	251	252	250
斗	174	182	184	231	231	230	266	266	265
言	178	195	206	236	246	247	247	246	242

<그림 4> {말+버텀}의 높낮이 실현



<표 3>과 <그림 4>에서 {말+버텀}의 높낮이의 실현을 알 수 있다. 먼저, 말(馬) : 말(斗) : 말(言)의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 1음절 {말}(馬)의 F0값은 말(馬)이 토씨 {-이}와 {-두}와 결합했을 때와는 달리 말(斗)과 비슷하게 낮다. 즉, D1 검출지점에서는 말(馬)의 F0값은 가장 높지만, 토씨 {-이}와 {-두}와 결합했을 때의 F0값보다는 현저히 낮다. 뿐만 아니라, D2, D3 검출지점에서의 말(馬)의 F0값도 마찬가지이다. 말(斗)의 F0값은 모든 검출지점에서 가장 낮으며, 말(言)의 F0값은 D1에서는 말(斗)보다 약간 높은 F0값을

가지고, D2, D3 검출지점에서는 말(斗)과 말(馬)보다는 F0값이 높다.

또한, 1음절 {말}, 2음절 {버}, 3음절 {텀}의 F0값을 비교해 보면, {말(馬/斗/言)+버텀}의 각 음절의 모든 검출지점에서 1음절의 F0값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2음절이 높고, 가장 높은 F0값을 갖진 것이 3음절이다.

3.1.4. 음향음성학적 높낮이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정선지역어의 음향신호를 분석하여, 말(馬) : 말(斗) : 말(言)이 토씨 {-이, -두, -버텀}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F0값의 차이가 있는지와 {말(斗)+이}의 각 음절의 높낮이가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3-4)와 같다.

(3)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F0값이 차이가 있는가?

첫째, 말(馬)은 토씨 {-이, -두}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각 검출지점에서 F0값이 말(斗)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러나, 토씨 {-버텀}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는, 각 검출지점에서 말(斗)보다는 약간 높지만, 토씨 {-이, -두}와 결합할 때의 F0값보다는 현저히 낮다. 따라서 말(馬)의 높낮이는 토씨 {-이, -두}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H]로 표시할 수 있고, 토씨 {-버텀}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는 [M]²로 표시할 수 있다.

둘째, 말(斗)은 토씨 {-이, -두, -버텀}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검출지점 D1의 f0값을 제외하면 모든 검출지점의 F0값이 말(馬)과 말(言)보다 낮다. 따라서 말(斗)의 높낮이는 토씨 {-이, -두, -버텀}과 결합할 때, [M]³으로 표시할 수 있다.

셋째, 말(言)은 토씨 {-이, -두, -버텀}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검출지점 D1의 F0값은 말(斗)보다 약간 높거나 낮고, 검출지점 D2, D3의 F0값은 점차 상승하여 말(斗)보다는 높으나 말(馬)보다는 현저히 낮다. 즉, 정선지역어에서 말(言)은 상승의 특징을 가지나, 상승의 폭이 말(馬)의 음역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말(斗)의 음역에서 실현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말(言)의 높낮이는 [M]으로 표시한다.

정리하면,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F0값이 음성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F0값의 차이를 반영하여, 말(馬) : 말(斗) : 말(言)의 높낮이를 각각 [H], [M], [M]로 표시한다.

(4) {말(斗)+-이}의 각 음절의 높낮이가 LH인가 아니면 HH인가?

첫째, {말(馬)+-이, -두}의 결합에서 1음절 {말}(馬)은 2음절 {-이, -두}보다 높으나 {말(馬)+-버텀}의 결합에서 1음절 {말}(馬)은 제2음절 {-부}와 제3음절 {텀}보다 낮게 실현된다. 따라서 {말(馬)이, 말(馬)두}의 높낮이는 [HM]으로 표시할 수 있고, {말(馬)버텀}은 [MHH]로 표시할 수 있다.

2) {말(馬)+-부터}의 성조는 방점법으로 표시하면 말부·터이다. 즉, 성조형으로 표시하면 /HHM/이고, 이것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면서 규칙($H_2M^0 \rightarrow \{[M_1HM^0], [MH_1M^0]\}/\#-\#$)을 적용받아 [MHM]이 된다.

3) 최영미(2001, 2003)에서 삼척지역어의 성조를 연구할 때, 낮은 음조를 [L]로 표시했다. 그러나 경남방언에서 상성형이 현저히 낮은 음역에서 상승을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M]을 설정하는 허웅(1954), 김차균(1977, 1988)의 표시를 따른다. 물론 정선지역어는 높낮이의 범위는 낮은 음조를 [L]로 설정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국어 성조체계를 하나의 표시방법으로 통일된 기술을 위해 표시방법을 바꾼다.

둘째, {말(斗)+-이, -두, -버팀}의 결합에서 1음절 {말}은 {-이, -두, -버팀}의 각각의 음절보다 낮다. 따라서 {말(斗)이, 말(斗)두, 말(斗)버팀}의 높낮이는 각각 [MH, MH, MHH]로 표시할 수 있다.

셋째, {말(言)+-이, -두, -버팀}의 결합에서 {-이, -두, -버팀}의 각 음절은 1음절 {말}의 검출지점 D3보다 약간 높거나 낮다. 따라서 {말(言)이, 말(言)두, 말(言)버팀}의 높낮이는 각각 [MH], [MH], [MHH] 표시할 수 있다.

정리하면, {말(斗)+-이}의 각 음절의 높낮이는 음절의 F0값을 비교한 결과를 따르면, [LH]로 판단된다. 다만, 문장에서 정보초점이 놓일 때는 [HH]로 실현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정선지역어의 음조형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4> 말(馬) : 말(斗) : 말(言)의 음조형

단어 \ 토씨	-이	-두	-버팀
말(馬)	[HM]	[HM]	[MHH]
말(斗)	[MH]	[MH]	[MHH]
말(言)	[MH]	[MH]	[MHH]

3.2. 청취음성학적 높낮이의 특징

성조방언에서 성조를 높낮이, 길이, 세기의 복합적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높이와 길이의 복합으로, 또는 높낮이와 세기의 복합으로 보거나 관계없이 높낮이는 성조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말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청취등급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⁴⁾

국내에서도 방언 성조의 높낮이 분석에 대한 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을 개발은 김차균(1977)⁵⁾, 김차균(2000)⁶⁾, 김차균 외(2008) 등이 있다. 김차균 외(2008)는 김차균(1977)과 김차균(2000)에서 제시한 음

4) 바크(Bark) 척도, 멜(mel) 척도, ERB(Equivalent rectangular bandwidth) 척도, 반음(semi-tone) 척도. Qt 척도(Quarter tone scale, 4분음 척도) 등이 있다.

5) 김차균(1977)은 경상도 방언 성조 실현의 상대적인 음역(register)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여기서 [1]을 말소리 분석을 위한 참조고도(reference pitch)라 하고, 피아노의 88개의 건들 가운데서 왼쪽에서 25번째 건인 A-음(라-음)이 내는 소리인 110Hz에 고정하면, [15]는 왼쪽에서 34번째 건인 C-음(미-음)이 내는 소리인 164.8Hz가 된다. 즉, 15단계의 음조분석법이다. 최저음을 라-음에 고정시키고, 최고음을 미-음에 고정시키는 근거는 김해와 창원 방언의 방대한 성조자료로부터 얻은 직관이다(김차균, 2006:82 참조).

성조	음운론적 등급	음성학적 등급
L	[1]~[3]	[1]~[5]
M	[4]~[11]	[6]~[10]
H	[12]~[15]	[11]~[15]

6) 김차균(2000)은 김차균(1977)에서 제시한 15단계 음조분석법을 확장시켜 “동적인 운율이론”을 제시한다. 동적인 운율이론은 경상도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말 방언 음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음조를 15단계로 나눈 것은 김차균(1977)과 같고, 분석과정을 개선한 것이다. 그 분석절차는 음향 신호를 녹음하여, 어절단위로 소리의 높낮이(F0값)를 음절별로 Hz로 측정하여, 각 음절의 F0값을 피아노 건반이 갖는 고유한 주파수로 환산한 다음, 그것을 음악의 조율 김과 같은 방법으로 15등급을 조정하여 그 조정된 수치와 토박이의 심리적인 등급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등급의 설정 방법을 발전시키고, Q-tone 척도를 제시하여, 말소리의 높낮이의 청취등급을 한층 더 객관적으로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Qt 척도(Quarter tone scale)⁷⁾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Qt 척도는 음향물리학적 단위인 Hz를 지각 등분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첫째,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Qt값이 차이가 있는가?⁸⁾이다.

둘째, {말(斗)+이}에서 각 음절의 Qt값이 차이가 있는가?⁹⁾이다.

이 실험의 절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 실험 과정

가. 어절의 각 음절의 F0값을 구한다. 이때, 각 음절의 F0값은 모음의 안정구간에서 측정하는데,

3.1. 실험에서 검출지점 D2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한다.

나. F0값을 Qt 척도로 바꾸어 Qt 사슬¹⁰⁾을 만든다.

다. Qt 사슬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조정 Qt 사슬¹¹⁾을 만든다. 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상성형과 거성형은 [4]로 조정을 하고, 평성형은 [9]로 조정을 하고, 평복형은 [4]로 한다.¹²⁾

3.2.1 {말+-이}의 청각적 높낮이

{말(馬) : 말(斗) : 말(言)}이 토씨 {-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느끼는 높낮이의 청취등급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5>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馬)+이}는 Qt 사슬이 30-39이고, 조정 Qt 사슬은 9-8이며, 조정 Qt값이 고조의 음역에 있다.

즉, 사람들은 1음절 {말}(馬)을 2음절 토씨{-이}보다 고음으로 인식하며, 음조형은 [HL]로 표시할 수 있다.

[1]~[3]은 저조의 음역[L]이고, [4]~[11]은 중조[M]의 음역이고, [12]~[15]는 고조의 음역[H]이다(김차균, 2006:1141 참조).

7) Qt 척도(Quarter tone scale, 4분음 척도)는 충남대학교 김차균 교수와 성철재 교수 그리고 충북대학교 권오욱 교수가 공동 개발한 컴퓨터 개발프로그램인 KPhonetica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척도이다. 이 차는 높낮이에 대한 청취 등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음향물리적인 고저의 단위인 Hz를 지각 등분(perceptual degree)인 Qt 척도로 전환하는 기능도 있다. 이 차의 개발과 더불어 종래에 주관적인 감각으로 말소리의 고저를 기술하던 억양, 음조, 성조 등의 학문을 21세적인 측정과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8) 만약 Qt값이 차이가 있다면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소리로 인식한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말}과 {이}의 Qt값을 비교하여, 각 음절의 음조가 [MH] 또는 [HH]인지 파악한다.

10) Qt 사슬은 현장에서 녹음한 소리를 음성분석하여 얻은 F0값(Hz)를 Qt 척도로 전환한 수치의 연속체이다.

11) 조정 Qt 사슬은 음악에서 조바꿈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만든 Qt 수치의 연속체이다.

12) 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은 랑그적인 음조형을 토대로 한다. 랑그적인 음조형은 각 방언의 토박이의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음조형이다. 김차균(2006:1154-1159)에서는 성조방언의 랑그적인 음조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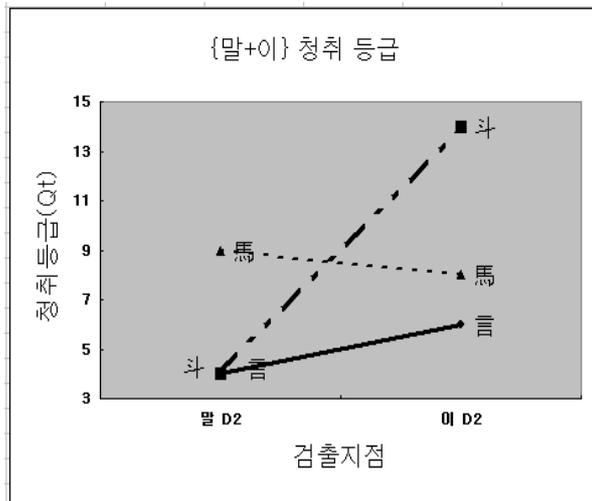
둘째, {말(斗)+이}는 Qt 사슬이 17-27이고, 조정 Qt 사슬은 4-14이며, 조정 Qt값이 중조의 음역에 있다. 사람들은 1음절 {말}(斗)을 2음절 토씨{-이}보다 낮게 인식하며, 음조형은 [LH]로 표시할 수 있다.

셋째, {말(言)+이}는 Qt 사슬이 23-25이고, 조정 Qt 사슬은 4-6이며, 조정 Qt값이 중조의 음역에 있다. 즉, 사람들은 1음절 {말}(言)을 2음절 토씨{-이}보다 높게 인식하는 동시에 상승하는 음조의 특징을 인식할 것이므로, 음조형은 [MH]로 표시할 수 있다.

<표 5> {말+-이}의 Qt 사슬

		음절	
		말	-이
의미	검출지점	D2	
		HZ/Qt/조정Qt	
馬	Hz	261	257
	Qt	30	29
	조정 Qt	9	8
斗	Hz	183	242
	Qt	17	27
	조정 Qt	4	14
言	Hz	214	231
	Qt	23	25
	조정 Qt	4	6

<그림 5> {말+-이}의 청취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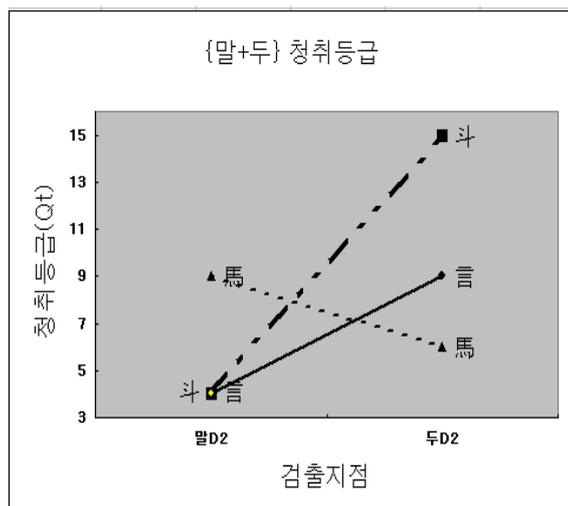
3.2.2 {말+-두}의 청각적 높낮이

{말(馬) : 말(斗) : 말(言)}이 토씨 {-두}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느끼는 높낮이의 청취등급은 <표 6>와 <그림 6>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말+-두}의 Qt 사슬

		음절	
		말	-두
의미	검출지점	D2	
		HZ/Qt/조정Qt	
馬	Hz	256	236
	Qt	29	26
	조정 Qt	9	6
斗	Hz	176	242
	Qt	16	27
	조정 Qt	4	15
言	Hz	190	223
	Qt	19	24
	조정 Qt	4	9

<그림 6> {말+-두}의 청취등급



첫째, {말(馬)+두}는 Qt 사슬이 30-39이고, 조정 Qt 사슬은 9-6이며, 조정 Qt값이 고조의 음역에 있다.

{말(馬)+두}에서 각 음절에 대한 사람들의 높낮이 인식과 음조형은 {말(馬)+이}와 같다.

둘째, {말(斗)+두}는 Qt 사슬이 16-27이고, 조정 Qt 사슬은 4-15이며, 조정 Qt값이 중조의 음역에 있다.

{말(斗)+두}에서 각 음절에 대한 사람들의 높낮이 인식과 음조형은 {말(斗)+이}와 같다

셋째, {말(言)+두}는 Qt 사슬이 19-24이고, 조정 Qt 사슬은 4-9이며, 조정 Qt값이 중조의 음역에 있다.

{말(言)+두}에서 각 음절에 대한 사람들의 높낮이 인식과 음조형은 {말(言)+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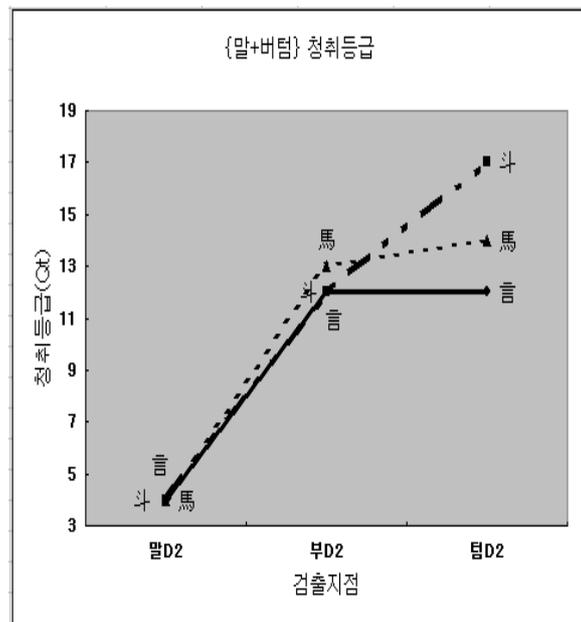
3.2.3 {말+-버팀}의 청각적 높낮이

{말(馬) : 말(斗) : 말(言)}이 토씨 {-두}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느끼는 높낮이의 청취등급은 <표 7>와 <그림 7>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말+-부팀}의 Qt 사슬

점	음절	말	-부	터
	검출지	D2	D2	D2
	의미	HZ/Qt/조정Qt		
馬	Hz	184	245	252
	Qt	18	27	28
	조정 Qt	4	13	14
斗	Hz	182	231	266
	Qt	17	25	30
	조정 Qt	4	12	17
言	Hz	195	246	246
	Qt	20	28	28
	조정 Qt	4	12	12

<그림 6> {말+-부팀}의 청취등급



첫째, {말(馬)+-버팀}은 Qt 사슬이 18-27-28이고, 조정 Qt 사슬은 4-13-14이며, 조정 Qt값이 저조의 음역에 있다. 즉, 사람들은 1음절 {말}(馬)을 가장 낮게, 2음절 토씨의 {-버}를 높게, 3음절 토씨의 {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음조형은 [MHH]¹³⁾로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말(斗)+-버팀}은 Qt 사슬이 17-25-30이고, 조정 Qt 사슬은 4-12-17이며, 조정 Qt값이 중조의 음역에 있다. {말(斗)+버팀}에서 각 음절에 대한 사람들의 높낮이 인식과 음조형은 {말(馬)+-버팀}과 같다.

셋째, {말(言)+-버팀}은 Qt 사슬이 20-28-28이고, 조정 Qt 사슬은 4-12-12이며, 조정 Qt값이 중조의

13) 각주 2번 참조.

음역에 있다. 사람들은 1음절 {말}(言)을 가장 낮게, 2음절 토씨의 {-버}를 높게, 3음절 토씨의 {텀}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동시에 상승하는 음조의 특징을 인식할 것이므로, 음조형은 [MHH]로 표시할 수 있다.

3.2.4. 청취음성학적 높낮이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Qt값의 차이와 {말(斗)+이}에서 각 음절의 Qt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Qt 척도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높낮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Qt값이 차이가 있는가?

첫째, 말(馬)은 {말(馬)+이, 도}에서 Qt값이 고조의 음역에서 실현되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조[H]로 인식한다. 다만, {말(馬)+버텀}에서 기저 성조형이 표면 음조형으로 도출될 때, 규칙을 적용받아 말(馬)의 음조가 중조[M]로 실현된다.

둘째, 말(斗)은 {말(馬)+이, 도, 버텀}에서 Qt값이 중조의 음역에서 실현되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조[M]로 인식한다.

셋째, 말(言)은 {말(馬)+이, 도, 버텀}에서 Qt값이 중조의 음역에서 실현되며, 사람들은 상승하는 특성과 함께 상승중조[M]로 인식한다.

넷째, 따라서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Qt값이 차이를 가지는 동시에 사람들은 다른 음조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7) {말(斗)+이}에서 각 음절의 Qt값이 차이가 있는가?

{말(斗)+이, 두, 부텀}에서 말(斗)은 토씨 {-이, -도, -버텀}보다는 낮게 실현되고 있으며, Qt값도 중조의 음역에 속한다. 그러나 {말(馬)+이, 두}에서 말(馬)은 토씨 {-이, -도}보다는 높게 실현되고, Qt값도 고조의 음역에 속한다. 따라서 {말(斗)+이}에서 각 음절의 Qt값은 차이가 있으며, {말(斗)이}, {말(斗)두}, {말(斗)부텀}의 음조형은 [MH], [MH], [MHH]로 표시할 수 있다.

4. 정선지역어 높낮이의 음운론적 실현

4.1. 정선지역어의 성조소

성조론은 높낮이의 음성적 실질을 분석하여, 자료와 이론이 모순이 없는 하나의 음운론적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성조소를 확인하고 성조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성조 기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성조소는 각 음절에 실린 음성적 높낮이가 뜻을 분화하는데 기능을 하는 음운론적 자질로서 성조론의 최소의 단위가 된다. 정선지역어의 성조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3장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음조형¹⁴⁾을 고려하여 최소대립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음조형이란 #-# 위치에 나타나면서 내부에 개방연접이 없는 1음절 이상의 모든 어절에 나타나는 일정한 운율형으

(8) 성조에 의한 최소대립어

	-이	-도	-부터	성조소
말(馬)	[HM]	[HM]	[MHH]	/H/
· 말(斗)	[MH]	[MH]	[MHH]	/M/
:말(言)	[MH]	[MH]	[MHH]	/M/

(8)을 보면, {말}은 음절을 구성하는 분절음은 동일하나, 높낮이가 달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에 얹힌 높이는 음운론적으로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조이다. 이에 정선지역어에는 /H/, /M/, /M/의 성조소를 설정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정선지역어의 성조체계는 3개의 성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8)의 {말(馬)+부터}에서 말(馬)의 음조는 고조[H]아닌 중조[M]로 실현된다. {말(馬)+부터}에서 말(馬)의 음조를 기준으로 성조소를 설정한다면, 올바른 성조기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높낮이의 음성적 실체인 음조형을 바탕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성조의 층위를 음운론적 층위(기저층위)와 음성학적 층위(표면층위)로 구별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2. 정선지역어의 성조형

성조 기술에서 성조소 외에 중요한 단위는 성조형이다. 국어의 성조 기술 단위는 허용(1955, 1963)에서부터 어절로 인식되어 왔다.¹⁶⁾ 또한, 김차균(1975)에서 성조방언을 기술할 때, 성조의 층위를 기저층위와 표면층위로 구별하여, “기저표상→중간표상→표면성조”로 층위를 설정했으나, 김차균(1977)에서 다시 “성조 층위(성조형¹⁷⁾)→음조층위(음조형)”로 보다 간략한 층위를 제시했다. 이후 김차균(1985)에서 기저성조가 표면성조로 도출할 때 적용되는 “성조규칙”과 표면성조가 음조형으로 실현될 때 적용되는 “음조규칙”을 정립했다.¹⁸⁾

김차균(2006)에서는 중세국어의 방점표기와는 다른 새로운 방점법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방점법은 성조를 2분했다는 점은 최세진(1957)과 같지만, 대립과 중화를 바탕으로 하여 성조를 구분한 점, 축성이 둘 이상일 때에 음성학적인 특징을 고려했다는 점, 거성이나 상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분포를 고려한 점 등은 새롭다. 여기서, 새로운 방점법으로 기저성조가 음조형으로 도출시키는 음운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로 음성학적 층위의 개념이다.

15) 정선지역어에는 성조에 의해 뜻이 분화되는 1음절과 2음절의 최소대립어는 이외에 더 있다. 그러나 기술의 편의상 하나만 제시한다.

16) 성조의 기술 단위로 어절 이외에 성조군, 말토막, breath group, phonological phrase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조가 문맥에 따라 단어보다 큰 구나 절, 문장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위에 얹힐 수 있기 때문에 언급된 것이다.

17) 성조형이란 #-# 위치에 나타나면서 내부에 개방연접이 없는 1음절 이상의 모든 어절에 나타나는 일정한 운율형으로 음운론적 층위의 개념이다.

18) 기저의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는 음운과정은 “기저성조→(성조규칙 적용)→ 표면성조→(음조규칙 적용)→음조형”이다.

(11)

기저성조	성조규칙	표면형	음조규칙	음조형
말(馬)/H/+·이/M/	→	/HM/	↔	[HM]
말(馬)/H/+·을/M/		/HM/	↔	[HM]
말(馬)/H/+부·터/HM/		/HHM/	(가)→	[MHM]
·말(斗)/M/+·이/M/		/M ² /	(나)→	[MH]
·말(斗)/M/+·을/M/		/M ² /		[MH]
·말(斗)/M/+·부·터/HM/		/M ³ /		[MHM]
:말(言)/M/+·이/M/		/M ² /	(다)→	[MH]
:말(言)/M/+·을/M/		/M ² /		[MH]
:말(言)/M/+부·터/HM/		/M ³ /		[MHM]

(11)에서 적용된 음조규칙은 3가지이다. 정선지역어의 음조규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토대로 설정해야겠지만 (11)에서 적용된 음조규칙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정선지역어의 음조규칙

- 가. 평복형 : H₂M→[MHM]/#____#
- 나. 거성형 : M₂→[MHM₀]/#____#
- 다. 상성형 : M₂→[MHM₀]/#____#

5. 결론

정선지역어의 성조체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지역어의 높낮이에 대한 음성학적 특성과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말(斗)과 말(言)의 성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에서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1) 정선지역어의 높낮이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특성

첫째,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F0값이 음성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음성분석 결과인 F0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馬) : 말(斗) : 말(言)의 높낮이를 각각 [H], [M], [M]로 표시한다.

둘째, {말(斗)+-이}의 각 음절의 높낮이는 각 음절의 F0값을 비교한 결과를 따르면, [LH]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장에서 정보초점이 놓일 때는 [HH]로 실현된다.

(2) 정선지역어의 높낮이에 대한 청취음성학적 특성

첫째, 어절을 이룰 때, 말(馬) : 말(斗) : 말(言)의 Qt값이 차이를 가지는 동시에 사람들은 다른 음조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남방언과 달리 정선방언은 두 개의 음역(고조와 중조)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말(馬)은 {말(馬)+이, 두}에서 Qt값이 고조의 음역에서 실현되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조[H]

로 인식한다.

② 말(斗)은 {말(馬)+이, 두, 버팀}에서 Q₁값이 중조의 음역에서 실현되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조[M]로 인식한다.

③ 말(言)은 {말(馬)+이, 두, 버팀}에서 Q₁값이 중조의 음역에서 실현되며, 사람들은 상승하는 특성과 함께 상승중조[M]로 인식한다.

둘째, {말(斗)+이, 두, 버팀}에서 말(斗)은 토씨 {이, 두}두다는 낮게 실현되고 있으며, Q₁값도 중조의 음역에 속한다.

(3) 정선지역어의 높낮이의 음운론적 특징

{말}의 음절을 구성하는 분절음은 동일하나, 높낮이가 달라 단어의 의미가 “馬”, “斗”, “言”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말}에 얽힌 높낮이는 음운론적으로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여 성조이며, 정선지역어의 성조체계는 2단 3성조이다. 즉, 음역에는 중조와 고조가 있고, 성조소는 /H/, /M/, /M/ 3개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문헌

김기호 외(2000), 「음성과학」, 한국문화사.

김무식(1992), 경북 방언 초분절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국어학22, 국어학회.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 150, 국어연구회.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만(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원(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김주원(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차균(1977), 어절 성조언어의 기술 방법,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김차균(1997), 우리말 성조 연구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 『언어』 1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성조의 비교」, 역락.

김차균(2006),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리.

김차균 외(2008), Q-tone 청취등급을 이용한 경남 동남부 장언 성조 분석, 한글 279, 한국학회.

문효근(1969), 영동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7, 연세대학교.

문효근(1973),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효근(1974), 한국 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연세논총 11, 연세대학교.
-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병곤 외(1998), 「음성학과 음운론」, 한신문화사.
- 윤종남(1986), 강릉방언에 대한 초분절음소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외(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 30.
- 이상녀(1991), 삼척지역어의 음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1972ㄱ),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동대어문 2, 동덕여자대학교.
- 이익섭(1972ㄴ), 강릉방언의 형태음운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 이익섭(1981), 「영동방언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 조오현(1995), 낱말 안에서의 ‘ㅎ’ 소리 변화, 「한말연구」 1, 한말연구회.
- 조오현(1997), 청양 방언의 분화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 조오현(1999), 내림겹홀소리의 홀홀소리되기 원인, 「건국어문학」 23-24,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영미(2001),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3), 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 실험 연구, 국어교육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허 응(1955),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 허 응(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河野六郎, 1945/1979, 朝鮮方言學試考 - 「「鋏」語考-,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 河野六郎, 1951, 朝鮮古文獻の聲點に就いて, 「朝鮮學報」 1.
- Ramsey, S, Robert, 1974, 함경·경상 양방언의 악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학회.
- Ramsey, S, Robert, 1975,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rects, 탐출판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고경민 (건국대학교)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아지면서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오류에 관한 연구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보충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한국어 교사의 교육과정과 내용에도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국 학습자의 작문과정에서 나타난 문장을 분석해 오류의 정도와 종류를 알아보고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 지도와 쓰기 교육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오류 연구는 크게 오류 양상에 관한 것과 오류 연구 결과의 적용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오류 현상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다룬 것 이라면 후자는 학습자 오류 자료를 교수 방법의 개발이나 교재, 평가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오류 현상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오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의 경우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표본으로 하였다. 한국의 교육원에서 15개월 이하로 학습한 학습자의 경우 초급 대상으로 삼았으며 1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학습자를 중급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에서 12개월 이상을 공부하고 왔지만 한국에서 학습한 지 6개월 미만의 학습자들도 초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 중에서 초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학습자 50명으로 분석대상은 작문과제를 토대로 하였다. 총 300편의 완성된 글, 3020개의 문장, 15100개의 어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글이나 정문을 제외한 1500개의 문장을 선별하여 오류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글은 '자기소개서'와 '방학 계획서',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문화체험 감상', '축제 감상문', '일기문', '편지글' 등이다.

분석 방법은 전체의 글을 각각 문장과 어절로 나누어 정문과 오류 문으로 구별하고 결과를 기준에 맞춰 통계 결과로 산출하였다.

오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기준은 범주별 오류 분류이고, 두 번째 기준은 현상별 오류 분류이다. 범주별 오류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문법에서의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상별 오류의 경우 대치오류와 누락오류, 첨가오류의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분류해

보았다.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 문장 중에서 오류문으로 정한 문장을 각각의 범주별 기준에 의거해 분류하고, 분류한 횟수를 바탕으로 전체 오류 문장에서의 오류율을 파악해 보았다.

3. 선행 연구

최근까지의 오류 연구는 학습자의 오류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언어에 대한 교육자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위논문이 54편, 학술지가 61편이다. 하지만 전체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논문 중 오류에 관한 연구는 학위논문이 4편, 학술지가 5편으로 10%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목표어로 학습하는 학습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중국인 학습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II. 범주별 오류 분석

1. 발음 오류

발음 오류를 분석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발음 오류가 맞춤법 오류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발음을 잘못 배워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작문 과정에서 맞춤법의 실수로 누락이나 첨가가 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에 기준을 찾기가 힘들었다.

발음 오류의 경우 초성에서 거센소리나 된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의 음운 오류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대부분이 대치오류의 형태를 보이며 간혹 누락오류도 보이고 있다. 전체 오류 문장을 살펴보면 발음과 관련된 오류가 120문장으로 전체오류 문장에서 보면 8%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1.1 초성오류

초성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은 거센소리나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전체 발음오류 중에서는 38문장으로 32%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 (1) ㄱ.* 연(√년) 봄에 예쁜 옷을 입어요. (중국, 8개월, 방학계획서)
- ㄴ. 가* 금(√꿈) 공부를 할 거예요. (중국, 8개월, 방학계획서)
- ㄷ. 가* 창(√장) 자극적인 것을 타고 싶었습니다. (중국 10개월, 문화체험 감상)
- ㄹ. 부모님 사* 찢(√진) 옆에 말하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중국 10개월, 영화감상문)
- ㅁ. 방학 * 대(√때) 집에 돌아갈 계획을 해요. (중국 12개월, 방학계획서)

초성오류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를 보이는 부분이 (1)의 ‘ㄴ, ㄷ, ㄹ’ 과 같은 부분이다. 즉 예사소리를 거센 소리로 적거나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적어야 하는 음운을 예사소리로 적는 경우이다. 1)

1.2. 중성오류

중성오류는 전체 발음오류 가운데 55문장으로 46%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중성오류에서는 /ㄱ, ㄷ/ 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가 많이 보이며 /ㄱ, ㄷ/ 의 혼동이나 /ㄱ, ㄷ/ 의 오류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학습 초기에 정확한 발음 보다는 어휘 위주의 학습 때문에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학습자들이 한국인 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내용을 다시 학습하지 않고 들은 대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생각된다.

- (2) ㄱ. 한국어 능력이 부* 죽(√죽)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중국, 8개월, 일기문)
 ㄴ. 공자랑 세* 중(√중)대왕이라고 해요. (중국, 8개월, 독서감상문)
 ㄷ. 기말시* 함(√힘)을 본 후에 겨울방학이 됩니다. (중국, 10개월, 방학계획서)
 ㄹ. 우리 약* 숙(√숙)해서 만나야 된다. (중국, 6개월, 편지글)
 ㅁ. 부모님 하고 남자 친구는 꼭 기* 빨(√빨)거예요. (중국, 6개월, 방학계획서)

예문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듯이 (2)의 ‘ㄱ’과 ‘ㄴ’ 같은 오류가 중성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1.3. 중성오류

중성에서의 오류는 26개 문장으로 전체 발음오류에서는 21%를 보인다. 중성오류에서 가장 빈번히 보이는 오류는 /ㄴ, ㄹ, ㅇ/ 과 같은 비음간의 구분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로 이 중에서도 /ㄴ/과 /ㅇ/의 구분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대치오류가 가장 많았다.

- (3) ㄱ. 공자는 중국에 유* 면(√명)한 학자입니다. (중국, 8개월, 독서 감상문)
 ㄴ. 한* 구(√국)친구가 북경에 옵니다. (중국, 6개월, 방학계획서)
 ㄷ. * 정(√전)공수업 끝난 후에 집에 와서 쉽니다. (중국, 6개월, 일기문)
 ㄹ. 음악도 너무 좋고 * 간(√감)동적이다. (중국, 11개월, 영화감상문)
 ㅁ. 우리 학교 학생들이 * 염(√연)기했습니다. (중국, 12개월, 축제 감상문)

중성오류에서는 ‘ㄱ’ 이나 ‘ㄷ’ 과 같은 오류가 가장 빈번했는데 이는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조금 더 분명한 발음교육을 해야 하며, 교사 자신의 발음도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 이정희(2003)에서도 외국인 학습자들이 초성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오류로 경구개음 /ㅈ/, /ㅉ/, /ㅊ/과 연구개음 /ㄱ/, /ㄷ/, /ㄹ/을 꼽고 있다.

2. 문법 오류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범주별 오류가 문법 오류이다. 전체 오류 문장 중에서 문법 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40개 문장으로 오류율로 보면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오류 문장의 절반 이상이 문법 오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조사의 오류

조사 오류는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듯이 한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문법 오류 중에서 537개의 문장(64%)을 차지했고 조사 오류 중에서는 격조사의 오류가 381문장(71%)으로 가장 많은 오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 보조사가 139문장으로 26%를 보였으며 접속조사가 17문장으로 3%의 오류를 보였다.

2.1.1. 격조사 오류

격조사 오류는 조사의 오류 가운데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는 부분으로 격조사 가운데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의 오류가 많이 보였다. 주격 조사가 전체 조사의 빈도수는 가장 많았지만 오류율은 부사격 조사가 가장 많았다.²⁾ 160개의 문장(42%)이 부사격 조사의 오류였으며 이 중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 오류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주격 조사가 92개 문장(24%), 목적격 조사가 87개 문장(23%)의 오류를 보였다.

격조사 오류에서 호격조사에 대한 오류를 많이 찾지 못했는데 이는 호격조사에 대한 오류율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번 분석의 대상이 된 작문에서 호격조사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오류 내용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ㄱ. 건국대학교의 축제* 은(√가) 재미있어요. (중국, 6개월, 축제 감상문)
 - ㄴ. 그래서 다른 도시* 가(√를) 구경 좀 해요. (중국, 6개월, 방학 계획서)
 - ㄷ.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이(√의) 딸이 동화책을 주었어요. (중국, 12개월, 독서 감상문)
 - ㄹ. 아르바이트는 방학계획* 을(√이) 아닙니다. (중국, 12개월, 방학계획서)
 - ㅁ. 주인공은 큰 나라의 왕* 있다.(√이다) (중국, 6개월, 독서 감상문)
 - ㅂ. 반갑다 친구* 아(√야)! 나는 왕운비입니다. (중국, 10개월, 편지글)
 - ㅅ. 중국* 에서(√에) 전통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12개월, 모국의 자랑글)

주격조사에서는 보조사 /-은/, /-는/ 과 주격조사 /-이/, /-가/ 를 서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2) 추준수(2007:12)에서는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조사 오류 중 부사격 조사가 30%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나 /-은, -는/ 과 /-이, -가/ 를 서로 대치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조사와 격조사의 구분을 하기에는 초급 학습자이기에 학습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두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사격 조사에서는 /-에/ 와 /-에서/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2.1.2. 보조사 오류

보조사는 전체 조사의 오류 가운데 140문장(26%)이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조사 /-은, -는/ 의 오류정도가 빈번하다. 또한 보조사 /-도/를 사용할 때 /-이/ 나 /-은/, /-을/과 같이 다른 조사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보였는데 이는 초급단계의 학습자들이 보조사 /-도/의 정확한 쓰임을 모르고 있다는 점과 평소에도 /-에서/, /-에/, /-까지/ 등의 다른 보조사가 /-도/와 함께 쓰인다는 사실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ㄱ. 사람에게 책* 이(√은) 좋은 스승입니다. (중국, 12개월, 독서감상문)
- ㄴ. 중국에 가면 친구들* 이도(√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10개월, 방학계획서)
- ㄷ. 롯데월드에는 스케이트장* 에도(√도) 있었어요. (중국, 10개월, 문화체험 감상)
- ㄹ. 천진에서 집* 에(√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중국, 12개월, 방학계획서)

사례에서 보이는 ‘ㄴ, ㄷ’ 과 같은 오류가 보조사 /-도/를 다른 보조사와 잘못 병행해서 사용한 경우이다. 초급과정에서부터 확실한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³⁾

2.1.3. 접속조사 오류

접속조사는 전체 조사 오류 문장 가운데 16개 문장(3%)에서 오류를 보였으며, 접속조사 중에서는 /-와, -과/ 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와, -과/의 오류는 초급 학습자 중에서도 한국어 공부가 가장 더딘 그룹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받침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또한 접속조사 /-(이)랑/과 /-하고/를 함께 사용한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

- (6) ㄱ. 그리고 부모님* 와(√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6개월, 방학계획서)
- ㄴ. 친구하고 어머니* 랑(√하고) 함께 저녁을 먹겠습니다.. (중국, 10개월, 방학계획서)

‘ㄴ’ 과 같은 경우가 접속조사 /-하고/와 /-(이)랑/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3) 특히 중국 학습자들의 경우 조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권이기 때문에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다. 초급 과정에서 한국어에서 조사의 역할과 쓰임을 확실히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2. 어미의 오류

어미의 오류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전체 문법 오류 중에서는 134문장(16%)이 어미의 오류로 분석되었다. 오류 양상은 종결어미의 오류, 연결어미의 오류, 전성어미 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는 연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연결어미의 종류가 일단 많다는 점과 연결어미의 특성 상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어에서 어미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2.2.1. 연결어미

연결어미에서 가장 많은 빈도와 오류율을 보이는 것은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이다.⁴⁾ 다른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중국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고’와 ‘-아서’의 의미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작의 선후를 나타내는 의미를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아서’의 경우 선후 문장의 관계가 순차적이기 보다 원인관계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로 보인다.

- (7) ㄱ. 제 친구들이 음식을 많이 사*고(√서) 먹습니다. (중국, 12개월, 축제감상문)
- ㄴ. 롯데월드 안에 사람이 많*는데(√은데) 롯데월드 유명한 것은 생각 했어요. (중국, 10개월, 문화체험 감상)
- ㄷ. 추석이*면서(√어서) 하늘에 크고 동그란 달 있어요. (중국, 6개월, 문화체험 감상)
- ㄹ. 밥을 먹*어서(√고)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갑니다. (중국, 6개월, 일기문)
- ㅁ. 바람을 보*고(√니) 내일 눈이 오지 않을 거예요. (중국, 10개월, 일기문)

(7)의 ‘ㄱ, ㄹ’ 같은 형태가 ‘-고’와 ‘-아서’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2.2.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와 함께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이 전성어미 중 관형사형 어미이다. 그 중에서도 ‘-는’과 ‘(으)ㄴ’의 구분을 힘들어 했는데 서술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초급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틀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학습단계에서 초급자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형을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이정희(2003:149)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급 학습자들이 범하는 어미 오류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고’, ‘-아(어)서’, ‘(으)면’ 순이다.

- (8) ㄱ. 한국 문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한(√하는) 것은 한글입니다. (중국, 10개월, 한국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
- ㄴ. 실용한국어를 배*우(√운)지 6개월 되었습니다. (중국, 12개월, 방학 계획서)
- ㄷ. 원래는 공부*하(√한)다고 생각했지만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중국, 10개월, 일기문)
- ㄹ. 농구는 재미있지만 힘*드(√든)는 운동입니다. (중국, 10개월, 자기소개서)
- ㅁ. 제 취미는 노래 부*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 10개월, 자기소개서)

(8)의 ‘ㄱ’과 ‘ㅁ’의 경우는 ‘(으)ㄴ’이 아닌 ‘-는’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고 ‘ㄹ’은 반대의 경우로 대치한 사례이다. ‘ㄴ’과 ‘ㄷ’의 경우 전형적인 누락 오류로서 사례와 같이 ‘(으)ㄴ’과 ‘-는’의 대치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오류 형태이다.

2-3. 시제의 오류

시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급 학습자들도 학습하기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건의 발화시점 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상의 의미까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에서 시제의 오류는 총 89문장(10.6%)이 나타났다. 시제 오류 중에서는 과거표현을 현재로 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원인으로 대부분의 작문과제와 평가가 현재 상황에 대한 쓰기를 요구하다 보니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표현도 현재형으로 표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선어말 어미 ‘-겠’, ‘-았/었’에 대한 오류도 상당 부분 보였으며 시간 부사를 제시한 후에 알맞은 어미를 결합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도 있었다.

- (9) ㄱ. 어제는 친구들과 마트에 *갑(√갔습)니다. (중국, 6개월, 일기문)
- ㄴ. 방학 중 저의 꿈은 제주도에 *갈(√가는) 것입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ㄷ. 지난 방학에 *간(*√갔던) 부산은 바다가 있습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ㄹ. 제 친구는 아주 잘 생*깁니다.(√졌습)니다 (중국, 6개월, 자기소개서)
- ㅁ. 저는 중국에 가면 부모님을 잘 도와*주겠습)니다.(√줄 것입니다) (중국, 12개월, 방학 계획서)
- ㅂ. 지금 축제에 *갔습)니다.(√갑니다) (중국, 10개월, 축제 감상문)

(9)의 ‘ㄱ’과 ‘ㄷ’의 경우 과거 표현을 현재 표현으로 바뀌서 일어난 오류이고 ‘ㄴ’의 경우 방학 중에 일어날 일을 미래 추측이라 생각해서 ‘-ㄹ’을 쓴 것이다. ‘ㄹ’의 경우 선어말 어미 ‘-었’을 써야 할 자리에 누락된 오류로서 ‘생기다’라는 동사의 활용형태를 몰라서 생긴 오류이거나 처음부터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6개월 이상 학습한 학습자의 경우 대부분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ㄹ’의 경우는 문장 자체가 과거 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ㅁ’의 경우 ‘ㄹ/을 것이다’가 바른 문장인데 12개월을 학습한 학습자들이 선어말 어미 ‘-겠’이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4. 높임법의 오류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로 초급의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 현상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나’와 ‘저’를 혼동해서 나타난 오류가 많았고 선어말 어미 ‘-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생긴 오류가 많이 보였다. 높임법 오류는 전체 문법 오류 문장 가운데 51문장(6.2%)에서 오류를 보였다. 높임법 오류 중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나’와 ‘저’를 혼동해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⁵⁾

- (10) 가. 할머니 * 모양(√모습)을 * 보고(√뵈고) 가련했어요. (중국, 6개월, 영화 감상문)
- 나. * 나(√저)도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중국, 6개월, 영화 감상문)
- 다. 설날 되었을 때 부모* (√부모님)와 같이 고향 가요.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르. 친구들이 함께 밥을 먹어서 * 제(√내)가 너무 부러웠다. (중국, 6개월, 문화체험 감상)
- ㅁ. 중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친구와 밥을 * 드십니다.(√먹습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ㅂ. 부모님께서 통화하고 알려* 준(√주신) 거예요. (중국, 12개월, 일기문)

(10)의 ‘가’의 경우 높임의 의미가 있는 어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로 이 단계인 학습자에게 높임표현을 담당하는 어휘를 알려주고 다시 작문을 시키게 되면 ‘ㄹ’과 ‘ㅁ’처럼 과도한 높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때 학생들은 한국어에 높임표현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자신이 쓰는 글에 높임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ㄹ’의 경우는 초급 학습자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로서 ‘나’와 ‘저’가 들어갈 자리에 대해 혼동하게 된다. 이 때도 역시 ‘나’에 대한 높임표현으로 ‘저’를 학습하게 되면 그 다음 작문에서는 ‘나’를 사용해야 할 부분에 ‘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ㅂ’의 사례는 높임의 격조사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선어말 어미 ‘-시’의 적용이 누락된 오류이다.⁶⁾

2-5. 어순의 오류

중국어의 경우 어순이 고정적이지만 한국어의 경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처음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보이는 항목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학습해나가면서 6개월 이상 학습한 학습자들의 작문을 보면 눈에 띄게 어순의 오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순의 오류는 총 36문장(4.3%)이 나타났다. 어순의 오류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많은 오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와 관련한 오류이다. 빈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경우 목적어 앞에 부사어가 쓰이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5) ‘나는 ~ 습니다’와 같은 오류는 이정희(2003:118)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높임법 오류 중 교정이 잘 되지 않는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6) 이번 분석에서 높임법과 관련된 오류항목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오류가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분석의 대상이 된 작문과제들이 대부분 자신의 감상과 느낌을 적는 쓰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류율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11) ㄱ. 방학 때 * 많이 취미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ㄴ. 두 사람을 보니까 젊었을 때 * 많이 공부를 한 것이예요.(√공부를 많이 한 것이예요.) (중국, 12개월, 독서 감상문)
- ㄷ. 중국에 가면 먼저 * 1인분 양고기 요리를 먹고 싶어요. (√양고기를 1인분 먹고 싶어요.)(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ㄹ. 그리고 부모님과 * 즐겁게 매우(√매우 즐겁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사례 (11)의 ‘ㄱ’과 ‘ㄴ’을 보면 부사 ‘많이’를 목적어 앞에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학습자들은 ‘많다’, ‘매우’, ‘진짜’, ‘정말’ 등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강조하는 부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다른 오류보다 부사어와 관련된 오류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ㄹ’의 경우는 ‘즐겁게 많은 시간’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못 사용된 오류인지 ‘즐거움의 정도를 강하게’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부적절한 위치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어순 오류에서는 총 27문장(76%)이 부사어와 관련된 어순 오류이다.

3. 어휘 오류

어휘 오류의 경우 문법 형태의 오류보다 전체 오류 횟수는 적지만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어휘 오류는 비슷한 어감이나 뜻을 나타내는 유의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휘 오류는 전체 오류 중 280문장(18.7%)을 차지했다.⁷⁾

- (12) ㄱ. 이 영화를 보고 느낌이 많이 * 나옵니다.(√웁니다.) (중국, 12개월, 영화감상문)
- ㄴ. 방학 했을 때 * 매날(√만날, 매일)공부하고 알바해요. (중국, 12개월, 방학 계획서)
- ㄷ. 이렇게 하면 공부는 * 아마(√아주) 재미있어요. (중국, 6개월, 방학 계획서)
- 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 잃어버리면(√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ㅁ. 이 배경은 독자에게 아주 중요한 * 개발(√계발)을 해 준다. (중국, 12개월, 독서 감상문)

‘ㄱ’의 경우는 ‘느낌이 웁니다.’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다른 작문에서 ‘오다’와 ‘나오다’를 병행해서 사용했던 학습자가 의미적 유사성에 의해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ㄴ’의 경우는 복합적인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매날’은 ‘맨날’을 적으려고 한 표현이다. 하지만 ‘맨날’이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책 속에서 보거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니다. 다른 한국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듣게 된 표현인데, 정확하게 발음을 듣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관형사 ‘매’를 알고 있는

7) 어휘 오류 중에서는 ‘나’와 ‘저’의 의미를 혼동하고 대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높임표현이 발달하지 않은 언어권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이다. 본고에서는 ‘나’와 ‘저’의 오류를 높임법 오류로 처리하였다.

상황에서 ‘매일’에 대한 표현으로 ‘매날’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ㄷ’의 경우는 초급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 ‘아주’를 적으려고 했던 학습자가 의미보다 형태적인 유사성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ㄹ’와 ‘ㄱ’의 사례는 한국어 학습에 열성적인 학습자들에게도 많이 보였는데 의미적 유사성 때문에 생긴 오류이지만 ‘있다’와 ‘계발’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ㄱ’과는 다른 양상의 오류이다.

4. 맞춤법의 오류

한국어 맞춤법은 한국어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습자 외에 모국어 화자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오류현상이다. 띄어쓰기 오류와 표기상의 오류가 나타났는데 맞춤법 오류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학습자가 잘못 표기하는 원인이 발음의 문제 때문인지 처음 배운 문법 형태를 기억하지 못해서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맞춤법 오류는 전체 문장 중 230문장(15.3%)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소리대로 쓰거나 불규칙 등의 문법적 변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⁸⁾

- (13) ㄱ. 공부 안 하면 *크닐(√큰일)이에요. (중국, 6개월, 일기문)
 ㄴ. *하지마(√하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행락 시설을 두 개만 탔어요. (중국, 6개월, 문화체험 감상)
 ㄷ. 집에 저 먼저 친구 *만아요.(√많아요.) (중국, 6개월, 방학 계획서)
 ㄹ. 강의실은 오전 9시에 *열니다.(√엽니다.) (중국, 6개월, 일기문)
 ㅁ. 아침에 교실문을 열고 집에 갈 때 *잠겨라.(잠가라) (중국, 12개월, 독서 감상문)

‘ㄱ’, ‘ㄷ’의 경우는 어휘를 따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정리 없이 표현하다 보니 생기는 오류이다. 대부분의 초급 학습자들은 정확하게 작문을 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에 더 만족스러워 한다. ‘ㄹ’은 ‘열다’의 불규칙을 알지 못해서 생긴 오류인데 ‘뜯다’, ‘날다’, ‘놀다’ 같은 불규칙으로 인한 오류가 많이 보인다. ‘ㅁ’은 ‘잠그다’의 문법적 활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지만 그것보다 주변에서 “잠겨라”로 사용하는 한국인 화자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담화 맥락의 오류

담화 맥락의 오류는 전체적인 담화의 주제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오류로 판정하였다. 개별적인 어휘의 사용은 올바른데 전체 맥락에 맞지 않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담화 맥락의 오류는 전체 오류 문장 중에서 45문장(3%)으로 가정 적은 오류 횟수를 기록했다. 담화 맥락의 오류는 주로 학습자들이 많은 어휘를 사용해서 작문을 하고자 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문맥상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담화 맥락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8) 이정희(2003: 163)에서 맞춤법 오류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 (14) 가. 마지막에 손자가 할머니를 떠나는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 나. 할머니는 비에 젖었어요. (중국, 12개월, 영화 감상문)
- 다. 프랑스 사회의 불공평했고 사회 어두웠습니다.
- 르. 평범한 사람을 동정합니다. (중국, 12개월, 독서 감상문)

‘가’과 ‘나’의 경우 할머니를 떠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왜 감동적이었는지를 적기 보다는 그 외의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문장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와 ‘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설 속 프랑스 사회가 불공평하고 어두웠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을 동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담화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III. 현상별 오류 분석

현상별 오류 분석은 범주별 오류 분류처럼 세부적인 오류 현상이라기보다 오류가 나타나는 형태라 할 수 있다.⁹⁾ 이번 장에서는 크게 대치오류와 누락오류, 첨가오류로 분류해 보았다.

1. 대치 오류

대치 오류는 학습자가 원래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문법 형태를 바꾸는 경우로 현상별 오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오류 문장 중 1230문장(82%)이 대치 오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치 오류는 의미가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쓰는 유사어 대치와 전성어미 대치, 조사 대치로 각각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유사어 대치의 경우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휘오류의 대부분이 이 유사어 대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술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용언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 초급자 대부분이 범하는 오류가 대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 (15) 가. 한국어 능력을 꼭 3급 *도착(√도달)할 거예요.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나. 우리 가족들*에(√을) 만날 거예요. (중국, 6개월, 방학 계획서)
- 다. 중국 계림은 유명*하는(√한) 곳입니다. (중국, 10개월, 방학 계획서)
- 르. 비가 조금 *나왔어요.(√왔어요.) (중국, 12개월, 문화체험 감상)

‘가’의 경우 ‘도착’과 ‘도달’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난 대치 오류이다. ‘르’의 경우도 ‘오다’와 ‘나오다’의 의미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생긴 오류이다. ‘나’의 경우 가장 많이 보이고

9) 이정희(2003: 126)에서는 현상별 오류 분류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의 형태와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으며 정확한 문법 형태소를 사용하기보다 의사소통을 위해 의미의 전달에만 초점을 두고 문장을 생성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있는 조사의 대치 오류이고, 'ㄷ'는 전성어미의 대치 오류이다.

2. 누락 오류

누락은 기입되어야 할 것이 빠진 것으로 학습자가 정확한 문법 형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오류 횟수는 총 156문장(10.4%)으로 나타난다. 누락 오류를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사'와 관련된 오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조사'의 경우 한국인 화자들도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빠져있다고 해서 무조건 '누락오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락 오류는 대부분 조사 오류가 많기 때문에 오류문과 정문을 정확히 비교하고 오류로 처리해야 한다.

- (16) ㄱ. 남자 주인공 아기를 위해 지갑을 훔쳐 경찰* ∅(√에게) 잡혔다. (중국, 10개월, 영화감상문)
- ㄴ. 중국 문화* ∅(√중에서) 성실한 것 소개할게요. (중국, 12개월, 문화체험 감상)
- ㄷ. 회양 요리는 해산물 위주로 칼슘씨와 다양* ∅(√한) 요리법을 가진다. (중국, 12개월, 중국문화 소개글)

(16)의 'ㄱ'은 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빠져있기 때문에 누락오류로 처리하였다. 'ㄴ'은 '중국 문화' 중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문화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인데 '중에서'의 의미를 갖는 어휘가 누락되었다. 'ㄷ'은 어미가 생략된 사례로 '다양'이란 말이 중국어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인다.¹⁰⁾

3. 첨가 오류

첨가는 이미 있는 것에 보태거나 덧붙이는 것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불필요한 문법 형태를 추가하는 오류이다. 첨가의 오류는 총 114문장(7.6%)을 보이고 있다.

- (17) ㄱ. 사람이*의 기질이 고매해요. (중국, 12개월, 중국 문화 소개하기)
- ㄴ. 나와 같은 방의 친구*의 지연이는 좋은 친구입니다. (중국, 10개월, 일기문)

'ㄱ'과 'ㄴ' 모두 조사가 첨가되어 생긴 오류로 한국어에서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작문을 할 때 조사 누락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사용하다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¹¹⁾

10) 실제 중국 학생들의 경우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과는 달리 어색한 한자식 표현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자주 이야기한다. 한 예로 "오늘 햇볕이 따뜻합니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 때 "오늘 양광이 따뜻합니다."식의 한자어 사용을 보이고 있다.

11) 첨가 오류는 누락 오류에 비해 한국어를 더 오랜 시간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범주별 분류에서는 전체 1500문장 가운데 발음과 관련한 오류가 120문장(8%)이 있었고, 문법 오류가 840문장(56%)으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였다. 문법 오류 중에서는 조사의 오류가 537문장(64%)로 빈도수와 오류율 모두 절반이 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381문장(71%)이 격조사의 오류였다. 조사의 오류 다음으로 많은 오류율을 보인 것은 어미의 오류이다. 모두 134문장(16%)의 오류가 있었는데 어미의 오류 중에서도 연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시제의 오류는 89문장(10.6%)이 오류 문장이었고,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대치하여 쓴 오류의 빈도가 높았다. 높임법은 51문장(6.2%)의 오류율을 보였는데, 선어말 어미의 사용이나 격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해서 생긴 오류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어순의 오류는 36문장(4.3%)의 오류를 보였으며 주로 부사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긴 오류가 많았다. 문법 오류는 대부분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는 범주로서 중국인 학습자들도 다른 외국인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문법 오류가 가장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 오류 다음으로 많은 오류를 보인 것이 어휘와 관련한 오류이다. 어휘와 관련된 오류는 280문장(18.7%)이 오류문장이었는데 대부분이 유사어 대치 오류를 보이고 있었다. 맞춤법 오류는 230문장(15.3%)의 오류문이 있었는데, 불규칙 등의 문법 요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다가 발생한 오류가 많았다. 담화맥락의 오류는 45문장(3%)로 가장 적은 오류율을 보였고 전체 문맥의 의미보다는 해당하는 문장을 확장해서 적으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많이 보였다.

현상별 오류에 있어서는 대치 오류가 전체 문장 가운데 1230문장(82%)로 가장 많았으며 대치 오류 중에서도 유사어 대치가 대부분의 대치 오류문을 차지하고 있다. 누락의 오류는 156문장(10.4%)이 오류문이었고, 조사의 누락과 어미 누락의 오류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첨가 오류는 114문장(7.6%)로 현상별 오류에서는 가장 적은 오류율을 보였는데, 주로 조사의 첨가가 많았다.

한국어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이번 오류 분석을 통해서 교착어(첨가어)의 특징을 갖는 한국어를 중국 학습자가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접사’와 ‘조사’ 같은 문법적 기능을 가진 말들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나 음절 끝에 자음이 불과음으로 실현되는 부분 등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 연구는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학문이며 이러한 오류 연구를 위해 오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오류 분석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영만(1994),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작문지도 방안 연구', 금영만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옥(2002), '학습 단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통계적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7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김유미(2002),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7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김창구(2005),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중급단계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백양인문논집』 제10집 신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나은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중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통권7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송주영(2002), '한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오류 연구' : 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영숙(200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미오류 분석'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코기토』 제61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소림(2003),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쓰기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 분석', 『어학교육』 제33집,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 이소영(2003), '한국어 학습자의 표기 오류 실태 연구' :영어권·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제23호, 이중언어학회
- 이은기(2005),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절 시제 교수 방안 연구' :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경(2003),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 어미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2003),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이중언어학』 제22호, 이중언어학회
- 이정희(2005),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출판사
- 임경희(2005),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조사 오류 분석',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명진(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 발음오류와 변이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서원(2004),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주(2008),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추준수(2007),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신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송화(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전성 어미에서의 오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7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